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4월 7일(음력2월 18일) 수요일 (주간) 제468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법당이 어린이를 찾아간다

대불어, 법회없는 지역 방문 … 전래놀이 등 프로그램 다양

첫 법회 25일 조치원 호국 영평사

어린이 포교에 봄바람이 분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 · 이하 대불어)가 지도교사가 없거나 경험 부족으로 어린이 법회를 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법회를 열어주는 '찾아가는 어린이 법당'을 시작한다.

부처님 이야기, 전래놀이, 레크리에이션, 영화 상영, 성격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지는 대불어의 '찾아가는 어린이 법당'은 어린이 법회에 새순을 피우는 봄비로 전국을 적시게 된다. 더욱이 '찾아가는 어린이 법당'은 어린이 법회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상대적으로 어린이 법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전라 · 충청 · 강원도 지역을 우선으로 부산과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받은 대불어는 개척 포교당이나 지도교사가 없는 곳 등 조건이 열악한 곳부터 자격증을 갖춘 전문 지도교사들이 달려가 오랜 경험이 녹아있는 알차고 재미있는 법회 모델을 선보인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30~40명의 지도교사들이 지원단을 꾸리고 하루 전날 신청 사찰을 찾아 일체의 준비를 도맡는다. 한 달에 한 곳, 적어도 열 군데의 어린이법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찾아가는 첫 법당은 4월 25일 충남 조치원 군법당 호국 영평사에서 열린다. 법당을 신축해 놓고도 경험이 없어 어린이 법회를 망설이고 있던 차라 이곳의 기다림은 남다르다.

"첫 법회니까 첫 인상이 좋아야 하잖아요. 지도자의 역량을 두루 갖춘 분들이 직접 와 준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호국 영평사 금장 군법사는 많은 어린이가 이번 법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법사를 대신해 대불어에 신청을 하는 열성을 보인 전난희 씨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어릴 때부터 부처님 말씀을 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 어린이 법회가 열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거듭 반가움을 나타냈다.

전라도 순천의 도심 포교당 금당절 주지 법운 스님도 신청했다. 스님은 "어린이 법회가 없어질 위기상황인데, 전문가들이 와서 법회를 열어주면 배우는 것도 많고 어린이 법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부모들에게 어린이 법회의 필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부모들도 참관시킬 계획이다. 금당절에서는 6월에 찾아가는 어린이 법당이 열린다.

'찾아가는 어린이 법당'의 전체 진행을 맡은 이수안 대불어 사무국장은 "어린이 법회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지역, 관심은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지역 등에 어린이 포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불어 전화(051)864-4569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중진 스님들의 강강술래

3월 31~4월 2일 직지사에서 열린 '조계종 중진 지도자 과정 연수'에 참가한 법랍 25년 이상의 중진 스님들이 연수프로그램 중 하나인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강강술래를 함께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직지사=고영배 기자

의장 종산, 부의장 지혜 · 보성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종산 스님



지혜 스님



보성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새 의장에 종산(宗山) 스님이 만장일치 추대됐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3월 31일 23차 회의를 개최하고 새 의장에 종산 스님, 수석부의장에 지혜(밀양 대법사 조실), 차석부의장에 보성(조계종립 방장) 스님을 추대했다.

1924년생인 종산 스님은 1949년 사미계를, 1954년 비구계를 받았다. 41안거를 성만하고, 직지선원 조실 등을 역임, 현재 청주 보살사에 주석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만장일치



고불총림 방장에 수산(壽山) 스님(사진)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4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제163회 임시종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1922년 전남 장성生인 수산 스님은 1938년 백양사에서 사미계를, 1941년 비구계를 수지, 백양사 운문암, 다보사 선원 등에서 정진했다.

백양사는 4월20일 오전 10시 추대법회를 봉행한다. **남동우 기자**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벌이고 있는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는 불자들이 보다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눔의 ARS (060-700-1080)를 3월 26일 개통했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일반전화와 휴대폰을 통해 060-700-1080을 누르면 3천원이 자동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됩니다.

ARS : 060-700-1080

미국 하와이에서 부다피아 여름캠프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역사+문화체험

본사는 창간10주년을 맞아 100년 전 이민의 첫발을 내디딘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캠프를 개최합니다.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총 54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원어민 강사와 총 60시간에 걸쳐 역사 문화체험.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빅아일랜드 화산섬, 자연박물관,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방문, 세계대전의 격전지 진주만 탐방

■ **참가대상** : 초 · 중 · 고등학생

■ **기간** : 7월 29일~8월 19일 (21박 22일)

■ **참가비** : 250만원 (여권,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 선착순 50명

■ **참가신청** : 3월 15일~4월 23일

■ **장소** : 하와이 무량사 한인문화원

■ **협찬** : 진각종통리원 (재)대한불교 진흥원 (재)보덕학회

■ **이런점이 좋아요**

● 참가비 최소화
하와이 무량사 숙식후원으로 가격거품 제거. 추가비용 없음.

● 원어민 교수진
강사진들은 미국 하와이주립대 어학연수원 원어민 교수진.

● 효과적인 회화구사
문화체험시 실제 상황에 적용해 유창한 영어를 구사.

● 단계별 수업
자신에게 적합한 레벨에서 공부하도록 하여 실력을 향상.

문의: 현대불교신문 (02)722-4162~3 / 016-292-1987

참가비 입금통장: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총지종 종령 수성대종사 원적

3월 31일 종단장 엄수



제8대 총지종 종령 수성(修成) 대종사(사진)가 3월 29일 오후 3시 45분경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원적했다. 법랍 51년, 세수 75세. 고결식(영결식)은 3월 31일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종단장으로 치러졌다.

수성 종령은 열반에 들기 전 "원정종조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셨던 이치와 인과법을 모든 승직자와 교도들이 마음에 지니고 계행과 수행정진을 이어가라"고 유훈을 남겼다.

수성 종령은 1930년 경북 영일에서 태어나 54년 진각종에서 득도했다. 72년 총지종 창종과 함께 대구 개천사에서 교화를 시작했으며, 대구 제석사, 영천 단음사 등 대구 · 경북지역의 여러 사찰을 개창했다. 또한 중앙종의회 의장, 종립 동해중학교 이사장 등 종단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종무행정을 관장, 총지종이 반석에 오르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박봉영 · 배지선 기자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16면

선원장 초청 대법회

지환 스님 '선수행의 요체'

4월 11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

'할'



그림 · 조태호

- 영진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www.mahamall.co.kr www.mahamall.co.kr www.mahamall.co.kr www.mahamall.co.kr www.mahamall.co.kr

다양한 연등을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www.mahamall.co.kr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을 밝힙시다



만 월 등 ▶ 사이즈 : 32cm X 32cm ▶ 색 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흰색(영가), 오색등



공단등(비단등,실크등) ▶ 지 름 : 23Cm(大)18cm(中)15cm(小) ▶ 색 상 : 황금, 연분홍, 진분홍, 빨강, 흰색(영가등)



종 등 ▶ 사이즈 : 40cm X 27cm ▶ 색 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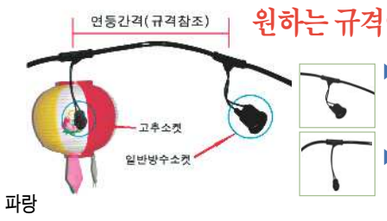


팔모접등(주름등) ▶ 사이즈 : 26cm X 26cm ▶ 색 상 : 핑크, 오렌지, 연두



팔모조립등 ▶ 사이즈 : 26cm X 26cm ▶ 색 상 : 핑크, 오렌지, 연두, 파랑

연등용 전선케이블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 특 징 : 안전검사를 완료한 전선(KS인증) 100%사용 연등전선구입시 반드시 KS인증을 받은 전선인지 확인하십시요.

▶ 등간격 : 1M, 2M, 3M, 4M, 5M ※기타 규격 별도 주문 연등의 간격은 등1개당 간격을 말합니다.

마하몰에서 빠르고 편하게 연등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주문 전화 : 02)732-1520



'환경' 없는 불사 없다

환경(環境)과 생명(生命)이 이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지만, 과연 불교는 이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어느 종교보다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이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세속의 물량주의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이 많다. 그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불사문제(佛事問題)다. 청정불사(淸淨佛事)이고, 환경불사(環境佛事)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경적인 불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종교유산과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포함하는 복합유산(複合遺産)을 간직한 사찰(寺刹)이라는 물리적 공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찰 불사(佛事)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과의 전체적인 조화(調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계획적인 건물의 배치와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자연과의 조화 수행의 첫조건
사찰은 '복합유산' 먼저 인식을

특히 새롭게 창건되는 사찰이라면 모르되, 기존 사찰의 경우 창건(創建) 당시의 안목으로 돌아가 살필 줄 아는 지혜와 자연과 전체적인 조화(調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불사들은 '조화(調和)보다는 규모(規模)'를 중요시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통성(傳統性)도 해치게 되고, 주위의 환경도 훼손하게 되는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의 친환경적 불사(親環境的 佛事)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친환경적 불사(親環境的 佛事)를 위해서는 우선 사찰은 종교적 성지(宗敎的 聖地)이고,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을 간직한 이 시대의 종합유산(綜合遺産)으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삼세(三世)의 유산자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삼세(三世)의 관점에서 사찰을 바라보아야 한다. 창건주와 역대조사가 유지해 온 안목과 지혜를 유지하고, 현재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지는 불사와 총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찰기본계획(master plan)이 수립돼 일시적인 불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통성(傳統性)과 자연성(自然性)을 고려한 지속적인 불사(佛事)와 관리(管理)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진정한 의미의 대형불사는 이 시대의 문화유산을 창출시키는 불사다. 과거의 전통을 바탕으로 특성을 살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만드는 불사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불사는 불교적 전통을 이어가는 불사이어야 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불사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불사의 주체인 스님들이 명심했으면 한다.

■ 이병인(밀양대 환경공학과 교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사면개헌' 3번째 부결

조계종 163회 종회, 총림법개정안 등 '통과'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이 세 번째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4월 1일 열린 제163회 임시종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 결과 78명 중 찬성 50명, 반대 28명으로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종회에서는 또 무기명비밀투표 결과 72명 중 찬성 42명, 반대 27명으로 새 교육원장에 청화 스님(춘천 청평사 주지)을 선출했다.

초심호계위원으로 도견 스님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진기 스님을 재선출 했으며, 종헌 · 종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홍 스님(조계사 주지)을 선출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후보로 일면 · 혜림 스님(입적한 정대 스님 후임)과 이재창 · 원용선 씨(임기만료된 서돈각 이사 후임)를 추천 동의했다.

중앙종회 직능대표선출위원으로 통광 · 수경 · 정념 · 종상 · 명철 · 지선 스님을 선출했으며, 전 위원장 청화 스님이 교육원장으로 선출돼 공석이 된 범어사 · 선암사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향적 스님을, 위원으로 진구 스님을 추대했다.

한편 방장은 15안거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하는 것 등으로 수정하고, '선원장은 방장이 위촉하며 선원 대중의 화합과 질서를 위한 청규를 관장한다'는 조항을 첨가한 총림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다만 관리위원회가 이사와 감사 등 임원 후보를 선정할 때는 당해 교육기관의 법인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7조 4항을 삭제하는 등의 종립학교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회는 2일 오후 성원미달로 자동 유회됐다. 남동우 기자

"출가연령 제한 재고 필요"

인터뷰 조계종 새 교육원장 청화스님

▲'선교육 후득도'에 대한 생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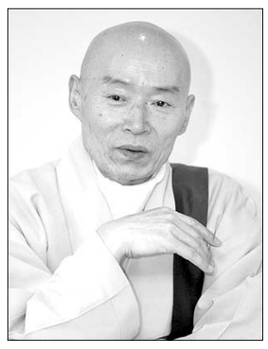
-바람직한 제도다. 그러나 그런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여러 가지 구비해야 할 조건과 시간이 필요하다. 즉 '선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후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후득도'를 연결시킬 수 없다.

▲교육원장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정책은?

-교육의 질적인 문제다. 이것은 제도적인 보완과 동시에 병행해야 할 것 같다. 행자교육도 보완해 수행자 양성을 위한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간화선에 대한 입장은?

-종단 주변에서 간화선에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도 있고, 위빠사나 등에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도 소중히 생각해야 되지만, 변화된 욕구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전통과 변화가 부딪쳐야 발전이 있을 것이다.



▲출가연령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견이지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인력수급 문제가 우려된다. 연령 하향 조정 측 의견을 들어보면 수행자로서 위상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일리는 있지만 문턱은 낮추고 대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여과 장치로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면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평소 생각하는 수행자 상은?

-법구경에 '자신을 바르게 한 뒤에야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다. 교육의 최고 가치는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해야 깨달음도 가능할 것이다.

청화(靑和) 스님은 1944년 출생, 1964년 화계사에서 혜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2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종무원 교무국장, 제11 · 12 · 13대 중앙종회의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춘천 청평사 주지로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은해사 연수원 건립 협조"

법장 스님 3개 본사 잇단 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 연수원 건립에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3월 26일 은해사에서 열린 '교구본 · 말사 주지 및 신행 단체장 간담회'에서 은해사 포교국장 혜해 스님이 "은해사 교양대학 수강 신청자가 500여명에 이르지만 200여명 밖에 수용할 수 없다. 연수원 건립을 위한 지원을 바라며 국비 보조금 신청에 총무원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자 법장 스님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의성 고운사(주지 혜승) 간담회에서는 본말사와 신도회가 모은 조계종 총본산성역화 사업을 위한 불사금 1700만원이 전달됐다.

한편 28일 예산 수덕사(주지 법정)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장 스님은 '자비의보험금' 나눔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천 · 의성=배지선 기자

이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東大 이사회서 결의

동국학원 이사회(이사장 현해)는 3월 31일 타워호텔에서 제198회 이사회를 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인 명칭인 '학교법인 동국학원'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로 변경키로 결의했다.

또 동국학원 산하의 모든 종립학교에 대해서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 00학교'로 명칭을 사용키로 하고 학교 측에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41명의 교원 승진 임용에 관한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산불교병원 장례식장과 관련한 수익사업체 신설을 위한 정관개정 건은 다음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명우 기자

불교시민 · 사회단체 프로그램 공모 실시

조계종이 불교계 시민 · 사회 운동 활성화를 위한 '2004 불교 시민 · 사회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공모 대상 프로그램은 통일, 환경, 인권, 여성, 사회개혁, 노동 분야의 실천 및 연구 조사 사업으로, 한 단체 당 1개 사업이 선정된다.

4월 7일부터 23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02-2011-1820) 및 이메일(yeokyung@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안내서 및 신청서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남동우 기자

원융종 주요기관장 인사 단행

중앙종회도 '새 얼굴로'

원융종(총무원장 법륜)은 3월 26일 주요 기관장 및 총무원 부장 인사를 단행했다.

원융종은 포교원장에 벽봉(진주 영광사), 포교원 부원장 명허(예천 연화사), 문화원장 혜관(서울 관음사), 교육원장 화담(광명 해암사), 규정원장 정관(이천 고불정사), 규정원 부원장 석경(양산 봉림사) 스님을 각각 새로 임명했다. 또 총무부장에 진허, 사회부장 체법, 사업부장 체도, 재무부장 대월, 전국비구니회 회장 대월 스님을 각각 선임했다. 인천교구 종무원장에는 법원, 경남교구 종무원장 은혜, 부산교구 종무원장 대천, 전남교구 종무원장 진운, 충남교구 종무원장 체두, 경북교구 종무원장 불선 스님이 임명됐다.


벽봉 스님


체의 스님

이와 함께 원융종은 이날 총무원 회의실에서 중앙종회를 열고 새 의장에 체의 스님(홍성 약수사)을 선출했다. 의원으로는 천호, 지관, 선덕, 대월, 보선, 체명, 체혜, 정관, 성묵, 체선, 체각, 풍원, 손운, 선수 스님이 각각 뽑혔다.

한편 원융종은 같은날 서울 구로동 원융사에서 창종 2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박봉영 기자

JTS, 북한라선시 탁아유치원 지원

JTS(대표 유수)가 "북한 라선시 당국과 탁아유치원 시설 개선 및 의약품 지원을 합의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JTS 김경희 해외지원사업부장은 "박지나 이사와 중국 활동가 2명이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북한 라선시를 방문해 탁아유치원 및 진료소 시설 개선과 의복, 의료기기, 의약품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라선시 당국자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함경북도 청진 지원계획은 직접 방문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성 명 서

귀의 삼보하옵고
불교TV가 올해로써 창사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부처님의 법음이 영상 매체를 통해 온 누리에 비추기 시작한 것도 내년이면 10년을 헤아리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날의 외환위기와 정부의 방송정책 혼선으로 불교TV가 겪은 각 가지의 고난과 시련을 잊을 수 없습니다.
100억원이 넘는 負債에다 사옥과 방송시설마저 압류당해 방송중단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암담했던 시기,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신 분은 바로 시청자들과 불자 여러분 그리고 제방의 스님들 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찌 그 공덕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두 손 모아 다시 한 번 절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방송의 질을 높이고 방송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해 여러분 앞에 한걸음 다가가는 방송,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방송, 나아가 정보시대에 불교 언론을 선도하는 앞서가는 방송이 되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계층에서 불교TV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소문을 퍼뜨리고 또 일부 교계신문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왜곡 보도해 불교TV와 불교TV를 아끼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교TV가 봉천동에 사옥을 짓는다면서 불자들을 속여 모연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해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봉천동 불교TV 사옥은 불교TV 사옥으로 건설되었고 그 건물 용도도 어디까지나 방송전용 건물입니다. 건축주가 방송전용 건물을 지어 불교TV에 제공하고 불교TV는 형편이 되는대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에 의해서 입니다.

그러나 최근 건축주가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건물전체를 일시불로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불교TV의 입장으로서는 9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마련할 수 없어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상사의 3,000불 모연금과 각종 후원금에 대한 의혹입니다. 이도 10원 한 장 헛되이 쓰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자 일부 교계신문에도 모연 동참자 전원의 명단과 함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교TV에 대한 계속적인 음해는 천신만고 끝에 정상을 되찾고 있는 불교TV에 대한 질시이거나 교계의 분열을 획책하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에 불교TV 임직원 일동은 불법을 빙자해서 불교TV를 음해하거나 불교계의 분열을 획책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부처님의 법등을 전하는 불사에 모두가 매진할 수 있도록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불기 2548년 3월 29일

불교TV 임직원 일동 합장

중진스님 초발심으로

직지사서 조계종 지도자과정 연수

복지 교육 등 주제로 위크숍·토론

"아이고! 스님 오셨습니까?"

"그동안 잘 계셨지요?"

3월 31일 경북 김천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설법전. 전국에서 모인 50여명의 스님들이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정답게 인사를 나눈다. 이들 스님들은 조계종 교육원에서 주최한 제3회 중진 지도자과정 연수에 참가한 승랍 25년차 이상 되는 교계 중진 스님들. 비슷한 시기에 출가를 했지만 전국에 흩어져 수행, 포교, 종무행정에 매진해왔기에 평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스님들은 오랜만에 만난 도반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승랍 25년 이상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1급 승가고시와 종덕 법계(비구니 스님은 현덕 법계)를 품수 받았고 계단위원, 법계위원, 호계위원, 본사 주지 등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교계 중진 중의 중진 스님이기 때문이다. 또한 종단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이 없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다. 이번 연수는 중진스님들의 승가 역량 강화와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해 '불교지도자의 사명과 자세', '불교상담', '세계의 흐름', '지도자론', '종헌과 국가법령의 이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임시 입승 소임을 맡은 무상 스님은 직접 교육 시간 10분마다 목탁을 내렸고 스님들은 마치 행자교육을 받는 사미승처럼 연수 규율을 지켰다. 강의시간에는 일일이 메모를 하는 등 진지한 모습이다.

4월 1일과 2일 저녁 예불 이후 열린 지도자 진단 워크숍과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토론 시간. 3개조로 나뉜 스님들은 저마다 속해있는 조에서 복지, 교육 등 불교계 제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연차별 승가연수도 모든 스님들이 참석하는 의무교육으로 체계화해야 된다는 등 승가 교육제도에 관한 조언도 많았다. 법명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이심전심, 강강술래 등 불교와 접목된 전통 놀이를 배우며 동심의 세계에 빠지기도 했다.

김천=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총선 선택기준 '종교'보다 '자질'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 145명 설문조사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종교성은 배제하고, 사찰 법회 등 불교행사가 정치행위에 이용되는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04 맑은 정치 불교연대'가 17대 총선을 맞아 중앙종회의원, 각 교구본사 소임자, 조계종 주요사찰 주지, 불교단체 대표 및 주요임원 등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 145명을 대상으로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불자 후보가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낙천낙선 대상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지지하지 않겠다(33.3%, 48명)'가 '고려 안함(12.5%, 18명)' '일체 고려 않겠다(5.6%, 8명)'보다 많아 후보 선택 시 종교성 배제를 보여줬다.

이 같은 결과는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 '자질과 성실성(52.5%, 74명)' '도덕성(23.4%, 33명)' '개혁성(15.6% 22명)' '종교적 배경(0.7%, 1명)'이라고 답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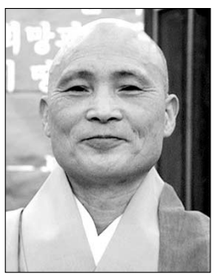
'사찰의 법회 등에서 불교계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 및 특정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자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22.2%, 32명)' '바람직 않음(41.4%, 60명)'이 '바람직하다(25.7%, 37명)' '매우 바람직(2.1%, 3명)'보다 높아 불교계의 정치행위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했다.

또 오피니언 리더들은 정치권의 정치개혁 노력에 대해 61.1%(88명)가 노력하지 않거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해 정치권 불신을 보여줬다. 정치개혁의 가장 큰 선결과제로는 '정치자금 투명화(31.7%, 복수선택)'를 꼽았다.

남동우 기자

화합 기반으로 발전 노력

인터뷰 범어사 주지 추천 대성 스님



禪문화 기반으로 대중 포교에 앞장

"문중 어른스님들과 문도들의 뜻을 받들어 화합 문중을 만드는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선찰대본산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월 2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열린 범어사 산중총회에서 범어사 신임 주지로 추천된 대성(현 범어사 주지 직무 대행) 스님은 '화합'을 강조하며 당선 소감을 피력했다.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 등 162명 성원으로 개최된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범어사 선결과제로 '화합'을 거듭 강조한 스님은 "3년만에 결론이 난 만큼 위계질서를 바로 잡아 지역과 교계 안팎의 염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성 스님은 "범어사가 새로워지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전제한 뒤 "21세기를 이끌어 갈 정신문화의 핵심인 선불교 문화를 기반으로 대중 포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부고속철 금정산 관통문제, 문화재 국고보조금 횡령사건, 성보박물관 효율적인 운영 등 범어사 현안에 대해서는 문도들의 뜻을 모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성 스님은 "선찰대본산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도들의 중의를 물어 총림 승격도 고려하겠다"며 "선의 중심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62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대성 스님은 1963년 용화사 법보선원 안거를 비롯, 10년 간 선원 수행한 이후 조계종 재심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스님은 1976년부터는 범어사 말사 김해 은하사 주지를 역임하며 지역 포교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범어사=천미희 기자

조계사, 인근 공사장서 항의집회

"교육관 기울고 균열"…원상복구 촉구

조계사(주지 지홍)는 인근 두산건설 위브 파빌리온(옛 삼양사 건물터) 지하 굴착 공사로 교육관 건물의 지반이 침하됨에 따라, 3월 31일 공사장 입구에서 스님과 신도 4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항의집회를 벌였다.

조계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두산건설의 공사로 교육관이 6cm 이상 기울었고, 외벽과 바닥 등에 새로 136곳의 대형균열이 생겨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관을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조계사는 또 "여러 차례 두산건설 측에 교육관 건물의 원상복구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책임을 회피, 조계사를 우롱하고 있다"며 "조계사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재)한국건설기술원에 의뢰해 받은 피해안전진단 결과대로 교육관을 복구하라"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10주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3월 3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법장 스님은 기념사에서 "장기기증, 헌혈운동, 치료비지원 등 본부가 벌여온 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건강한 사회운동으로 승화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고속철 천성산 관통 중단 촉구

초록국회만들기 네트워크

66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2004 총선환경연대'와 25개 지역 환경단체로 구성된 '초록국회만들기 네트워크'가 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관통 중단 등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3월 31일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제안으로 △새만금 갯벌의 해수유통과 전북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와 핵폐기장 추진 계획 중단 △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관통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후 노선 재검토 등을 꼽았다.

단체들은 대국민공동선언을 통해 "17대 국회는 생명을 존중하고 미래세대를 중시 여기는 정책을 만들어 내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4 총선환경연대에 불교계에선 불교환경연대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포함돼 있다. 남동우 기자

불교TV 주주총회 열어

법보신문 기자 부상

불교TV 주총서, 불기협 성명

불교TV(회장 성우)는 3월 30일 서울 봉천동 불교TV 1층 무상사 법당에서 제10기 불교TV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정관 일부변경의 건 △신임이사 선임의 건 △임원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됐다.

한상희 기자

3월 30일 불교TV 주주총회장 앞에서 법보신문(사장 각현)의 안문옥 기자가 출입을 제지한 불교TV 직원들에 의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 법보신문은 "강압적인 취재거부로 인해 벌어진 폭행"이라며 "관련자에 대해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불교TV는 4월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보신문 측이 취재거부의사를 무시한 채 주주들에게 신문을 배포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원우)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해 "언론기관에서 타 언론의 취재를 방해한 폭력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교TV는 공개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문책 하라"고 요구했다. 한상희 기자

목탁소리

멱살잡이 주주총회

3월 30일 불교TV 무상사에서 열린 제10기 불교TV 주주총회는 경영진 대 일부 주주, 주주 대 주주의 갈등으로 얼룩진 '아수라장'이었다. 이날 참석한 일부 주주들이 삼천불 모연금의 지출 내역, 봉천동 불교TV 사옥, 각종 후원금 및 수익금 등 불교TV 경영진의 회계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다. 결국 주주 몇 명이 서로 멱살을 잡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를 지켜보던 나머지 주주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하나 둘 참석장을 떠나 주총이 열린지 한 시간도 안돼 3분의 1이상이 자리를 비웠다.

디지털 방송시대에 접어든 지금, 교계의 조언과 관심을 모아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지만 불교TV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꺼질 줄 모른다. 불교TV 경영진은 끊임없이 지적되는 경영문제에 대해 "회계기법상의 차이에서 빚어진 오해"라며 "경영권을 둘러싼 불교TV 폄하"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불교TV는 모든 장부를 공개해서라도 경영의 투명성을 자신있게 증명해 더 이상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불교TV는 10년 전 많은 불자들의 원력과 정성을 모아 만든 한국불교 유일, 나아가 세계불교 유수의 영상포교매체다. 그렇기에 모든 불자들이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불교TV의 '여법한' 발전뿐이다.

한상희 기자

감 사 의 말 씀

佛敎 總指宗 宗領 修成 大宗師께서 總紀 33年(佛紀 2548年) 3月 29日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入寂하시어 3月 31日 경북대병원 발인식장에서 告訣式을 교계 관계자 및 내외 귀빈, 전국 스승님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總指宗 宗團葬으로 엄숙하게 봉행하였습니다.

公私多忙하심에도 불구하고 애도의 심정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해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황망한 喪中이므로 우선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紀 33年 4月

佛敎 總指宗 葬儀委員長 愚 勝 합장

■ 四十九齊 案內

종령 수성 대종사의 사십구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초재 4월 4일 (음력 2월 15일) 14시
2재 4월 11일 (음력 2월 22일) 14시
3재 4월 18일 (음력 2월 29일) 14시
4재 4월 25일 (음력 3월 7일) 14시
5재 5월 2일 (음력 3월 14일) 14시
6재 5월 9일 (음력 3월 21일) 14시
7재 5월 16일 (음력 3월 28일) 14시

● 각 사원별로 49재를 봉행함.
● 문의 : 불교총지종 통리원 전화 : 02)552-1080-3


재신 스님 운정 스님 송덕 스님 보현 스님 자심 스님 정원 스님 진원 스님 법조 스님 정휴 스님 묘련 스님 경해 스님 도운 스님
동원 스님 무성 스님 송담 스님 현암 스님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이끄는 스님들

강원 설립 '눈앞' … 강한 추진력 갖춰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송덕 스님을 위사한 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조직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3월 31일 울산 보덕사에서 열린 간담회. 사진=박봉영 기자

3기 회장단 출범 4개월 … 지역조직 틀 세우기 한창
회장 송덕 스님, '엄격한 선배'로 1천 회원 단결 견인

지난해 12월 송덕 스님이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1천여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을 하나로 규합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서 포교와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도 태고종 내에서는 제목소리 내기를 자제했던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태고종의 스님수는 7천여 명 정도다. 이중 6분의 1에 해당하는 1천여 명이 비구니 스님들이다. 수나 역할에 비해 비구니 스님들이 상대적인 소외를 받아왔다. 이에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은 친목모임 형태로 운영되던 연화비구니회를 모태로 1998년 10월 50여 스님이 모인 가운데 창립됐다. 태고종이 종단으로 정식 등록한 지 30여년이 지난 후의 일이다. 창립 후에도 지역조직을 갖추지 못하는 등 이렇다할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3대 회장 송덕 스님을 비롯한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지역의 비구니회가 결성되면서 전국비구니회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회관 건립 · 명부 작성 계획

전국비구니회 활성화에 목표를 둔 새 집행부의 의지는 결연하다. 비구니강원 설립, 전국비구니회관 건립, 전국 비구니명부 작성 등 새 집행부가 제시한 굵직굵직한 사업에서도 의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실제로 전국비구니회는 태고종 총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구니강원 설립에 힘을 보태 성사단계에 이르렀다. 비구니도량인 울산 보덕사에 마련되는 비구니강원은 4월 중순경 개강을 목표로 학인을 모집 중이다. 3월 31일에는 송덕 스님과 수석 부회장 보현 스님, 부회장 진법 스님 등 집행부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40여 스님들이 보덕사 강원시설을 둘러보는 등 개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 집행부는 출범 4개월만에 비구니강원 설립과 지역조직 결성 등을 이뤄내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강한 추진력을 보일 수 있었던 데에는 집행부를 맡고 있는 스님들이 보여준 탄탄한 활동이 큰 힘이 됐다는 평가다.

회장 송덕 스님(용인 관음사)은 용인 수지읍에 자리를 잡고 1980년 관음사를 창건, 25년 동안 포교에 매진해 왔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서는 '엄격한 선배'로 정평이 난 스님이다. 또 강한 추진력을 갖춰 전(前) 회장 운정 스님에 이어 비구니의 단결을 이끌어 낼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송덕 스님은 취임 후 화합에 최우선을 두고 비구니 위상 강화와 교육체계 확립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부회장단을 대표하는 수석 부회장 보현 스님(의왕 계명정사)은 집행부 구성을 비롯해 사업계획 마련 등을 주도한 실무형 전문가다. 평소 인의를 중요시하고 격의가 없어 회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태고종 경기남부교구 종무원에서도 실무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회장인 진법 스님(인천 법호암)과 자심 스님(파주 광법사)이 회장을 보좌하고 있다. 진법 스님은 인천교구 종무위원으로, 자심 스님은 경기북부교구 비구니들을 이끌어 전국비구니회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실질적인 전국비구니회 관련 종무행정과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부장 정원 스님(파주 상락원)은 지역모임 결성과 비구니명부 작성 등 조직 강화의 책임을 맡았다. 또한 전국비구니회관 건립불사의 책임도 맡고 있다. 교무부장 진원 스님(양평 송학사)은 비구니강원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경기북부교구 재무국장인 법조 스님(연천 능혜사)과 정휴 스님(서울 선이정사)은 감사를 맡고 있는데, 법조 스님은 연천 능혜사를 창건해 포교와 사회복지활동에 매진하는 등 지역에서의 활동이 활발하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지역모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책임자를 두고 있다.

서울의 묘련(약사암), 부산 현암(정수사), 강원 경해(해안사), 경기남부 성원(이천 무량사), 경기북부 도운(파주 영천사), 전남 무성(불광사), 전북 지명(군산 지장사), 충북 송담(진천 만성사) 스님 등이 지역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젊고 활동적인 스님들로 비구니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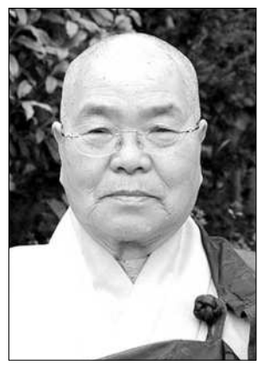
젊은 스님들 지역모임 주도

이 뿐만 아니라 전국비구니회의 전신인 연화비구니회를 이끌었던 재신 스님(서울 봉원사)과 제1,2대 회장을 지낸 운정 스님(영월 계룡사)이 전국비구니회 업무와 관련해 다양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한국의 비구니 스님 <11> 지원 스님

'정진 · 불사' 후학들에 귀감



"세상사 일체가 다 부처님 법인데, 무얼 따로 얘기할까? 있는 그대로 만족하면 아무것도 괴로울 게 없는 세상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옆으로 고즈넉이 자리잡은 부산 동래구 보림사. 그곳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인 지원(74 · 사진)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스님이 주석하는 보림사의 불사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스님은 지난 15년 동안,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종합 수행공간인 경주 금련사 불사에 전념해왔다. 경주 동국대 학인 비구니 스님들의 기숙사이자, 노스님들의 보임처가 되고 있는 금련사는 총 4천 평 규모로 문수동(기숙사), 보현동(노스님 보임처), 달마동(선방), 비로동(법당), 공양실 등을 갖추고 있다. 금련

경주에 비구니 수행도량
금련사 불사 15년 정성

사 건립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스님은 사재까지 털어 가며 후학들을 위한 도량 건립에 혼신을 기울여 지난해에 불사를 마쳤다.

15년에 걸쳐 금련사 불사를 마치고서야 비로소 보림사 대웅전 불사를 시작할 엄두를 낼 정도로 온 마음을 기울여왔으면서도 스님은 끝끝내 한 것이 없다고 손을 내젓는다.

33년 전 부산 비구니 금련회 창립의 기틀을 다지고 오랫동안 회장을 역임한 스님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비구니 스님들의 힘을 모아 나갔다. 금련회는 젊은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화엄회 결성의 모태가 되어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

지원 스님은 스님이었던 고모를 따라 자연스럽게 불연(佛緣)을 맺었고 출가로까지 이어졌다. 스님이 출가를 하면서 스님 집안에선 4대째 비구니 스님이 배출되었다. 스님은 동산 스님을 은사로 비구니계를 받았지만 고모이자 스승이었던 지성 스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결코 화내는 법이 없었고 모든 것을 포용했던 자애로운 스님으로 기억되는 지성 스님처럼 지원 스님 역시 싫고 좋음의 분별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찍 은사를 여의고 지원 스님을 스승처럼 모시고 있는 조카상좌 상화 스님은 "말씀은 별로 없으시지만 반듯하게 사시는 모습 자체가 많은 가르침을 준다"며 "허공에도 귀가 있고 눈이 있어 모든 게 인과법에 의해 돌아가니 자기 양심에 적합하게 살면 된다는 스님 말씀을 늘 경책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운문사 승가대학 1회 졸업생인 지원 스님은 "그때가 가장 좋았어. 임재응 스님을 강사로 모시고 와서 50여 명의 대중들과 함께 배웠는데 낮에는 풀 베고, 밤에는 산불 감시하느라 몸은 고달팠지만 가람수호하고 공부하는 즐거움에 힘든 줄 몰랐지"라며 예전의 학인 때를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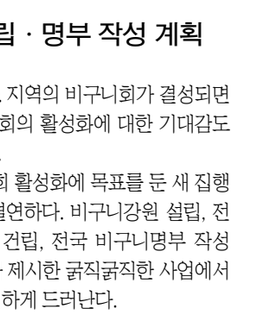
53년 전부터 지금까지 보림사에 머물며 새벽예불, 주력, 참선, 독경을 빠뜨리지 않으며 말로서 가르치기보다는 행(行)으로 사표가 되는 스님은 상좌들에겐 엄격한 스승이다.

"몸의 안일을 구하거나 명예를 위해 출가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 좀 더 부지런해야지. 속가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요즘 힘들다고 야단들이지만 더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좀 더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천미희 기자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챙기셨습니까?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십시요.

신제품 발매 개시
오가피!!
이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55-7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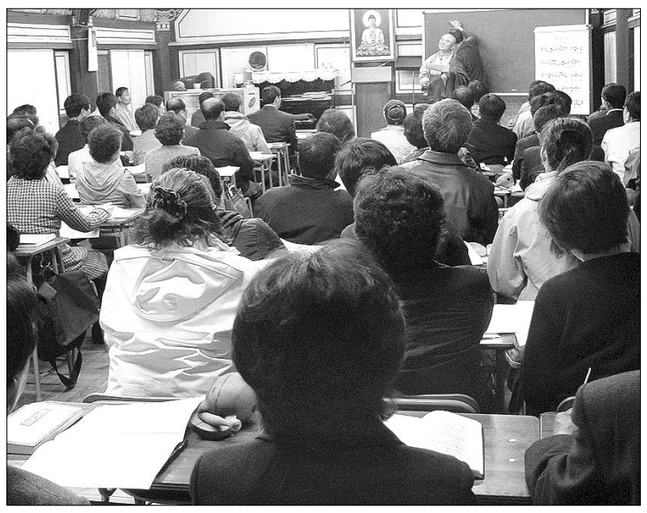
탈 종 공 고

◇사찰명 : 무상사	◇주소 : 경기 양평군 양동면 석곡1리 296번지	◇법명 : 무상스님(속명 : 이상윤)
◇사찰명 : 무량사	◇주소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법명 : 무량스님(속명 : 김명자)
◇사찰명 : 변원선원	◇주소 : 경기 양평군 양서면 대선리 59	◇법명 : 지우스님(속명 : 한창호)
◇사찰명 : 대국사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3번지	◇법명 : 월산스님(속명 : 안금자)
◇사찰명 : 약수암	◇주소 : 경기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법명 : 여래스님(속명 : 정성자)
◇사찰명 : 보명사	◇주소 : 서울 양천구 목4동 732-24호	◇법명 : 법천스님(속명 : 김진웅)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중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1일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은해사 불교교양대학 수요일 야간반, 포교국장 혜해 스님이 강의를 하고 있다.

은해사 불교교양대 배움 열기 가득

"영천시민 모두를 동문으로"

300명 정원에 500여명 몰려
산사체험 등 내면 성찰 기회 마련
수련원 건립, 1천 동문 배출 포부

경북 영천의 산중 고찰 은해사가 들썩거리고 있다.

매주 화, 수요일 열리고 있는 영천 은해사 불교교양대학이 영천시민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 영천시에서 일을 하려면 꼭 은해사 불교교양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속설이 있을 만큼 그 열기가 대단하다. 이런 움직임은 2월 28일 5기 불교교양대학 입학식에 확연히 드러났다. 정원 300명 모집에 500명의 신입생이 몰려온 것. 아직 모집 공지도 안 한 6기 신입생 모집에는 30명이 선신청을 했을 정도다.

은해사 불교교양대학의 수업이 열렸던 3월 31일, 저녁 7시. 어둑어둑한 산사에 하나 둘 씩 수강생이 들어와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조용한 산사의 강의실에는 삶의 지혜를 배우려는 이들의 열기로 후끈거린다.

은해사 불교교양대학의 인기 비결은 다름 아닌 혜해 스님의 열강. 한때 죽음에 직면할 만큼 중병을 앓았던 스님은 "다음 생이라도 수행을 통해 얻은 가르침을 많은 이들을 위해 회향 하겠다"는 간절한 기도 후 건강을 되찾았고 그 발원은 포교의 열정으로 영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주말 산사체험 프로그램. 철야로 이뤄지는 산사체험의 하이라이트는 밤 12시 이후 이어지는 야간 산행이다. 깜깜한 밤 숲을 걸으며 각자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공포와 두려움을 뛰어 넘어 자신을 성찰하는 값진 계기가 되고 있다.

6개월이 지나면 아내를, 남편을 또 동서를 데리고 와 온 가족이 동문이 돼 버리는 은해사 불교교양대학. 5기에는 영천시청에서 무려 30명의 직원이 수강 신청을 했는가하면 영천의 영화청년회 12명, 팔풍진 조기축구회 8명 등 소문을 듣고 단체로 등록한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면장, 이장, 부녀회장은 물론, 지역 일간지 기자, 학교장 등이 모두 등록을 했으니 영천시민 모두가 동문인 셈이다.

동문애로 똘똘 뭉친 졸업생들은 봉사활동도 열심이다. 은해사 교양대학 자원봉사단을 창단하여 영천 장애인 복지관 봉사활동을 하거나 독거노인을 위해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불법을 생활화하고 있다.

은해사는 300명 이상을 한꺼번에 수용할 만한 150평 규모의 수련원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대구 대성사, 경산 안흥사, 청송 대전사 등에서도 수강생을 모집 한 기수에 1천명에 달하는 대규모 동문들을 배출하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다.

영천=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천성산, 아름답죠?

지율 스님 직접 촬영 사진
부산·창원·대구 순회 전시


지율 스님이 부산역 광장에서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사진전을 개최했다.

천성산 고속철 관통을 반대하며 천성산 벌목 현장 포크레인 앞을 떠나지 않고 있는 지율 스님이 부산, 양산, 마산 일대에서 천성산의 사계를 담은 사진전을 열고 있다.

3월 31~4월 2일까지 고속철 개통에 따른 분위기로 들떠 있던 부산역 광장에서 사진전을 연 것을 비롯 4월 9·10일 창원 용지공원, 19~23일 광주, 5월초 대구 등 순회 사진전을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다.

'어찌 이곳을 흘뜨리려 합니까'라는 주제 아래 열리고 있는 이번 사진전에는 지율 스님이 천성산을 오르내리며 직접 촬영한 사진들로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지율 스님은 "고속철이 개통돼 초고속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그 편리를 누리는 댓가로 비싼 요금과 환승의 불편을 감내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빠름과 개발의 이름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곡리 벌목현장에서 공사 강행에 몸으로 맞서며 도롱뇽 소송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지율 스님은 수녀님들과 함께 자전거로 천성산 자락 달리기 행사를 여는 한편 '식목일 퍼포먼스' 4월 17일로 예정된 '도롱뇽 음악회' 등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도선사, 캄보디아 스님 수학 지원

소린 스님 20일 삭발식
"양국 불교 교량 역할 기대"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오른쪽)과 소린 스님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도선사(주지 혜자)가 국내 최초로 캄보디아 스님의 한국불교 수학을 지원한다.

이같은 지원은 지난해 12월 남방불교 체험차 캄보디아를 방문한 주지 혜자 스님이 왓 라지보 사원의 쁜셈 큰스님과 협의, 두 사찰간의 자매결연과 양국 스님의 상호방문, 캄보디아 스님의 한국 유학 등을 협약함으로써 이뤄졌다.

지난 3월 14일 한국불교 수학을 위해 입국한 캄보디아 왓 라지브 사원의 소린 스님(Hem Sorin · 25)은 20일 삭발식을 거행하고 혜자 스님으로부터 진성(眞性)이란 법명을 받았다. 소린 스님은 4월 6일부터 동국대 언어교육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일년간의 한국어과정을 이수, 내년에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입학해 한국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계획이다.

서투른 한국어로 "빨리 한국어를 익혀, 한국불교와 한국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힌 소린 스님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크라티에 출신으로 지난 1996년 출가, 씨엠립주의 왓 라지보 사원에서 공부하며 학생들에게 영어와 일본어를 가르친 수재이다.

혜자 스님은 "소린 스님이 한국불교에 관심이 많은 만큼, 한국불교를 제대로 공부해 한국불교와 캄보디아 불교 간의 교량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소린 스님이 졸업하고 귀국할 때까지 학비와 체류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선사는 이와 함께 내년 3월경 캄보디아 고승 쁜셈 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갖고, 캄보디아 불교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앙코르와트 성지순례팀을 통해 캄보디아 난민들에게 생활물품 등을 지원한다. **김은경 기자**

소림사 무술승려 부활한다

무술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소림사 무술승려가 부활한다. 중국 소림사가 위치한 허난성 덩펑시의 허홍보 부시장은 소림사 무술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무승단 구성계획을 밝혔다고 관영신화통신이 3월 31일 보도했다.

무승은 불경공부와 염불수행을 하는 일반승려와는 달리 소림 쿵푸만을 전문적으로 연마한다. 쿵푸는 공격적인 일반무술과는 달라서 수행과 참선을 통해 품행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무술을 통해 자기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덩펑시는 소림사 외의 시내와 관광지구 내에 각각 무술성, 무술원을 건립하고 관광객에게 소림사 무술을 알리는 공연을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 구체적인 무승단 규모와 운영계획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소림무술은 무술경전 708권, 권술과 기구를 이용한 수련방법 552종, 소림곤, 달마검 절기 등 무술체계가 방대하기로 유명하다. **한상희 기자**

부산 낙동복지관 5주년
프로그램 강화·재정자립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 부산 복지에 첫 발을 디딘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광수)이 3월 30일로 개관 5주년을 맞이했다.

낙동복지관은 이와함께 개관 5주년 기념행사를 4월 30일 오후 3시 국제신문 강당에서 기념 행사를 열 예정이다. 지역 주민, 후원자, 자원봉사자를 비롯 사회복지관련 관계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권영택 위덕대학교 불교대학원장의 '사회복지현장의 발전과제와 종교계의 참여방안'이라는 주제의 초청 강연도 연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 한편, 낙동복지관 발전에 기여한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단체 등에 대한 감사패 전달의 시간도 갖는다.

1999년 3월 30일 개관한 낙동복지관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 등의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기능교육 프로그램을 펼쳐왔다. 또 사회복지 지원사업에 공모, 방문간호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을 실시하며 강서구 지역의 종합 복지센터로 자리매김했다.

낙동복지관은 '자원관리의 전산화, 체계화' '프로그램 내실화 및 재정 자립' '지역사회 역량 강화'을 주요 지침으로 정하고 자원봉사자, 후원자 DB 구축, 후원자 배가운동, 타복지 기관과의 협력 사업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동화사 몽골성지순례
6월 3~7일 … 생필품 전달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신도회와 각급 신도단체가 주최가 되어 몽골성지순례를 떠난다.

6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되는 몽골성지순례는 간단사에서 한·몽·일 동북아 평화기원대법회를 갖고 몽골 대통령과 정계인사 교민들이 참석하는 만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동화사 측은 특히 몽골 어린이와 교민을 돕기위해 생필품 한 트럭분을 가져갈 계획이다.

몽골성지순례는 작년 8월 한-몽불교교류협의회를 창립하여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몽골선수 30명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몽골 간단사 스님의 한국방문에 대한 답례방문과 친선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성지순례를 계기로 몽골에서도 몽·한 불교교류협의회가 구성되어 양국간 불교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몽 불교교류협의회 총재 지성스님은 몽골스님 3~5명을 유학생으로 받아들일 계획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을 출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간단사, 에델바이스 군락지가 있는 바얀고비의 에르덴조사원, 샹카사원, 한빈사원, 만치르 일원을 방문하는 성지순례단의 접수는 5월 17일까지며, 몽골 어린이와 교민 돕기 생필품도 함께 접수받고 있다. (053)985-4404

배지선 기자

불국토, 복지시설 종사자 수계법회



사단법인 불국토(대표이사 정관)는 3월 27일 영주암 원통보전에서 개금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산하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수계식(사진)을 봉행했다.

신입사원과 관계자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수계식은 불국토 대표이사 정관 스님을 계사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수계법회에 앞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혜총 스님은 불국토 전 사원을 대상으로 예불문, 삼귀의, 오계 등 사찰습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문과 함께 불국토 전 사원을 대상으로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계사 정관 스님은 "계(戒)를 받음은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니 오늘 수계를 받은 직원들은 부처님의 마음과 같이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회복지사업과 청소년문화사업, 불교포교사업 등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법문 했다.

천미희 기자

개구리소년 합동 영결식

실종 11년 6개월만에 대구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로 발견된 '성서 개구리소년' 5명의 합동영결식이 3월 26일 경북대 병원 영안실에서 동화사 스님들의 집전에 따라 불교의식으로 치러졌다.

유족과 각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과, 포교국장 혜경 스님 동화사 승가대학 학인스님 20 여명이 참가했고, 동화사 신도와 포교사단에서 동참해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배지선 기자**

우·리·절·은·불·자·여·러·분·을·사·랑·합·니·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생전예수재법회 I

칠재	날짜	요일	특별법회 / 행사내역	장 소
입재	2.29	일	입재법요식	우리절
초재	3.07	일	윤달삼사순례	보문사
이재	3.14	일	주장자법회	우리절
삼재	3.21	일	태화산산신제	우리절
사재	3.28	일	점안법요식	우리절
오재	4.04	일	서옹큰스님사리친견법회	백양사
육재	4.11	일	관정법요·경전봉정식	우리절
막재	4.18	일	수의점안·봉송법요식	우리절

제6재 관정법회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동봉스님의 사언절 <<지장보살본원경>>을 봉정한 뒤 나눠드립니다. 이 <<본원경>>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지장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필요한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판매용일 경우라면 권당 30,000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만 무료로 보시합니다.
막재에서는 윤2월을 보내면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 효도선물이 될 금강경탑다라니 명주판을 점안하여 보급합니다.
명주탑다라니는 2장 1세트에 24,000원입니다.

생전예수재법회 II

우리절에서는 오는 4월 18일(음력 윤2월 그믐날) 생전예수재 회향 때에 맞춰 불자님들께서 미리 장만해 두었던 수의를 가져오시면 거룩하고 장엄하게 점안을 해 드립니다. 역법상 몇백년만에 한 번 올까말까 한 중요한 윤2월에 부처님 앞에서 수의를 점안하였다가 입혀드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점안동참비는 무료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우바새들 신행바람 "기대하세요"

수원 용주사 3월27일 거사회 창립
전회원 포교사 자격 취득 원력 세워
테마 · 탐방법회, 청소년 포교도 전개



수원 용주사 거사회가 지난 3월 27일 용주사 효행문화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거사불교의 활성화'를 다짐하고 있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 거사회가 생겼다.

수원 용주사는 3월 27일 용주사 효행문화관에서 거사회 창립법회를 열고 거사불자의 신행활성화에 나섰다. 40대 남성 신도 30여 명이 의기투합을 했고,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 기획국장 원오 스님도 거사회 고문과 상임지도법사로 참여해 뜻을 합쳤다.

거사회는 특히 운영방식으로 승 · 재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초창기 조직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원오 스님을 거사회 운영위원장으로 추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오는 10월에 정기총회를 거쳐 회장단을 출범시킨다. 거사회 운영의 핵심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다.

거사회 윤원근 운영위원은 이날 창립법회에서 "사오정, 오륙도 등으로 대변되는 거사들이 여성신도들이 대다수였던 사찰에 '유쾌한 신행바람'을 일으키려고 뜻을 모았다"며 "거사회 출범으로 모든 신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신행문화를 만들겠다"고 야심에 찬 포부를 밝혔다.

거사회 운영위원장 원오 스님도 "그동안 교구본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사회가 없어 거사들의 신행활동이 위축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거사회가 청년회와 학생회를 연계하는 조직으로서 많은 역할을 맡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거사회는 창립이후 매주 토요일에 정기법회를 봉행, 왕성한 신행활동의 전개한다. 또 '전 회원의 포교사 자격 취득' 운동도 벌인다. 포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열악한 수원 지역 청소년 · 청장년층 포교에 앞장 설 계획이다.

거사회는 이와 함께 야무진 정기법회를 마련해 회원들의 다양한 신행욕구를 만족시킬 방침이다. 매주 한 차례씩 열리는 법회는 참선과 참회, 요가, 산행 등 '테마' 중심의 법회로 이끈다.

산행법회의 경우, 거사회는 전국 108곳 사찰을 찾아 떠나는 '탐방법회'를 열어 한국전통불교문화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법륜종 생전예수재 봉행

법륜종(총무원장 창법)은 3월 24일 논산 지장암에서 '예수시왕생칠재 및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법륜종 소속 전국 1백여 사찰에서 스님 1백여명, 불자 1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총무원장 창법 스님은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생전예수재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라며 "나보다 가족을, 가족보다 이웃을 먼저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때 삶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나주 미륵사 탱화봉안법회
대웅전 중창등 옛 사세 갖춰

나주 미륵사(주지 원일)는 3월 30일 삼성각에서 탱화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백양사 주지 두백스님을 비롯 지역 사암스님들과 신도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탱화 점안의식에 이어진 법회에서 주지 원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미륵사는 예로부터 나주 민초의 정신적 고향으로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펼쳐 옛 사세를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륵사는 10여년전부터 대웅전, 설법전, 관음전, 삼성각을 복원하고 이날 탱화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이준엽 기자**

백제불교회관 3주년 법회

대전 백제불교회관(관장 장곡)이 '개관 3주년 기념법회'를 3월 27일 회관 법당에서 봉행했다.

포교원장 도영 스님과 대전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현광 스님, 백제불교단체협의회 곽무영 회장 등 200여명의 사대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장곡 스님은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지상6층, 지하1층의 회관을 신축하는 등 지역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백제불교회관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영동 영국사 대웅전 보수

충북 영동군 양산면에 소재한 영국사의 대웅전이 해체 보수된다.

영동군은 현재 안쪽으로 기울어지고 기둥의 부식상태가 심각한 영국사 대웅전을 완전 해체한 뒤 보수공사를 실시해 내년 연말에 완공키로 최근 결정했다.

통일신라시대 진평왕 30년(608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국사 대웅전은 부식상태는 물론 기와가 많이 퇴락해 보수가 불가피한 상태.

영국사에는 3층 석탑(보물 제533호), 원각국사비(보물 제534호), 영국사 부도(보물 제527호), 원구형 부도, 석종형 부도 등 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남아 있는 사찰이다. **한명우 기자**

일초스님 · 정성길씨
인천시 무형문화재 지정





인천시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강화도 청련사의 삼장탱 등을 유형문화재로, 부평 자원사 주지 일초(사진 왼쪽) 스님과 정성길(47 · 사진 오른쪽)씨를 각각 인천수륙재의 기예능보유자와 단청장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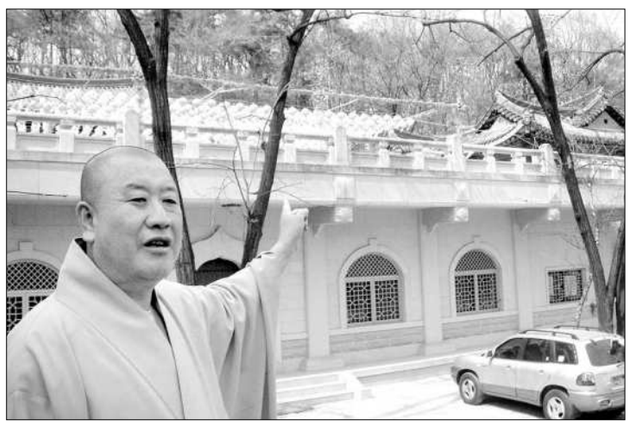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유물은 원통암 감로왕탱, 강화도 전등사 명부전의 지장시왕상(28점)과 시왕도, 전등사 약사전의 석불좌상, 연수구 흥륜사의 대장일람집 권 제7~8과 자치통감강목 제 23 상권 등이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일초 스님은 1967년부터 1980년까지 법주사 등에서 전통 천도재의식을 배우고, 1980년부터 6년 동안은 인천 해광사 등에서 수륙 천도재를 배웠다.

단청장으로 지정된 정씨도 18세에 통도사를 찾아 당시 최고의 단청장으로 꼽히던 혜각 스님 문하에 들어가 단청을 배운 뒤 전국 500여 곳의 사찰 단청작업을 했다. **김주일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서울 경국사



경국사 부주지 종근 스님이 지난해 완공된 천불전 종합 신행공간을 가리키며, 그 위에 지어질 법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명우 기자

성북구 수행 · 포교 1번지로 우뚝

천불전 중창 최고 관음성지 도약
생태교실 · 문화역사 기행 등 진행

경국사는 지금 변신 중.

서울 삼각산 남쪽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7백년 역사의 경국사. 성북구에 소재한 200여 사찰 가운데 포교 1번지로 불리는 경국사가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는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천불전 중창불사가 자리잡고 있다.

경국사는 전각만도 20여 개나 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찰. 7백년 역사가 말해주듯 전통가람의 면모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고, 10여 년 전부터는 시대 흐름에 맞춰 포교와 신행도량으로 거듭나면서, 지금은 그 위치를 확고히 다져놓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공 · 나옹 · 무학 · 태고보우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스님들이 이곳에서 수행과 교화에 힘썼으며, 지금은 한국불교 교학을 대표하는 지관 스님이 주지를 맡아 그 뜻을 잇고 있으니 경국사의 위상을 짐작할 만하다.

경국사가 천불전 중창불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역사성을 잇기 위해서다. 주변이 국립공원과 녹지대 등으로 묶여 있어 신행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신도들의 수행과 신행에 많은 제약이 뒤따랐고, 삼각산 제일의 관음성지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불자들과 서울 시민의 기도처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도량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천불전은 법당과 수행 및 신행공간으로 나뉜다. 현재 불사가 끝난 수행공간은 시민선원으로 사용될 관음전을 비롯해 회의실, 종무소, 다도실, 신도회 · 거사림회 · 합창단 · 중고등학생회 · 어린이법회 공간이 들어서 있다. 종합신행공간인 셈이다. 법당에는 중앙에 삼존불을 모시고 그 뒤에 수인이 각각 다른 7여래불과 32관세음보살을 비롯해 1천불을 봉안할 계획이다.

"법당 불사까지 마무리되면 경국사는 명실상부한 관음성지로 장엄되고 기도도량으로서의 사격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도들과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국사의 주인은 바로 신도들과 불자들이니까요."

주지 지관 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의 뜻을 받들어 불사를 주도하고 있는 부주지 종근 스님의 말이다.

관음기도법회, 참회기도법회 등 10여 개의 정기법회를 비롯해 모두 20여 개의 법회가 열리고, 생태교실과 문화역사기행 등 각종 문화교실이 진행되는 경국사. 하루도 쉴 틈 없이 바삐 움직이는 경국사와 종근 스님은 지금 천불전 중창불사를 통해 신행요람이자 최고의 관음성지를 꿈꾸고 있다. **한명우 기자**

33년 전통의 웅변 · 연설 · 설법의 도장

설법대학 제2기 학인모집

33년간 웅변, 연설, 설법, 대중스피치, 화술교육을 통하여 불국정토 구현과 대중화술 보급에 앞장서 온 대한불교웅변인협회에서는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다양한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교법인 광명설법대학을 설립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자님 및 일반인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불교웅변인협회 회장 · 종교법인 광명설법대학 학장 **표자원** 합장

모집기간 및 개강일

◇모집기간 : **2004년 3월 12일 ~ 4월 12일**
◇개 강 : **2004년 4월 15일(목) 오후 2시**
◇강의일시 : **매주(목) 오후 2시 ~ 4시**

모집대상

◇포교사 자격 희망자
◇설법을 요하는 스님
◇화술 스피치를 요하는 일반인 및 지도자
◇서예, 동양화, 사군자, 취미 및 전공 희망자
◇학원 설립 및 강사 희망자
◇대학진학 특기 장학생 희망자

제출서류

◇입학원서 (본 대학 소정양식 1통)
◇증명사진 3매

전국 웅변대회 개최

제34회 부처님 오신날 기념 웅변대회
◇ 일시 : 2548년 5월 16일 오후 1시

교 수 진

불교교리
◇표자원 스님
대한불교웅변인 협회회장.
광명사 주지, 서대문구 사암연합회회장.
◇무진장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제2대 불교웅변인 협회회장.
◇표도철 스님
초대불교 웅변인 협회회장.

설법, 웅변, 연설, 화술
◇이종래
대한웅변인협회 전 회장, 국사원 원장.
◇손은봉
MSA스피치 아카데미 원장.
대통령상 수상(웅변부문)

성우, 방송
◇김계원 KBS 성우

서예, 동양화, 사군자
◇지촌허룡
단원전통 한국문인화, 한국미술,
현대미술,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매창 안영자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 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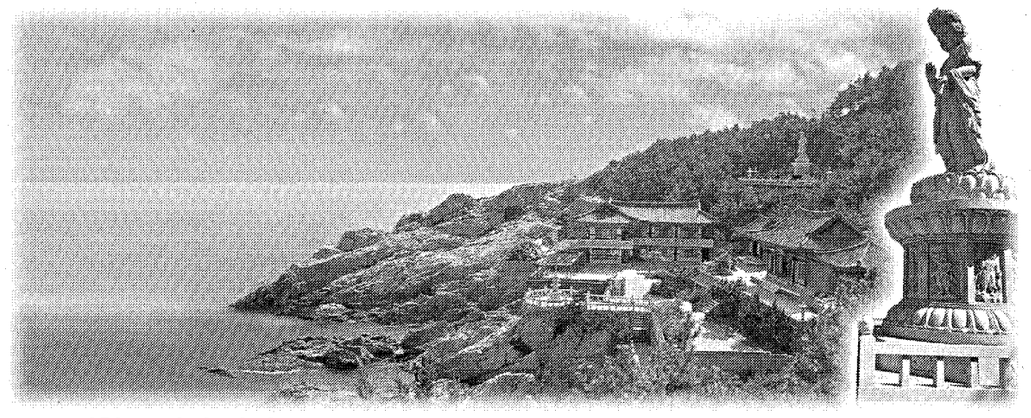
건강의식
◇김기원
진주산업대 새생명광명회 대표.
◇이치란
세계불교도(WFB.WFBY)한국본부
사무총장, 해동불교대학 사무총장.
국제포교사
◇김삼경 박사
자연의학 연구가, 스리랑카 벨라나
국립대학 명예교수.

광명설법대학 전화 : 02)732-5509. 736-1895. 735-1896 팩스 : 02)723-4350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44-498 광 명 사 (3호선 무학재역 3번출구)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HAE DONG YONG KUNG TEMPLE
전화: 051) 722-7744,7755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통도사 가사불사 현장

한땀 한땀 바느질에 부처님 법 새깁니다



3월 29일, 봄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는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 영산전 앞.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법당 안을 기웃거린다. 법당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사람들의 눈길을 따라 들어선 법당 안 풍경에 잠시 어리둥절해진다. 부처님을 뒤로 하고 여섯 대의 재봉틀이 드르륵 드르륵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곳곳에 펼쳐진 다림판 앞에선 다림질이 한창이다.

한쪽에선 노보살들이 돋보기를 끼고 천을 겹겹으로 접어 촘촘한 홈질로 갈색 끈을 만들고 있다. 다른 쪽에선 작은 망치까지 동원해 매듭 만들기에 한창이다. 흡사 공장을 옮겨놓은 듯한 영산전 안의 풍경은 통도사 가사불사 현장. 사찰에서 직접 가사 만드는 일이 드물어진 요즘,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모습이다.

매일 30여명 25일간 '가사만들기' 삼매

영산전 편액 아래 '가사당'이라는 임시 편액을 걸고 도편수(가사 만드는 일의 총책임자) 보성 스님의 지휘 아래 가사불사를 본격 시작한 것이 3월 22일이니 꼭 일주일이 흘렀다.

매일 30~40명의 불자들이 '가사 만들기' 삼매에 빠져있다. 25일 동안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진행되는 가사 불사가 계속된다.

일주일이 지난 이날 완성된 가사는 9조 가사 단 한 벌. 여러 벌의 가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데다 가사 만드는 공정이 워낙 복잡하고 치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불사에는 처음 동참하는 불자들이 태반이다 보니, 보성 스님의 일은 끝이 없다.

"다림질 방향이 틀렸네요!" "폭과 폭을 이을 때 오른쪽 폭인지, 왼쪽 폭인지 주의해서 살피세요." "잘못 연결됐으니 다시 해야 합니다." 이리 저리 오가며 지시를 하는 스님을 눈으로 쫓아다니기도 바쁘다.

"이안에서 하루 백 리를 걷습니다. 전체 공정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차질없이 진행을 시킬 수 있으니 한시라도 방심할 틈이 없지요."

1979년 도편수였던 법장 스님(부산 용주사 주석)의 부편수(도편수를 보조하는 소임)로 가사 만들기를 시작한 스님의 머릿속엔 가사 만드는 공정이 훤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방 실수가 생긴다. 조 재단 - 조엽 다림질 - 합복(두 폭 이어 붙이기) - 가사 테두리(난 돌리기) - 사천왕 넣기(가사 네 모서리에 사각 모양의 천 넣기) -

공정 복잡, 일주일에 9조가사 한벌

단추 달기(매듭 달기) 등의 과정마다 거쳐야 하는 손길이 1백 번을 넘으니 9조 가사 한 벌을 한사람이 만들려면 꼬박 사흘이 걸린다.

가사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분소의 조각을 연결해 입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식에 맞는 의복이라는 뜻으로 '여법의(如法衣)' '응법의(應法衣)'라고도 한다. 부처님 당시는 가사만으로 몸을 가리기 때문에 옷(衣)이라 하였으나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서는 날씨가 추워 가사 속에 장삼을 입기 때문에 장삼은 '입는다'고 하고 가사는 '드리운다(수한다)'고 표현한다.

가사의 종류는 조(중앙선에 해당되는 주폭, 가장 자리 변폭, 샛장을 이어 붙인 조각)의 수에 따라 5조, 7조, 9조 등 홀수로 25조까지 있다. 극락세계의 아홉가지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상품(上品) 상생(上生)을 상징하는 25조의 경우는 부처님만 수할 수 있다.

또한 5조는 안타회 혹은 속가사라 하여 행보를 할 때 수한다. 7조는 울다라회라 하여 사미들이 수했으며 승가리는 9조 이상으로 비구가 수계식이나 법회 때 혹은 귀한 손님을 만날 때 수한다.

이처럼 가사는 의식복인 동시에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해줄 때 상징적인 증표로 여길 만큼 신성한 것이다. 자운 스님이 도편수를 맡았던 당시에는 스님들만 가사불사에 동참할 수 있었으며 가사당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었을 정도로 가사 불사는 수행의 한 방편이었다. 그러나 대량의 가사가 필요하게 되면서 절에서 가사 만드는 전통이 차츰 사라지고 승복점에서 만드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나마 통도사, 송광사, 조계사 등 규모 큰 도량에서만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자운 스님에게 가사 만드는 법을 이어받은 법장 스님에 와서는 불자들이 가사불사에 동참하는 게 보편화됐다.

80년대 당시에는 가사 불사에서 바느질 세 땀만 해도 공덕이 크다 해서 동참하려는 불자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요즘엔 시주는 해도 몸으로 봉사하려는 이들은 줄어들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루종일 가사당에 앉아 아픈 허리를 곧추 세우며 바느질을 하고 있는 보살들이 새삼 귀한 이유는 그 때문이다.

정성과 인내…수행의 한 방편

"내 정성이 들어간 가사를 수한 스님이 꼭 득도하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힘든 줄을 모르겠다"는 무상화(56) 보살은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가사 불사에 동참하고 있다. 통도사 쿠샨티 봉사단 회원인 김현애(34) 씨와 김지혜(44) 씨는 "작은 부분이지만 나의 손길이 닿아 가사가 완성된다는 보람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다문화(75) 보살과 심일정(66) 보살 또한 "정성과 인내로 공덕을 지을 수 있으니 기도와 다르지 않다"며 연신 실밥을 뜯고, 바느질을 하며 환하게 웃었다. 가사당 앞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던 정윤정(34) 씨는 "스님들이 수한 모습만 보다가, 직접 만드는 것을 보니 신기하다"며 바늘에 실을 꿰는 일을 돕기도 했다. "바늘에 실을 꿸 때 절대 침을 묻혀선 안 된다" "입으로 실을 끊어도 안 된다"는 노보살의 주의가 가사에 대한 외경심을 일깨웠다.

가사 짓는 스님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성 스님은 불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몸의 고단함을 잊는다. 간혹 배우겠다는 스님이 나서긴 해도 워낙 복잡한 공정인데다 가사 만드는 일과 수행을 둘로 구분짓는 마음 때문에 금방 그만둬 버려 맥이 끊길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보성 스님은 "가사가 돈만 주면 사 입을 수 있는 상품이 되어버린 것이 가장 안타깝다"며 "법을 상징하는 가사가 위의(威儀)를 되찾을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도사 가사당에서는 3천 마의 천이 5조, 7조, 9조, 11조 네 종류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만들어진 가사는 4월 18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회향식을 마친 뒤 제방의 큰스님들과 통도사 본사 및 말사 스님들에게 공양 올려지게 된다. **글=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다림질.


합복(폭 붙이기).


합복을 한 후 잘 붙여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가사에 다는 매듭 만들기.





觀音聖地 休休庵

破 億劫 沈默 海中智慧 觀世音菩薩 現身 道場

억겁의 침묵을 깨고 바다에 나투신 관세음보살님 계신 곳



부처님 꽃이 연꽃인데 2003년 6월 부터 부처님 주변에 회사하게 피어있다. 연꽃 바위가 관음보살 발밑에 피어있는 모습.

모든 번뇌 쉬면 몸도 마음도 편안
경내 전체가 연화세계…
청정한 귀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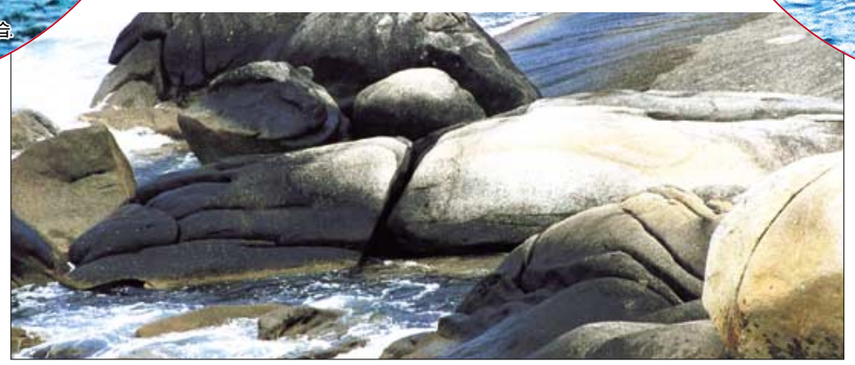


관음보살 이마 밑에 연잎바위, 연봉이 피어있다. 크기가 성인 7~8명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모양이다.

푸른 동해바다위에 쉬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 상주도량 휴휴암(休休庵). 영동고속도로 현남톨게이트를 나와 속초 · 양양 방향으로 5분정도 달리다 보면 눈앞에 펼쳐진 시원한 바다와 기암괴석의 놀라운 절경 속에 자연과 정말 잘 어우러진 한 도량을 접하게 된다. 강원도 양양군 광진리 1번지에 위치한 이 도량은 수행승의 정진으로 일구어진 사찰이다. 그래서 경내에 들어서면 마음의 고향에서 느껴볼 수 있는 아늑함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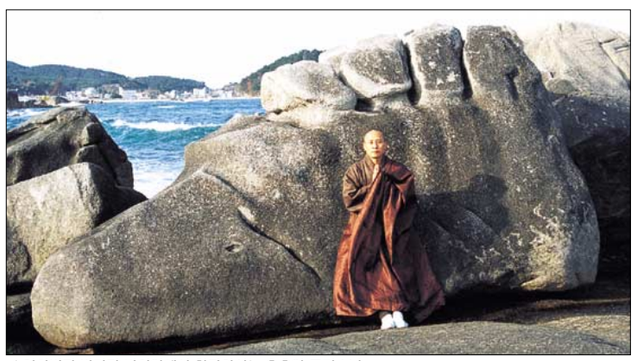
휴휴암(休休庵)은 이름 그대로 쉬고 또 쉰다는 뜻의 기도 정진 도량이다. 즉, 팔만사천 번뇌를 모두 놓고 쉬라는 뜻이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법당이름은 묘적전(妙寂展)인데 그렇게도 쉬어져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면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원하는 일들이 묘하게 이루어지라는 뜻이다. 절을 지을 때부터 이처럼 예사롭지 않은 서원이 서려 있어서인지 불사가 진행되는 동안 묘한 일들이 휴휴암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5년 전 관세음보살님이 누워계신 채 휴휴암 앞바다에 나투신 것이다. 마치 9년 전 휴휴암이 창건되기 전부터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쉬고 계신 것처럼 망망대해 앞에 머물러 계신 것이다. 근래 해중관세음보살님 주위로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관음기도처로 수 많은 불자들의 참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불상은 이마에 두건(화관)을 쓰셨고, 가슴에는 감로수 병을(호리병) 들고 계시는 형상을 하신 바위불상으로 자연의 부처님이시다. 또한 묘하게도 불상의 길이가 묘적전 법당의 길이와 같고, 묘적전에 모신 관음보살님의 몸매를 매우 닮아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마치 누군가 이 불상을 조성한 듯 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신비하다. 불상 발밑 좌대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처럼 놓여 있으며, 더욱 특이한 것은 관음보살님 이마 및 다리부분에 2003년 6월부터 연꽃, 연잎, 연밥 형상을 한 바위가 피어나기 시작했으며, 크기도 성인 약 7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모양을 하고 있다. 연꽃은 그 아름다운 자태와 은은한 향기, 고아한 품격, 그리고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청정한 꽃을 피우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이다. 즉 연꽃은 우리에게 탐진치 가득한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청정한 불성을 꽃피울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연꽃이 불상 주위에 피어 났으니 그 신묘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의 작품도 아닌 자연적으로 피어난 연꽃밭에 누워 쉬고 계시는 모습은 마치 이곳이 연화세계가 아니가 착각이 들 정도여서 수 많은 불자님들의 또 다른 귀의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 9면으로 이어짐



◇휴휴암 해중지혜 관세음보살 손바닥바위, 손등바위.

본래 관세음보살은 보타 낙가산에
백의 관세음보살로 계시는데
이곳이 바로 그 성지가 아닐까!



◇연화법당 발가락 바위앞에서 합장하시는 휴휴암 주지스님.



◇휴휴암 해중지혜 관세음보살 발바닥 바위.



거북이로 화현한 듯 거북남순동자가 관세음보살님 이마를 향하여 업드려 있다



◇휴휴암 묘적전에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다.

관세음보살 현신 신묘장구대다라니 백만독 천일철야 기도중

☞ 8면에서 계속

휴휴암 사부대중은 요즘 신묘장구대다라니 100만독(讀) 천일철야정진기도를 매일같이 드리고 있다. 한 대중은 "휴휴암 주지스님은 30여년간을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을 드리고 있으며 또한 천일동안 백만독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라며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 기도 원찰로서 자랑을 서슴치 않는다. 주지스님이 오랜기간 대비주기도를 드리게 된 동기는 특이하다. 과거 오랜 겁 전에 관세음보살님이 정광왕 여래 부처님으로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 법문을 들으시고 초지보살에서 팔지보살로 껑충뛰어 올라 지혜로운 보살님이 되시기 시작한 내용을 알고 부터 자신도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주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지 휴휴암 앞바다에 관세음보살님이 현신한 것이 아닐까!

근래에는 탁트인 동해 절경속의 방생 명소로 휴휴암은 전국에 널리 알려 졌다. 바다 연화법당에서는 방생하러 오는 신도들로 인해 매일 용왕기도와 방생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찾아오는 불자들과 휴휴암 대중들은 "일반인들은 잡고, 먹는것에 기쁨을 느끼지만 저희는 잡힌 것을 풀어주고 베푸는 것으로 기쁨을 느낀다며 모든 중생들이 자비심을 가질 수 있게 방생하고 있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공덕을 기린다. 이 덕에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한 어민은 "방생을 하러 오신 신도님들이 크고 작은 어류를 놓아주는 덕에 많은 위안이 됩니다. "

연화법당 방생·용왕기도 이어져

라며 휴휴암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지역 어촌계 지역주민들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잡혀있는 생명을 놓아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홍법스님은 "방생하는 것은 곧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연마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한 자손들도 수명이 장수하기를 바란다면 죽어가는 생명들을 놓아주는 자비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방생의 공덕을 강조한다. 잡혀 실의에 빠져 있는 생명을 모두 거두어다 놓아 줄때 헤엄쳐 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드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 할 수 없다는 스님의 자비로운 마음은 동해바다를 넘어 온 우주에 퍼질 것이다.

휴휴암은 이름처럼 쉬면서 볼만한 명소들이 아기자기하게 펼쳐져 있다. 달마 바위, 거북 바위, 새끼거북 바위 , 여의주 바위, 손바닥 바위, 손가락 바위, 발바닥 바위, 발가락 바위, 중바위, 바위동굴, 탁 트인 동해바다의 절경 등이다. 특히 휴휴암에서 바다와 바위들을 바라보노라면 해중관세음보살님께 거북 남순동자가 기도드리러 가는 모습이 비추어 진다. 마치 거북가족이 불법을 배우러 가는 듯한 느낌에 사로 잡혀, 이 곳이 부처님세계 구도의 도량이 아닌가 하는 환희심이 저절로 일어난다.

동해안 기도성지로써 중생의 업보, 세속의 번뇌 망상을 쉬는 곳 휴휴암. 절은 사람들을 쉬게 하는 곳이다. 탐욕으로부터, 성냄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들을 쉬게 하는 것이다.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휴휴암, 관세음보살의 큰 원력으로 쉼터를 찾게 될 것이다.



◇부처님오신날 많은 불자들이 연화법당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며 기도 드리고 있다.



◇전국 각처의 불자들이 휴휴암 연화법당에서 새해 해맞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휴휴암에서는 신묘장구대다라니 100만독(讀) 천일철야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불자님들께서는 문의바랍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억겁의 침묵을 깨고 만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해중지혜관세음보살님께서 푸른 동해바다위에 현신하셔서 많은 불자님들이 참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만해도 감격스럽고 가슴이 뭉클한 모습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몸을 나투신 것은 기도정진으로 불국정토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이에 휴휴암에서는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일철야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고 있사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무루 동참 하시어 해중지혜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하신 위신력으로 일체의 모든 마장과 재난이 소멸되어 사업 성취는 물론 가정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백일기도비 : 30,000원
- 천일기도비 : 100,000원
- 초파일 일년연등 : 10만원
- 하루등 : 3만원

우체국 : 200675-02-015135 (예금주: 신승섭)

농 협 : 331025-52-047221 (예금주: 신승섭)

* 갑신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 연등공양 기도 법회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휴휴암은 몸도 마음도 모두 놓고 쉬고 쉬라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도 쉬고 계시는 관음성지에 종이 없어 아침저녁으로 종소리를 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종을 조성하여 종소리를 울리면 업장도 소멸하고 자손들의 앞길도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휴휴암 **관음범종불사**에 동참 이름 새기실 분은 휴휴암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하나의 관음성지 신비한도량 **휴 휴 암** 주지 홍법 사부대중 합장



◈현남 요금소에서 양양 · 속초방향으로 5분거리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033)671-0093,0095** (종무소)

※서울 · 경기 · 대전 · 대구 · 울산 · 부산 · 광주지역에서 개인적으로 오실분들은 정기운행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휴휴암으로 문의주십시오.

禪 보고 듣고 취해보자

■ 선문화 예술제’(4월 4~10일, 대구 대덕문화전당 · 대덕아트홀)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불교전통음악인 ‘동해소리와 춤’ 시연 모습.



범주 스님의 달마도(사진 위)와 대성 스님의 서예작품 ‘선다일여’.



선(禪)을 주제로 한 대규모 문화예술행사가 열린다.

대구광역시 봉축위원회는 4월 4일부터 10일까지 대구 대덕문화전당 공연장 및 대덕아트홀에서 제 1회 선문화예술제를 연다. 행사는 크게 선화(禪畵)와 서예 및 목공예 전시, 전통 불교소리 공연, 선법문 등으로 나뉜다.

이번 예술제는 선화가인 범주 속리산 달마선원장 스님과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의 ‘선과 달마도’를 주제로 한

선법문 선화 목공예 전시 등
범주스님, 박찬수씨 퍼포먼스

퍼포먼스로 시작된다. 대형 한지 위에 범주 스님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붓끝이 춤추는 대로 천변만화하며 요동치는 달마도 퍼포먼스를, 박찬수 관장은 목불상을 즉석에서 시연한다.

우선 전시장에 들어가면 범주 스님이 즐겨 그리는 소재인 달마 대사와 포대 화상, 한산과 습득, 관음보살이 눈에 띈다. 달마도는 짙은 눈썹 밑에 동그랗게 도드라져 열린 눈망울이 꼭 다문 입술과 대비를 이루면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밖에 중생들에게 나눠줄 복이 담긴 포대를 들쳐 메고 다녔다는 포대 화상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툭 튀어나온 배와 함께 해학을 느끼게 해준다. 또 산속의 추운 동굴에서 살았다는 시인 한산과 절에서 청소하며 살았다는 습득이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있는 모습도 늘 차별짓기를 좋아하는 속세인들에게 통쾌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신현철 씨의 도예 작품.

서예, 연꽃도자기 선정신 표현
춤 그림 음악 어우러진 한마당

그 옆에는 대성 스님(범어사 주지 대행)의 서예 작품도 나란히 벽에 걸린다. 스님은 주로 선과 차를 주제로 쓴 ‘선다(禪茶)’와 ‘선다일여(禪茶一如)’ 등 선관련 경구 20여점을 내놓는다. 박찬수(중요무형문화재 제 108호) 씨의 목조각 불상과 불감, 동자상 등 목공예 작품도 전시된다. 연꽃을 주제로 한 도예작품도 선보인다. 도예가 신현철 씨가 제작한 다완과 향로, 찻잔 등 30여점 등이다. 특히 신현철 씨의 도예작품은 옛 선자들의 정신과 선 문화를 그릇에 담아 단순한 도자기가 아닌 하나의 정신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술행사에 흥을 돋워주는 소리와 춤이 빠진다면 맥이 빠질 것이다. 전시회가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선문화에 다가서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면 종산 스님의 동해소리 공연은 눈과 귀를 함께 충족시켜 준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지 모르는 동해소리와 춤은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져 오는 불교 전통의 음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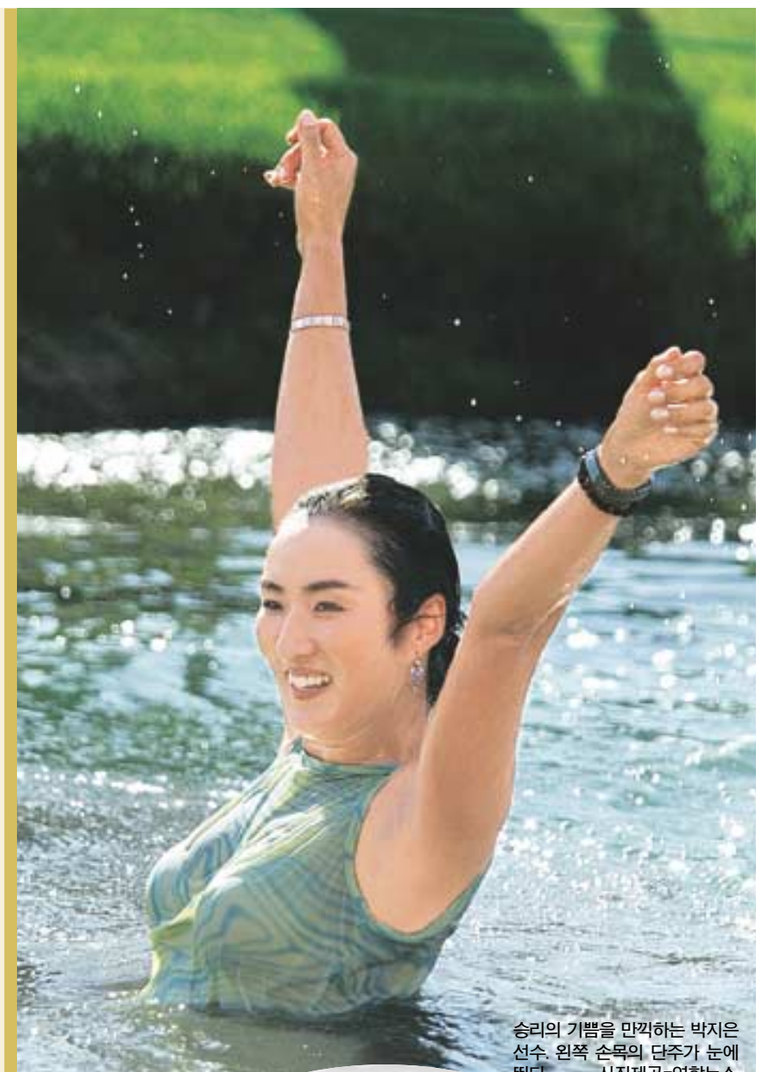
소리의 내용은 주로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의미를 지니며, 춤사위는 자연(自然)의 형상을 따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춤은 오방무부터 시작해서 한풀이, 연꽃춤, 바라춤, 북춤, 회심곡, 극락무, 용선무 순으로 끝난다. 이번 공연에서 소리는 종산 스님이, 춤은 박수진 전승기 이소망 씨가, 북은 성덕화 씨가 각각 담당한다. 이외에도 향림사 조실 대원 스님의 선을 주제로 한 법문도 열린다.

행사를 기획한 범주 스님은 “인간성 회복의 최선의 방법은 선사상에 있지만 현대인들이 선수행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것은 물질문명 속에서 욕망이 억제된 복잡한 감정적 상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스님은 “춤, 음악, 그림 등의 동적인 명상을 통해 마음자리를 비우고 풀어지게 한 후 정적인 수행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선을 좀 더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한다. (053)421-1115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의 동자상.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박지은 선수. 왼쪽 손목의 단주가 눈에 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굿샷’ 단주는 빛났다

박지은 미 메이저 골프대회 우승
‘승부근성 약하다’ 불심으로 이겨내

“아 유 레디?(준비 됐습니까?)” 풍덩!

3월 29일(한국시간), 미 LPGA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온십 우승자인 박지은 선수(25 · 나이키골프)는 전통에 따라 캐디와 함께 18번홀 옆 연못으로 뛰어들었다. 승리의 기쁨과 함께 양팔을 번쩍 치켜든 박 선수의 왼쪽 손목에는 단주가 빛나고 있었다.

항상 손목에 단주를 착용하는 박 선수는 미국 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세리, 강수연 선수 등과 함께 대표적인 불자 골퍼로 잘 알려져 있다.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가 신심 있는 불자다. 특히 아버지 박수남(삼원가든 회장 · 삼호물산 회장) 씨는 박 선수에게 처음 골프를 권유했으며 지금도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박 선수의 이번 우승은 여러 가지로 특별하다. 그의 첫 메이저대회 등극인 동시에 박세리 선수에 이어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 메이저 챔피언으로 탄생하게 됐다. 박 선수는 특히 이번 경기를 위해 ‘승부근성이 약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고자 골프코스를 떠올리며 꾸준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골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이 박 선수의 최종 목표이자 꿈이다. 훗날 명예의 전당에서도 그의 단주가 아름답게 빛나길 기대해 본다.

한상희 기자

http://kumdeung.com
황 금 연 등
금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황금빛 찬란한
황금 연등으로 온 누리를 밝히소서
KD 금등사 대리점 모집 · 구매상담 031) 846-1950. 011-774-1452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몽골, 바이칼호수 8일(몽골 대초원과 러시아 바이칼호수) ▶출발일 : 6월 7일
▶일 정 : 인천-울란바타르-이르쿠츠크-시베리아-바이칼호수-울란바타르-테를지-인천
파키스탄, 실크로드 탐방 18일 ▶출발일 : 6월 21일
불상의 탄생지 파키스탄의 간다라유적과 카라코함하이웨이르 따라 파미르고원(총령)를 넘어 실크로드로-세계최장수 마을 훈자-쿠차 천불동 등 비경을 찾아 탐방하는 일정
▶일 정 : 인천-라호르-탁실라-페샤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카슈카르-쿠차-우루무치-돈황-서안-인천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출발 가능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하제일 황산-항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항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보제사,낙가산 등-상해) 79만원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5일 (성도-낙산대불-아미산-아미산 정상의 금정,만년사 등-성도) 85만원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6일 (조주선사의 백림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오대산, 운강석굴 등) 95만원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출발일 : 4월 22일 149만원
▶일 정 : 인천-양곤-바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양곤(쉐다곤대탑,까바에파고다-진신사리친견)-인천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4월 22일
▶일 정 : 콜롬보-아누라다푸라-수령2500년보리수,고대불교유적-폴론나루와 불교유적-시기리야 고대왕궁-담불라동굴사원-캔디의 불치사(부처님치사리) *밀림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숲의 나라 최고급 호텔,식사 등
틱벳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 4월 20일, 6월 6일
실크로드의 수많은 경험으로 특색있는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티벳일주 11일(티벳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투만두까지) ▶일 정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투만두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 6월 4일, 7월 6일 , 9월 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

2004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세계가 주목"

5월 1~2일 중앙승가대서 국내외 학자 174명 11개 분과 발표 · 토론

2004 한국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종범 스님 · 이하 결집대회)의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됐다.

결집대회 조직위원장 해주 스님은, 5월 1~2일 이틀간 김포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개최되는 결집대회는 11개 분과에서 174명의 국내 · 외 불교학자들이 참가해 논문(표 참조)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11개 분과는 한국불교의 사상 · 역사와 일본 불교, 중국불교, 인도 철학, 대승 이전 · 이후, 응용불교, 비교종교 등으로 나뉘어, 불교와 관련된 주제 전반을 다룬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40여명의 외국학자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점이다. 찰스 뮬러(토요가쿠엔대), 폴 반덴 브룩크(겐트대 교수), 간노 히로시(창가대학), 주칭즈(북경대) 교수 등 외국 석학은 각자의 불교학 전공분야와 관련해 논문을 발표한다. 이 가운데 폴 반덴 브룩크 교수는 '공해(空海)의 저서를 통해서 본 한국 승려들', 미토모 켄요(입정대) 교수는 '신라 의적과 천태교학'을 발표, 한국불교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발표자(소속)	주제
제1분과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	한국불교의 신앙전통
최성렬(조선대 교수)	한국 사찰의 대웅전 주련 분석
전중배(회당학회)	당대 한중불교교류: 중국 서안의 법문사를 중심으로
세준 스님(원광대 박사과정)	가람배치에 수용된 풍수사상에 관한 연구
김태훈(원광대 박사과정)	한국지장신행 사찰현황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후쿠시 지닌(일본 입정대 교수)	일본 법상종 원효 인용장소에 보여지는 약간의 문제점
사토 아츠시(일본 동양대 강사)	고려 균여 〈일승법계도원통기〉에서의 일승론의 의미
기츠카와 토모아키(일본 동양대 강사)	원측 사상을 둘러싼 제문제
요시무라 마꼬토(일본 구택대 강사)	원측의 삼전법륜설의 해석에 대하여
은정희(서울교대 교수)	원효의 〈이장의〉연구
류승주(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원효 사상의 법문 체계
정원용(동국대 박사과정)	원효의 역동적 화쟁사상
김성철(동국대 교수)	〈판비량론〉에서 보이는 원효와 규기 논쟁
김도공(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원효의 화쟁론과 장자의 제물론 비교
양은용(원광대 교수)	명혜의 원효 · 의상관
제2분과	
석길암(의상만해연구원)	길장의 삼론교학이 원효에게 미친 영향
박서연(의상만해연구원)	의상 수십전법의 특징과 그 전승에 관한 고찰
정영근(서울산업대 교수)	〈대승기신론동이약집〉의 불교사상
전종식(대승기신론연구회 회장)	〈대승기신론〉에 대한 원효주석의 비판적 연구
박상국(국립문화재연구소 실장)	신라백지묵서화엄경에 나타난 측천무후자 연구
미토모 켄요(일본 입정대 교수)	신라 의적과 천태교학
바바 히사유키(원광대 박사과정)	고려대장경의 부수와 권수에 대하여
요코우치 히로토 (일본 동대사도서관 연구원)	원정기 일본의 불교와 외교: 중원입송의 역사적 의의
김천학(일본 센슈대 강사)	〈화엄종립교의〉의 연구
이연숙 (일본 국제불교학대학원대 박사과정)	명혜의 보살계관
하정용(송광사 성보박물관 연구원)	〈삼국유사〉의 성립과정에 대하여
유정엽(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유석질의론〉 찬자 고찰
윤기엽(연세대 박사)	고려인과 관련된 원 대도사원
승원 스님(중앙승가대 강사)	지눌의 정혜결사와 삼문수업
고영섭(동국대 교수)	태고의 자심학
황인규(동국대 강사)	세조대의 삼화상 신미와 묘각왕사 수미
제3분과	
박영기(성균관대)	퇴계의 벽이단론과 보우선사
김방룡 (보조사상연구원 선임연구원)	편양 언기의 선사상 연구
이희재(광주대 교수)	조선 중종대 왕실의 불교의례
김상영(중앙승가대 교수)	〈산중일기〉의 불교 자료적 가치
이철헌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임진왜란에 있어 사명당 유정의 활약과 그 배경
김경집(회당학회)	조선시대 진언집의 간행과 그 신앙
덕산 스님(불교군단사 연구소)	90년대 조계종단 사태를 통해서 본 한국불교의 미래
허일범(진각대학 교수)	한국 밀교의 법류 연구
찰스 뮬러(일본 토요가쿠엔대 교수)	선불교와 서구의 학풍
폴 반덴 브룩크(벨기에 겐트대 교수)	공해(홍법대사 774-835)의 저서를 통해서 본 한국 승려들
안나카 나후미(일본 입정대 교수)	근대 조선에서 일련종의 종교 활동
다츠구찌 교코(일본 용곡대 강사)	참롱에서 사승의 역할
리양 씨아오홍(일본 남산대 교수)	근세 일본 선종의 중요자료 구쌍지 〈선림구집〉 연구
미노와 켄료(일본 애지학원대 교수)	중세 최승강에 보이는 논의
우에지마 스스무(일본 경도부립대)	일본 고대에서의 종을 둘러싸고
마에가와 켄이치 (일본 동경대 COE 상임연구원)	명혜의 화엄조사관
제4분과	
최연식(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금장론〉에 대하여
원필성(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승조의 〈부진공론〉 해제에 대한 일고: 감산덕청을 중심으로
박상준(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적벽부에 나타난 물불천관 연구
박상수(동국대 강사)	승랑의 사제설에 대한 진실(II)
오인 스님(일본 경도불교대학원)	오대적멸보궁 성립의 중국적 기원
모로 시게키(일본 화원대 교수)	청변의 비량을 둘러싼 제사의 해석
야마구치 히로에(일본 구택대)	〈유마경문소〉와 〈유마경약소〉
간노 히로시 (일본 창가대학국제불교학 연구소장)	〈법화경안락행의〉의 첫 게송에 보이는 혜사의 법화경관
마키타 타이료(일본 지향사학원장)	안세고역 〈분별선악소기경〉과 S.20단간에 대하여
박화문(대구대 교수)	실유불성의 의미
지혜경(연세대 박사과정)	천태지의의 십승관법의 재고찰
최은영(고려대 강사)	천태지의의 사교에 관한 고찰
지창규(동국대 교수)	천태삼대교판서의 교판론
이병욱(고려대 강사)	담연의 천태사상: 십불이문을 중심으로
김은희(동국대 강사)	형계 담연의 정토관
최동순(천태사상연구소 소장)	송대 천태종의 동향
제5분과	
권탄준(금강대 교수)	〈화엄경〉에 나타난 삼매사상
명담 스님(동국대 박사수료)	법장의 법성융통에 대한 고찰
쉬 따티엔(일본 도쿄대 박사과정)	종밀 이후의 화엄종 재고
박건주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능가선과 화엄종
요시다 다케시(일본 화원대 강사)	혜인원에 전개된 화엄학
정엄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징관이 신십현문을 채택한 이유
해주 스님(동국대 교수)	〈화엄경〉의 수행체계
정순일(원광대 교수)	화엄교학에 있어서 염과 정
원경 스님(송광사강원 학감)	만선동귀적 입장에서 본 법화일승사상과 그 행법
서인범(동국대 교수)	명대의 승녹사와 승관제
김호귀(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길장의 금강경 분과에 대한 고찰
장메이란(중국 북경청화대학 강사)	송대 선종 언어와 송대 한어 연구
주칭즈(중국 북경대 교수)	수나라 급다 역 〈금강경〉의 성질 및 그 연구가치
린밍위(일본 동경전기대 강사)	신지종의의 자은종 논변
홍씨우핑(중국 남경대 교수)	중국불교의 특징
쑨이핑(중국 남경대 교수)	계율의 작용과 그 현대적 의의
제6분과	
정운 스님(동국대 박사수료)	〈유마경〉의 수행체계 및 선사상연구(2)
김진무(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도신선사의 선사상과 그 의의
해운 스님(중앙승가대 강사)	중국 영명연수 선사의 선교일치
원공 스님(동국대 강사)	설봉선과 운문선의 비교고찰
운산 스님(동국대 박사수료)	〈서장〉에 나타난 삼교회통사상
김호성(동국대 교수)	'독송용 천수경'에 대한 언어적 재해석과 그 적용
종석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불공삼장과 문수신앙
장익(위덕대 교수)	일체지지의 관법화
치바 타다시(일본 구택대 박사수료)	진언밀교에서의 선종관
요시다 히로아키(일본 대정대 교수)	비교 사상과 공해 교학
영랑 스님(파계사)	선의 견성 과정에 있어서 묵언의 의미
김진태(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	〈육조단경〉의 불성사상
송인성(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돈황본 〈육조단경〉의 몇 가지 허사(1)
씽동펑(일본 애원대 교수)	중국 선종의 지방성: 호적의 선종사 연구와 관련하여
진홍 스님(대만 중국문화대 박사)	달마의 선정과 반야심경 강설 소고
첸지동(일본 무사시노대 강사)	〈선문일송〉 제본 재고
제7분과	
김치온(회당학회)	금 · 태 양부대법의 전개에 대하여
김영덕(위덕대 교수)	삼종실지의궤에 관한 연구
혜정 정사(회당학회 회장)	법계만다라의 구성에 대한 소고
김현도(한국밀교연구소 연구원)	밀교의 삼밀관
김현남(원광대 강사)	일행아사리의 천문사상 연구
백도수(경전연구소 상임연구원)	근(Indriya)에 대한 연구
정준영(경전연구소 상임연구원)	초기불교의 상수멸정(想受滅定)에 대한 연구
정승석(동국대 교수)	고전요가의 부수적 좌법
일중 스님(인도 델리대 박사과정)	〈입출식념경〉에 나타난 초기불교의 호흡관 수행법
배상환(동국대 강사)	〈아비담마하상가하〉에 나타난 인식의 요소들
임승택(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남방 상좌부의 'Cetasika(심소)'에 대한 일고찰
김재성(경전연구소 소장)	상좌부와 유부의 수행론 비교: 염처를 중심으로
이자랑(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오견주장자에 대한 불교 승단의 입장(2)
원과 스님(동국대 박사과정)	12연기의 행(sankhara)에 대한 연구
선오 스님(동국대 박사과정)	연기와 업설의 관계에 관한 고찰
이종철(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식전변에 관한 안혜와 호법의 해석 차이
제8분과	
경성 스님(중앙승가대 강사)	〈청정도론〉과 〈해탈도론〉의 두타행 비교
이태승(위덕대 교수)	〈입중론〉에 나타나는 사구불생의 해석상의 특징
정성준(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보신불(sambhoga-kaya) 사상의 전개에 대한 일고
차상엽(동국대 박사수료)	〈보리도차제론〉에 나타난 유가행 소고
이거룡(동국대 BK21 연구교수)	불교는 왜 인도에서 사라졌는가
시다 타이시(일본 동경대 박사과정)	니야야 학파에서의 진지의 논리
무라이시 에쇼(일본 무사시노대 교수)	메타불교로서의 대승
황순일(동국대 강사)	초기 경전에서 불환과 두 가지 열반 이론
조준호(동국대 강사)	과연 석가모니 붓다는 수정주의를 버렸는가
정인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부처님의 직제자 사리불에 대하여
다카하시 다카히데(일본 입정대 교수)	사카 쿠산시대 마투라의 종교사정에 관한 고찰
모치즈키 카이에(일본 신연산대 교수)	감포빠의 〈람림 · 타르겐〉에 인용된 〈보리도등론〉
스즈키 켄타(일본 동경대 박사과정)	〈현관장엄론광명〉에서의 Haribhadra의 〈팔천송반야경〉
이평래(충남대 교수)	열반과 여래장
나카자와 코유(일본 입정대 교수)	굽타기 마투라의 불교에 대하여
오카야마 하지메(일본 동경대 교수)	대승불교에 있어서의 타자의 발견
제9분과	
성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석존교화법의 일고찰
원혜영(연세대 박사과정)	대진동(mahabhumicalo)
목정배(서울불교대학원대 총장)	불교의 평화론
박경준(동국대 교수)	불교의 청소년문화론
능화 스님(중앙대 강사)	불교무용 나비춤의 예술적 가치
남궁선(동국대 박사수료)	생태위기 시대의 불살생관
문을식(서울산업대 강사)	불교의 폭력관
이재수(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초목성불론과 불교생태학
이병인(국립 밀양대 교수)	사찰환경의 종합적 관리방안
진월 스님(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	선불교 수행생활의 생태학적 의의
박우용(세계불교개발연구원 원장)	응용불교의 경영에 관한 연구
김영두(원광대 교수)	제3사상으로서의 중도론
황수경(동국대 강사)	〈금강경〉의 실천적 해석
박지숙(동국대 박사수료)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선사상의 원리 적용
법현 스님(동방불교대 교수)	12부경을 활용한 불교교육 시론
김응철(중앙승가대 교수)	신도교육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조사 연구
제10분과	
홍선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21세기 포교의 전망과 과제
보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불교가 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박영희(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한국불교 호스피스의 현황과 과제
송위지(서울보건대 교수)	한국 불교의 장례의식
노권용(원광대 교수)	기신론 일심삼대사상의 종교적 의미
김용표(동국대 교수)	불교의 순교관
조현춘(경북대 교수)	영어다운 영어 금강경/ 한글다운 한글 금강경(1)
프로가 랑카 스라만 (방글라데시 BLUWS대 교수)	불교에서 행복관
곽상훈(동국대 박사수료)	마라와 사탄의 비교 고찰
허혜정(서울여대 강사)	불교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맹아득안가〉연구
이중표(전남대 교수)	불교의 인과율
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	상즉상입의 불교사회학
안승준(동국대 박사)	불교수행에 대한 대체의학적 조망
노기보(원광대 박사과정)	불교의 업설과 기독교의 원죄론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최훈동(서울대 의대 초빙교수)	불교의 무아사상에 대한 신경정신의학적 고찰
제11분과	
마츠무라 히사시(일본 대처여자대)	〈보살선계경〉의 원어에 대하여
가와노 사토시(일본 황학관대 교수)	동진시대의 불가의 혼관
츠노다 레이코 (일본 모차노미즈대 대학원)	청택만지에 있어서의 자력문과 타력문
최일범(성균관대 교수)	〈주역선해〉 연구
최인숙(동국대 교수)	현상학과 유식학에서 자기의식
카칸 바루아(방글라데시 치타공대)	인도에서 불교전파의 역사
플리스 안드르제이 (폴란드 아지엘로니안대)	서구세계에서의 불교
조승미(동국대 박사수료)	대승경전 여성담론의 분석
유흔우(동국대 교수)	사사무애의 논리와 성리학의 천인합일
쉬원칸(중국 한어대사전출판사)	중앙아시아의 불교 언어에 대해
사재동(충남대 명예교수)	〈삼국유사〉의 불교문화학적 고찰
김상일(동국대 교수)	조선조 문인사대부의 불교인식과 그 문학
유호선(고려대 강사)	서포 김만중의 불교관 고찰
김종진(동국대 강사)	동화축전의 〈권왕가〉 연구
황금순(홍익대 석사)	낙산이대성설화 재고
이승희(홍익대 박사과정)	위태천 신앙의 수용과 변천

※기사넘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쉽니다.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운명적 영혼적 현상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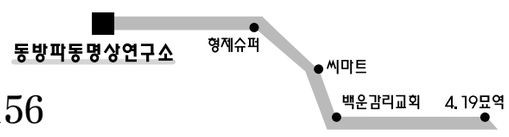
최영식 지음 | 인화출판사 값 9,500원

저자 법운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암매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활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 현재 저자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있다 』

(다수의 영통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 서울 연구소 약도



강북구 수유동
☎ 02)996-6156

「파동명상 요법」을 수련하게 되면...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자 또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의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운명을 읽어낸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본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말을 듣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직접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시대***이다. 현생의 삶은 자신의 전생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속에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볼 수만 있다면 미래의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해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파동명상요법을 통하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운명적 사건과 영혼적 사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 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4월 둘째주, 넷째주 (화 ~ 금) ◈ **강의장소 :** 서울, 부산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피,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수련과정으로 4일간 수련으로 수려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전문반을 수료한 자로서 본원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지도자 자격증 수여함.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Fax : 051)817-6157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경면주사
(수비경면)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예수재 영산재 49재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영인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간 055-882-3455
사 016-428-6665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귀 휴양할분

- 공기맑고 물 좋은 산간벽지
- 경북 八公山 북쪽 명당길지
- 향토 온돌방 1인 1실
- 불사에 도움주실분 환영
- 공양주 급구(보수 50만원)

부처골 지장암
054)383-8553

참선스님 보세요

정진중에
- 위장장애, 관절장애
- 수마(잠, 졸음)
- 몸이 냉하고 어혈
-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 기혈이 많이 막힌

] 있으신 스님] 스님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11-9715-6071 사리자
02)878-2515 (초의환)
P.S. 전문가가 만든 선식도 있습니다

천도재 구병시식 태중아기영가 49재 천도 전문도량

(9월경 제 2회 예정)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 中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치 질

- 재발 잘 되는 치질
- 한방 비법으로 완전치유
- 오래된 치질이나 암치질 특히 효염
- ※ 스님들께서는 특별 보시함

▷팔공산천룡정사
017-533-1356
053-986-1355

범음범패, 전통의식, 각종행사 해 드림

점안식, 상주권공,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나비춤, 사물다루는 법, 화청, 모든 재의식 경전, 민속, 역학 등 염불 배우실 학인 모집 중
대광명사 탄우 합장
02)939-3327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 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헌책을 보시 받습니다

서원에 비치하고 해외 동포와 세계인에게 한글 보급이 목적
高麗 本行會
우 621-801
金海市 進永邑 內龍里350番地
錦屛山 王冠城 長樂書院
055)345-113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신심이 돈독한 보살님
(45~55세)
▷경기도 광주
011-742-8890

토굴 작은암자 외딴촌집

(경남지역)
보시해 주실분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011-9416-2261

통영시 사량면 사찰 불사 동참할 인연을 찾습니다
인수도 가능함 상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하십시요
017-229-865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고양시
011-9349-0408

부전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7-260-3310

깊은산에서 천일기도하실 스님모십니다(비구)

011-696-8500

남자 행자모집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동해사
033)672-2900

비구입니다 부전스님을 필요로 하시는 사찰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1-580-84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포항 자장암
011-576-2737
054)285-0129

절터 시주 하실분 또는 스님과 평생 시주하실분 몇명을 모십니다

010-9226-5350

사찰에서 일하실 기사님 구합니다

55세~60세사이
처사님 1종 면허
▷경기도 양주
031)871-0101

기도스님 모십니다

▷경남양산
055)385-4111

공양주,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828-3618

종무원 구함

▷유명기도처
▷숙식가능한 남,여
▷급료 50만원 이상
▷기도, 염불스님 모심
▷八公山갓바위 약사암
총무
011-537-5012

모 집

부전스님 1분, 처사 1분
법당화주보살 1분
매점(기념품)보살 1분
공양주 1분
▷나이 : 30~50세
054)383-8032

종무소직원을 구합니다

▷숙식제공
▷천안아산부근은출퇴근가능함
▷컴퓨터와운전에능숙한분
▷월일백만원
▷25~50세까지가능함
041)567-2841

보살행을 함께 할 사람을 찾습니다
1.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혼자사시는 보살님
2. 정법수행으로 신심이 돈독하고
3. 나머지 인생을 보살행 원력을 가지고 계신분
4. 본인(소암)의 공무원 연금과 양평의 조그만 농장과 내가 가진 모든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분
011)9458-4024

조용한 암자에서 수행기도 하시면서 운전할 비구스님이나 처사님을 모십니다

(운전면허 소지)
041)864-9143
011-392-6885

포교비젼있음 가족처럼 함께 지낼 수 있는 부전(비구)자리 구합니다

019-556-6047

탈종공고

- 사찰명: 약선암 ●주지: 대원심
- 주소: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1653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함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백양사 ●주지: 보덕(시필천)
- 주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156-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함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웅천사 ●주지: 도명
- 주소: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산 35번지

위 사찰은 일신상의 개인적인 사유로 귀종단에서 탈종함을 공고함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스님찾음

- 허영림(속명)
- 나이: 53세 정도 ●모친: 성기마
- 고양초등학교를 이모집에서 다녔음
- 외국으로 간다고 말한적 있음 모친이 꼭 만나고 싶어하니 연락바람

02)385-8206

대구,부산권 염불해 드립니다

011-9596-4338
무유스님

易學秘法 전수

구성학. 매화역수. 육임등의 핵심 비법만 모아서 숫자로만 간편하게 년운, 월운, 일운은 물론 래방객의 처해진 상황, 온 목적, 占事등을 정확하게 통변할 수 있는 역학비법을 전수합니다.
(출장지도 가능함)
02) 6081-8475 , 019 - 446 - 4755

불교대학 분원설치 및 자격취득 안내

어린이 포교원, 불교 문화원, 불음국악 연주회(포교단) 설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학 인가된 분원 캠퍼스 설치

▶방직자 과정 – 원사, 원무 자격
▶포교사 과정 –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연주포교사, 장례관리포교사
▶법사 과정 – 상담법사, 신앙상담사, 상담지도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 국악지도법사

만대교학대학원 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2004 역학 컨설팅 교육생 모집

★ 모집과정 : 수시모집 ★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 역 학 : 초 · 중급 – 남륜스님
★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SBS 인생역전,KBS뉴스투데이, EBS 아름다운도전출연, 굿데이 인연법 연재)
★ 관상학 (특강)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인생역전 김재덕 운세 상담 060-605-0914

사주책임완성

■ 수강대상 스님에 한함
전통 명리학 1:1 단기완성
(될때까지 책임지도)
■ 051)757-8879 / 011-9342-9794

목당易학연구원

睦堂 運命

작궁순통
(개인지도) 명합세변
☎ 969-3169 (청량리 우체국)

운세(1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실력테스트 해보세요
www.speedunse@dreamwiz.com
핸드폰, 카드 결제됩니다

유료노인전문요양원 '호암마을' 입소안내

치매 · 중풍 어르신을 가족처럼 모셔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천사 주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 서성운
Tel.02)385-8205 / Fax.02)385-8207

성수철학원 (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역 구전비법 개인지도 학

■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 한문 실력 없이도 완성
■ 영을 가지고도 잘 되지 않는 분 지도스님: 무경스님
■ 02)857-1208, 031)582-4007, 016-850-1208

하루만 배워도 눈이 확 트인다

사주 개인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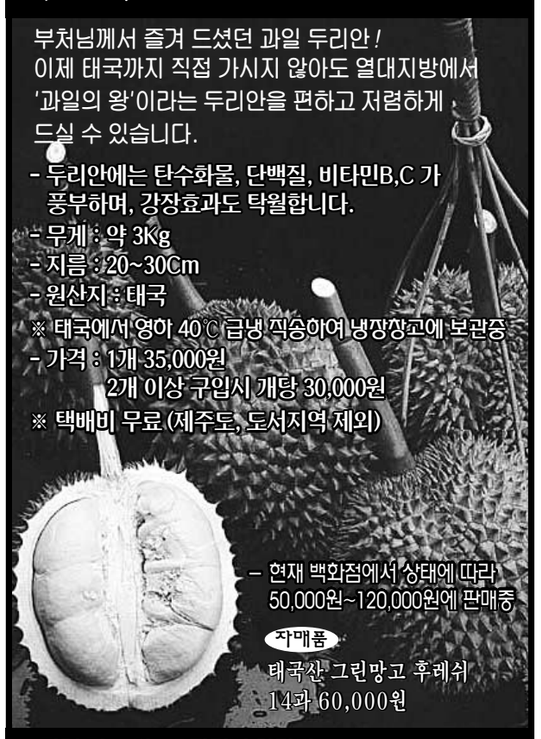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1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62-0867

易學秘法 전수

구성학. 매화역수. 육임등의 핵심 비법만 모아서 숫자로만 간편하게 년운, 월운, 일운은 물론 래방객의 처해진 상황, 온 목적, 占事등을 정확하게 통변할 수 있는 역학비법을 전수합니다.
(출장지도 가능함)
02) 6081-8475 , 019 - 446 - 4755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자매품
태국산 그린망고 후레쉬
14과 60,000원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 예금주 : 조명숙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명리학 사상 가장 확실한 교과서인 "최신팔자명리학비결" 소개

사주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교재와 선생을 만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본서로 공부하면, 여러분도 빠른 시일내에 사주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서는 사주학의 근본원리에서부터 고급 추명비결에 이르기까지 사주학의 핵심이론들을 확실하게 밝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주요내용 소개



- 간단한 수학공식으로 <용신>을 확실하게 잡을수 있는 비결수록
- 사주구조의 좋고 나쁨을 판별할 수있는 비결 수록
- 대. 세운을 원국에 대입해석하는 방법
- 기존의 사주학이 발견하지 못했던 사주관법상 매우 중요한 <일간 진입론> 공개
- 형충회합 및 공망을 확실하게 응용할 수 있는 비결수록
- 외격과 내격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
- 궁성이론과 적성 및 심리 구조 파악 비결
- 그외 새로이 연구 개발된60갑자간의 특수관계론 공개

■ 저 자 : 오산 정 대 균(하건충 원저)
■ 책규격 : A4용지 620쪽
■ 본서는 본 연구소 및 "교보문고"에서만 판매함
■ 하기 계좌로 송금하면 택배로 우송
■ 계좌번호 : 국민 765202-04-019996
농협 170202-56-037616 예금주) 정 대균
■ 수강생도 수시 모집함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TEL : 02-831-0055(대표) / FAX : 02-831-0058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수요반 – 매주 (수) 오후 1시 ~ 3시
목요반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장 소 : 본 연수원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부지 : 59평
- 가액 : 3억7천만원

- 위치 : 충남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3억3천 (급매)

- 위치 : 충남
- 법당 : 15평
- 요사 : 25평
- 부지 : 267평
- 가액 : 6천5백만원 (급매)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배운사 운장사 법당
- 10m돌탑영험부처님
- 전세 : 보증금 1000만원 월10만원
- 가액 : 2억

033)766-0057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9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암 자 안 내

- 위치: 대구 달성군내
- 대지: 258㎡
- 건물 2동 청정하고 깊은 산속 초가상간 암자
- 전기 없음
- 가액: 상담 후 결정

053)611-9875~6
017-208-5555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용왕단
- 가액 : 3억 3천만원 (융자 4천포함)

011-785-5670

사찰(긴급)안내

- 위치: 합천 진주간 중간지점
- 건물: 법당(기와): 25평, 요사채(스라브신축): 30평 요사채(스라브): 20평 <등기필> 산신각, 용왕당
- 대지: 250평 등기, 임야 100평(법당뒤 산세수려)
- 사찰까지 차량진입가능(정남향 위치) 마을어귀
- 불필요 전화사절, 절충가능함(꼭 사시고자 한분)
- 가액: 1억 5천5백만원(경남권으로 포교 요충지)

011-9017-5445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 부지 : 500평 임대
- 법당 : 25평 목조
- 요사 : 9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3평 목조
- 요사 : 30평
- 가액 : 9억 5천만원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1-232-4082

포교당 최적지 안내

- 위치: 서울 종로구 교북동 3층 40평 독립문역에서 1분거리, 버스정류장 앞
- 법당1, 종무소1, 방1, 주방1, 화장실
- 삼존불, 후불, 신중단, 관음, 단군탱화, 영단
- 가액: 1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1천만원

(시설비는 차후 수개월 후 지불하여도 됨)

011-9124-6651
전덕수 02)2236-4703

사찰 및 부지안내

- 충청권 요지에 있는 전통양식사찰
- 경부, 중부고속도로 및 국도와 인접하여 교통사정원활
-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환경이 쾌적하며 명당자리임
- 투자적요소를 동시 만족시킬 수 있는 충청권요지
- 가액: 10억원
-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바랍니다

016-9558-0306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내최요지 아파트 및 주택밀집지역
- 4층건물3층 약30평 지장단 신중단
- 보증금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2000만원(최저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사정상 '급' 양도

011-202-2205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동래온천시장내
- 총 65평(3층 건물중 1,2층) 1층 공양실 2층 법당 45평(종무실, 주지실)
- 호불 500불, 인등 500, 닷집 단청필
- 보증금 20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4500만원 (법당 최고시설)

016)444-5758

사찰 터 안내

- 위치: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 부지: 1500평(대지 600평, 전 200평, 임야 550평, 도로 150평)
- 현재 건물 3동(창고1, 주택1, 근린생활시설사용1)
- 모든시설 완벽히 되어 있음
- 좌청룡, 우백호로 배면임수의 전형적인 명당자리 ● 가액 4억

055)573-7525/011-858-8747
직접 오셔서 보시고 결정바랍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진천군 초평
- 부지 : 100평
- 법당 : 20평 요사 10평
- 양도가 : 2천만원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법당 : 25평, 요사 방 1개
-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백만원 시설비 1천 5백만원
- 큰시장끼고 있음. 철학관으로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 가액: 2억5천만원 (융자육천만포함)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화제의 염주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접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 남구 학익동
- 단층 15평
- 가액 월 20만원
- 보증금, 시설비: 15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4472-2828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 일산신도시 주엽전철역 150m 대로변 앞뒤로 아파트 단지
- 평수: 23평, 법당, 방1, 시설A급
- 3층건물에 3층 ● 철학관으로도 적합
-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천7백만원

031)919-0306
019-687-0306

정말 좋은터입니다(절터, 수련원터)

- 위치 : 이천시 마장면(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 부근)
- 부지(준보전임야): 7800평(평10만원) ● 부지(준임)3300평(평15만원)
- 대지(잡종지)2500평(평40만원) ● 대지(잡종지)5300평(평40만원)
- 선원건물(3층): 대지270평, 건물 250평(4억)
- 강남, 분당에서 30분거리 / 계곡물이 흐르고 주변숲이 아름다움 세계도자기 엑스포단지와 산책로 연결 / 가까운 곳에 전철역 확정
- 수행터로 이용되길 바라는 마음에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습니다

031)637-6719, 017-242-4741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중심가 최고요지
- 평수 : 50평
- 가액 : 7천만원(시설비포함) 월 50만원
- 특징 : 50평 전체 국내최초로 게르늄과 맥반석 온돌방으로 이루어져 원적외선의 기를 받을 수 있음

051)248-2477

포교당(급)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에서 2분거리
- 빌라 2층 40평
- 가액: 평당 300만원
- 대작불사관계로 인연있는 분을 모십니다

016-574-0437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5층건물중 4층
- 평수 50평, 법당 32평, 요사채 3개 삼존불 지장불 모셔져있음 공양실 1개
- 전세: 4000만원 월 50만원
- 매매가능

019-841-5515 /051-337-5517

도심속 최고 사찰 급 안내

- 위치 : 전주시 전주역 전북대병원 전북대부근
-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대지 8×6미터 코너절 116평 건평 120평 대웅전 21평
- 후불순금탱화조성입체 120평 신중순금탱화조성입체 50평 칠성순금탱화조성입체 50평
- 부처님순금 4자반 삼신불 부처님 법단 3단 홍송조각 연꽃 16자
- 자신있게 갖춘도량 매매금 총 4억8천중 준비금 2억 7천이며 개인사찰 등기 완료 좋은조건
- 매월 일백만원나옴 비구니스님 비구스님 최고도량
- 절앞 4월초파일행사등 90% 자세한 이야기는 답사후 의논 주인직거래

010-3166-8483 ※ 가능성 없는 전화사절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 부지 : 400평
- 건물 : 목조 한옥 21평 임법당(황토방)
- 가액 : 1억 8천만원

016-249-3393

모텔 "쉬어가는 누각"

해외 이주 관계로 매매 원합니다.

- 지리산 자락 화개장터 쌍계사 부근에 위치한 "쉬어가는 누각"은 4계절 영업하는 아름다운 계곡 화개천변에 있습니다.
- 쌍계사, 칠불사, 보리암, 화엄사, 송광사가 5분 ~ 1시간 거리에 있으며 녹차향이 가득한 맑고 향기로운 예쁜집 입니다.



- 사찰의 복지시설이나 신행단체의 수련회장소로도 적합합니다.
- 신행회 모임이나 가족여행 예약 받습니다.
- 화개 자연산 녹차(관아 수제차) 생산 판매 합니다.

주소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822
전화 : 055)884-0151~2

토굴작은암자(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
- 평수: 100평에 건평30평
- 가액: 43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8-510-1237

사찰안내

- 위치: 남양주시 수동면 몽골문화촌 옆
- 대지: 185평
- 건물: 42평(임법당)
- 석등, 탑, 아미타불, 삼존불, 불기일체
- 가액: 1억3천5백만원

011-340-4478
02)979-447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밀양 시내 인근
- 부지: 1800평 중 종교용지 450평
- 법당 가건물 15평 요사 50평
- 가액: 답사 후 절충

016-868-5517

절터및별장최적지

- 경남 합천군 가희면 도탄리
- 도로옆 야산
- 준농림지 840평
- 가액: 2200만원

054)874-5347

토굴안내

- 위치: 경남 함안
- 밭 250평, 대지 160평
- 임법당 1동, 요사채 2동
- 가액: 1억2천만원
- 비구니 스님께서 적당한 위치

011-9554-5674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식물원 입구
- 평수 : 40평, 방2개,
- 주방, 화장실
- 전세 :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1-598-8673

토 굴 안 내

- 위치: 대구 근교 토굴, 대단위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법당 1동, 요사채 1동 (도심속 전통 한옥기와)
- 대지: 165평(등기필) 사용평수는 200평 임
- 특징: 고속도로 및 시내버스 노선 편리
- 가액 : 1억 9천만원(절충가능)
- 넓은 정원과 주차장 완비

011-245-5467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화남면
- 대지 171평, 건평 70평
- 상태: 황토방2개, 보일러방5개, 주방, 샤워실, 화장실2개,
- 마당에 텃밭 있음
- 교통편리
- 가액: 4300만원

054)336-2826

포교당안내

- 위치 : 포항시내(우체국 뒤)
- 법당 21평, 삼존불, 탱화, 사리탑 (몸만 오셔도 바로 법회 가능)
- 가액: 전세 500만원에 월 40만원 (권리금 300만원)

011-9207-5296(스님)
016-520-7623(키관리)

사찰안내

- 위치: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시설완비 (상담 후 결정)

031)826-037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마산 근교
- 대지 : 1천5백평
- 법당: 2층 20평
- 요사: 3동(1층 50평 창고 20평 공양간 20평 화장실 7평)
- 특징: 임수 배산의 명당자리
- 가액: 1억5천5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1-1759-3368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군
- 대지: 200평
- 가액: 1천5백만원
- 보살님도 가능
- 꼭 필요하신분 연락바랍니다

033-375-1717
011-9790-9881

포교원안내

- 위치: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 임법당, 방6개
- 보증금 2백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600만원
- 모든시설 완비
- 보살기도처로 사용가능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1-9437-5127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주택 중심가
- 대지: 203평
- 현거래 시가: 250만원(5억 7백만원)
- 사정상(급) 평당 195만원 3억9천5백만원
- 법당 30평, 요사채 25평
- 5층, 7층탑 백년이상된 고목 2구루 ● 포교적합지
- 화장실 수세식 4칸, 주차 7~8대 가능
- 주인직접

010-3133-0018

사찰(급)안내

- 위치: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일출봉에서 5분거리)
- 대지: 380평, 법당 23평 목조 단청, 입불석조약사여래불, 칠층석탑,
- 산신당(목조단청), 종각(단청), 용왕당
- 요사채 2동 반지하 150평이상(방7개) 보일러시설
- 특징: 성산일출봉이 법당에서 보이고 우도 섬이 보이는 봉긋한 동산위의 아담하면서 깨끗이 단장되어 있는 절
- 가액: 평당 백만원 바닷가에서 3분거리
- 연락처: 011-858-8892 064)782-4365
- 제주시 중심가 불교선원, 포교원 3층 40평 년세 권리금 비품포함 총가액 2500만원

사찰안내

- 위치: 대구 남구 봉덕동
- 대지: 80평(마당이 넓음) 법당(전통한옥 30평), 요사채, 방3개
- 즉시법회가능
- 가액: 시설비 포함 2억 7천만원 (은행융자 6000만원 가능)

019-473-7600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 김포
- 3층건물에 2층
- 평수 : 52평
- 대도로변
- 가액: 전세금 5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696-5830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홍재전철역 부근
- 평수: 약 40평 1층
- 전세금 시설비 포함 6200만원

02)3216-1118
016-499-123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전 대흥동
- 건평: 35평 2층
- 주방1, 방1, 법당
- 삼존불, 108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가액: 전세 2천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1-9848-3178

토 굴 안 내

- 위치 : 태백산 자락 봉화 현동
- 대지: 300평, 밭 3300평
- 자동차 진입가능
- 해발 700고지 터닦기 완료, 방2개, 부엌1개
- 가액: 7000만원 (절충가능)

011-9759-5047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유가면 4km 산속 2층건물
- 2층 법당 23평, 종무실 7평,
- 요사채 1층 큰방1, 방2개 식당1, 황토방 1동 2칸짜리 사용가능
- 가액: 1억2천5백만원

053)616-0004
011-9394-1215

사찰(급)안내

- 위치: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일출봉에서 5분거리)
- 대지: 380평, 법당 23평 목조 단청, 입불석조약사여래불, 칠층석탑,
- 산신당(목조단청), 종각(단청), 용왕당
- 요사채 2동 반지하 150평이상(방7개) 보일러시설
- 특징: 성산일출봉이 법당에서 보이고 우도 섬이 보이는 봉긋한 동산위의 아담하면서 깨끗이 단장되어 있는 절
- 가액: 평당 백만원 바닷가에서 3분거리
- 연락처: 011-858-8892 064)782-4365
- 제주시 중심가 불교선원, 포교원 3층 40평 년세 권리금 비품포함 총가액 2500만원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경기승마공원입구
- 부지: 1300평
- 건물: 53평, 25평, 17평 3동
- 가액: 3억 8천만원
- 서울에서 50분거리
- 산세수려, 전망좋음

031)533-2420
017-202-2741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두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가액: 상담후 결정

043)644-1666
011-742-5925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평수: 약30평
- 전세금: 2천3백, 월세 20만원
  시설비: 800만원
- 위치양호, 시설깨끗, 즉시법회가능 (시설비는 대폭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011-597-6700
051-524-8108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
- 평수 : 약29,000평(전답및대지)
- 납골터 및 사찰요지
- 가액: 3억5000만원 (절충가능)

054)276-3851
011-415-5656

포교당안내

- 위치 : 인천 작전동 대로변 버스정류소앞 상가건물2층
- 평수: 35평
- 가액: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32)549-8634

사찰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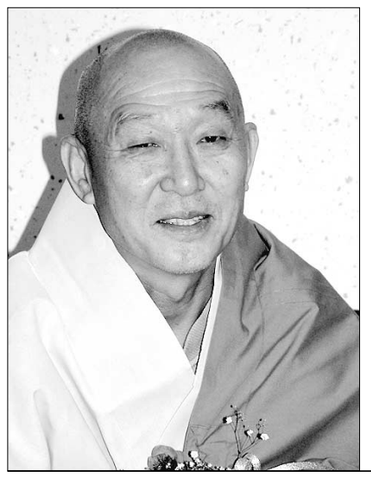
- 위치 : 경기도 청평. 서울과 춘천 지하철 공사중 사찰과 700m 떨어진곳에서 4차선 준고속도로 공사중
- 산세수려하고 경치 좋음
- 대지 : 1860평(임야포함)
- 지장전 : 10평, 산신각 : 5평
- 평당 : 20만원

011-823-3562

포교원안내

- 위치: 성남시 주택 밀집지역
- 법당 거실 넓음
- 방2개, 창고방1, 주방, 화장실 (45평형)
- 보증금 150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월세 70만원
- 보증금 시설비 없이 월세만 130만원 가능

011-678-0807



"초조대장경 불사 등 사이버세계에 불교 실현"

창립 10주년 맞은 고려대장경 연구소장 종림 스님

"기술 · 조직 · 재정적 기반이 없었던 1994년을 생각하면, 고려대장경연구소가 10년을 이어온 것이 마치 기적 같습니다. 연구소가 10살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한국불교의 종교적 신심 덕분입니다."

4월 1일 창립 10주년을 맞은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종림 스님(사진)은 지난 10년의 감회를 이렇게 밝혔다.

종림 스님은 "고려대장경 전산화가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케 했을 것"이라며 연구소의 10년 발자취에 의미를 부여했다. 불교학자나 일반인들이 고려대장경을 손쉽게 접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전산화를 통한 사이버 세계로의 진입은 불교적 세계관을 확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에 대해 "비어있는 공간인 사이버 세계에서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불교를 실현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을 확산시킬 수 있는 조건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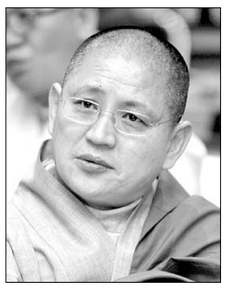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올해부터 한국과 일본에 산재해 있는 초조대장경 전산화 작업을 시작한다. 그동안 연구소가 진행해온 고려대장경 전산화에 이은 또 하나의 대작불사다.

한편 종림 스님과 고려대장경연구소 가족들은 4월 1일 서울 흑석동 달마사(주지 미명)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 그동안 전산화한 대장경을 108권의 책으로 제작해 법당에 봉안했다. 또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새 둥지를 트게 될 달마사 '장경도량' 설립 불사 계획도 밝혔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인사 공정, 승진에 균등한 기회 부여"

능인학원 신임이사장 장윤 스님



조계종 '능인학원' 이사회는 3월 30일 신임 이사장에 장윤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장윤 스님은 "교사채용 규정과 교감 교장 인사 규정을 만들어 교사채용에 공정성을 기하고 교감 교장 선임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운영방침을 밝혔다.

장윤 스님은 64년 상묵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강화 전등사 주지, 조계종 8 · 9 · 11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12대 중앙 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일주문



군의장교 수계법회

군불교진흥회장 정각 스님(목포 보현정사 회주)은 3월 28일 육군3사관학교 호국충정사에서 군의장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법장사 창건 13주년 기념법회

서울 법장사 회주 퇴휴 스님은 4월 11일 법장사 대웅전에서 법장사 창건 13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02)971-0303



'제13회 자비의 등 달기'

사단법인 우리는선우 성태용 이사장은 4월 6일부터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 제13회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달기 행사를 봉행한다. (02)2278-8672



(주)에스원 감사로 선임

경찰청 수사국장 김중겸 치안감(대한민국경찰불교회장)은 최근 정년 퇴임식을 갖고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원(SECOM)의 감사로 선임됐다.



전국불교청년 임원 전진대회

대한불교청년회 정상옥 회장은 4월 10~11일 진주에서 '전국 불교청년 임원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02)723-6165



노인들을 위한 경제 특강

서울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정성욱 관장은 3월 31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적은 비용으로 오래 사는 법'을 주제로 경기대 엄길청 교수의 특강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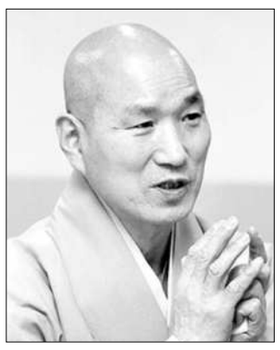


파라미타 청소년문화꽈 3대 소장에

동국대학교 부속 중학교 우인보 교법사는 4월 2일 조계사 문화교육관 강의실에서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설 청소년문화연구소 제3대 소장에 취임했다.

"복지사업의 큰 틀 만들겠습니다"

조계종 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장 성웅 스님



"일선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또 재단이 복지사업의 큰 틀을 만드는 데에도 적극 참여해 '중앙과 지역', '재단과 산하시설'을 잇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전국 위탁시설장들의 협의체인 복지시설장 협의회장 성웅 스님(상주 냉림종합사회복지관장 · 사진)은 3월 30일 서울 목동청소년수련관에서 시설장협의회 출범식과 함께 첫 정기총회를 열고, 시설장협의회의 역할을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재단과 산하시설의 상호보완적 관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재단이 불교복지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면, 시설은 현장에 맞게 색칠을 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일선 복지시설장들의 책임은 큽니다. 상호정보 교류가 그렇고, 모범 복지프로그램의 공유도 그렇습니다."

성웅 스님은 특히 전국 불교복지시설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했다. 정보교류의 기반이 조성돼야 구체적인 불교복지 발전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님은 현재 활동 중인 재단 산하 시설 실무자협의회와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불교복지 발전의 동력은 현장에서 나옵니다. 시설장은 물론 실무자들이 얼마큼 능률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시설장협의회의 시설장 회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재단 산하 시설의 40%에 불과한 30여 곳의 시설장 회원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6월 12일 시설종사자 합동연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산하 시설 신규직원의 통합교육 · 종사자 재교육 등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이시영 · 전상국 · 권영민 씨 조계종 현대불교문학상 수상



이시영 씨



전상국 씨



권영민 씨

조계종이 부처님오신 날을 기념해 제정한 현대불교문학상 제9회 수상자로 이시영 시인과 소설가 전상국 씨, 문학평론가 권영민 씨가 선정됐다.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조가 당선되어 등단한 이 씨는 지난해 발표한 시집 <은빛 호각>에서 단시(短詩)와 산문시를 교차시키면서 기층민의 삶을 예민하게 포착했다는 점에서 뛰어난 성과로 평가받았다.

전 씨는 소설 <플라나리아>에서 배우자를 잃은 주인공이 자신의 빈 자리를 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하는 불교의 생명사상을 잘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현대문학사 1, 2>(2003)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된 권 교수(서울대)는 날카로운 비평적 시각을 발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5월 15일 오후 5시 조계종 불교역사문화관 강당에서 열린다. (02)2267-683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생명나눔실천본부 골수기증 홍보대사 위촉 탤런트 이세은 "팬사인회 · 시설 방문 등 계획"



"좋은 일은 나누면 나눌수록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골수기증 뿐만 아니라 나누는 일이라면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 골수기증 홍보대사로 MBC-TV 드라마 '대장금'에서 의녀 '열이'로 열연했던 탤런트 이세은(25 · 사진) 씨가 위촉돼 화제다.

"많이 부족해요. 제가 아픈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이나 당장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저를 통해 많은 불자님들에게 생명나눔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뿌듯할 거예요."

이 씨는 이어 오는 7월 개봉 예정인 영화 '분신사마'의 촬영을 마치는 대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 · 조계종 총무원장)와 공동으로 '팬 사인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으로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병마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생명나눔의 실천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서로가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나누는 참맛을 불자님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김철우 기자

포교사단 아카데미 수료 및 3기 입학식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홍) 아카데미 2기 수료식 및 3기 입학식이 포교원 신도국장 원철 스님,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7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원철 스님은 "진정한 포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안목을 가지고, 선지식은 찾아 수행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하나되기' 주제 승가원 직원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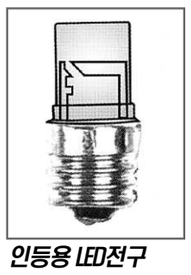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은 3월 27~28일 경기도 가평 한바다 연수원에서 '승가원 직원 하나 되기'를 주제로 직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직원 127명이 참가한 연수회에서 이사장 종범 스님은 "현장에서 느낀 여러분들의 경험이 승가원 정책과 비전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인등 연등 전구의 혁신

귀의삼보하옵고 불자기업 기보전자산업에서는 기존의 인등전구와 연등전구의 단점(짧은수명, 고유지비, 화재위험, 낮은견고성)을 보완하여 사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교체로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반영구적인 인등 연등용 LED전구로 바꾸어보십시요.



인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인등

특징
- 기존 설비에 전구만 교체 사용 가능하며 비용이 절감 됩니다.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수명이 반영구적 입니다.
- 발광 효율이 높고 소비전력이 낮아 유지 관리비가 감소 합니다.
- 반도체로 되어 있어 가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전구 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연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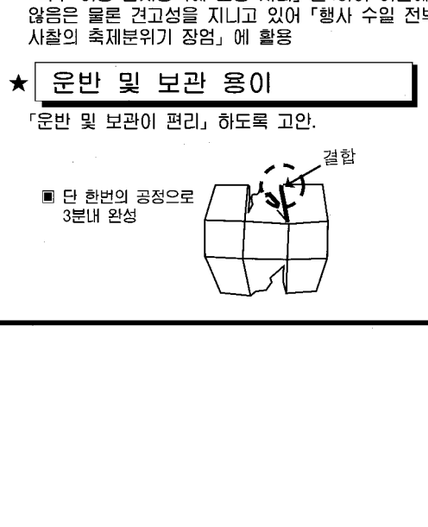
특징
- 일반 소켓 220용에 다용도로 사용할수있습니다.
- 별도 전선 교체없이 전구 교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전구 소켓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안정된 전원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 다 방향으로 빛을 조명 할 수 있습니다.



제품문의처

황금 LED 조명 - 기보전자산업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73(세운상가 가동 가열 특 3호)

TEL : 02)2266-9098,7550 FAX : 02)2266-7557 www.kibosa.com E-mail : kibosa@kornet.net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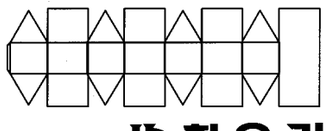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KTX만 달리면 되나?

드디어 고속철도(KTX)가 역사적 운행을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그리고 일본만이 고속철도를 운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야 할 쾌거임에 틀림없다.

고속철 KTX가 개통되면서 국민 모두 스피디한 'KTX경제시대'의 도래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뀌고 동서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며 새로운 복합상권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축해야 할 고속철도의 개통에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들린다. 대표적인 문제가 지나치게 수익성이 강조된 나머지 편의성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호 운행이 완전히 폐지되고, 무궁화호와 새마을호가 아주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운행간격이 너무 길어 비싼 KTX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끔 조정해 버린 것이다.

철도청은 고속철에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예전에 새마을호도 타기에 벅찼던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새마을호나 KTX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

또한 운행하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조차 요금은 그대로이면서 정차역은 더 늘어나 또 다른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KTX를 이용하게끔 만드는 열차배정과 열차운용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공공기업인 한국철도의 기업윤리가 땅에 떨어진 느낌이다.

원래 철도를 비롯한 전력, 통신, 수도, 도시가스 등 상품을 대량생산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로 인해 단위당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소규모의 경쟁기업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없게된다. 따라 자연독점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현상을 규제하기 위한 처방이 기업의 국유화 즉 공기업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철도의 행정을 보면 공기업이라기 보다는 마치 민간 독점기업의 병폐를 보는 것 같아 입맛이 씁쓸하다. KTX의 대체재가 바로 통일호와 무궁화호 그리고 새마을호인데 통일호의 운행폐지는 경쟁상품을 인위적으로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는 행위이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열차배정과 운용정책은 상품의 질을 변형시키면서 경쟁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것이다.

이같은 경쟁체제의 붕괴는 곧 독점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기업이 지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만약 효율성 마저 상실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독점기업의 병폐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가격규제와 경쟁촉진정책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가격규제정책으로는 고속철의 운임료를 현재의 할인제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전력의 경우 상업용 전기료와 가정용 전기료가 다르듯 고속철 역시 다양한 할인제도를 통해 다중가격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고속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의 운행을 정상화시켜 KTX와의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기존의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그리고 새로운 KTX가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해가면서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 국민을 위한 충실한 대중교통의 선봉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현 조계종의 최대 현안인 멸빈자 사면이 또 다시 미루어졌다. 조계종 163회 임시 중앙종회에서 이 안건이 부결된 것이다.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부결된 것이 이번이 세번째다. 조계종이 명실상부한 화합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멸빈자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불교계의 요구가 팽배한 가운데, 여러 뜻있는 스님들의 발의로 상정되었기에, "이번에는…" 하는 바람이 있었다. 따라서 실망과 우려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종회의 표결 결과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대의기구인 종회의 성격상 의원 각자의 판단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종회의원들의 파당성이 의심되고, 그러한 의원들로 구성된 종회가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인다. 이것은 중앙종회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사면 부결'과 종회의 위상

요즘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상황이 좋은 귀감이 되지 않겠는가? 이유야 있겠지만 그 이유가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 상황에서 탄핵을 감행한 국회가 국민의 전반적인 불신을 받게 된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큼의 감각은 지녔어야 할 것이다. 형세에 밀려서, 또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원칙을 포기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적용하여야 할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단의 대 화합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 일단 합의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부수적인 문제들은 지혜롭게 처리할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요청을 외면하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앙종회의 구성원들이 가장 큰 원칙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였거나, 지혜로운 방편을 찾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물론 사면에 찬성한 의원들이 더 많다는 것도 분명하지만, 조계종을 이끌어 나가는 중앙종회 전체의 위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려버린 상황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종단 화합 이전에 언제쯤 명실상부한 최고 대의기구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천만 불자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不信과 이혼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잡아함경〉

도무지 믿음이라고는 없는 세상이다. 내 것만을 고집하고 타협할 줄도 모른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족간에는 그렇지 않았다. 부부간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도 옛 말이 돼가는 것 같다. 지난해 하루 평균 835쌍이 결혼했고 458쌍이 이혼했다는 통계청 통계를 보면 부부가 '무존지간'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이혼률이 2002년에 비해 15%나 늘어났다니 가정해체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다.

자라난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다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격차이라고 한다. 이혼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도 6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무조건 이혼을 죄악시하는 시대는 분명 지났다. 새로운 삶에 대한 선택을 무조건 비난만 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혼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현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꼭 하지 않아도 될 이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최선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이혼은 그렇게 치부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부부 간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 그런데 요즘엔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하고 권리만을 내세우는 부부들이 많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다. 제발 자신을 돌아보고 살자. 그렇지 않아도 '이혼'하고 싶은 세상이다.

■한명우(취재부 차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해외 유출문화재에 관심을

고려시대 때 조성된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사경이 일본에서 국내로 환수됐다는 소식을 보고 반가움 금할 길 없었다. 700년만의 귀국이라고 하니, 고국을 만난 사경의 감회도 새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문화유산이 해외로 유출되었다가 고가로 사들여야 하는 처지를 생각하면 또 다른 비애를 느낀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치가 더욱 높다. 원래 자리인 법당을 떠나 박물관에 전시되는 불상은 더 이상 신앙의 존재가 아니라 관람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불상으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일전에 우리나라의 문화재 가운데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가 7천여 점에 달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이 수치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추정일 뿐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해외 유출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유출된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았으면 한다. 여기에는 정·관계와 학계 등 관련기관이나 연구소뿐만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도 동참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유출문화재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국민들은 그 문화재들을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기까지 적극적인 애정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영춘(서울 중구 신당동)

7천 비구니 대변하는 모임돼야

'현대불교' 467호에 실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기사를 읽었다. 전국비구니회 임원을 소개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했다. 그러나 단순히 소개에 지나지 않아 안타까웠다. 전국비구니회의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얼마나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지 등등의 내용까지 같이 다뤘다면 더 좋은 기사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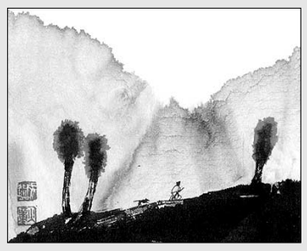
현재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회원들은 참여하지 않고 임원들만 있는 단체라 할 수 있다. 조계종의 7천여 비구니 스님들을 대변할만한 대표성을 찾아볼 수 없다. 회장은 누가 뽑고 임원은 또 누가 선출하는지 모르는 회원이 99%인 비구니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과연 비구니회가 비구니의 위상과 수행환경에 공헌한 바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작은 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비구니 스님들이 당당한 수행자로서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날이 오도록 노력하고 정진하는 비구니회가 되길 기원한다.

스마일(붓다뉴스)

시와 그림이 있는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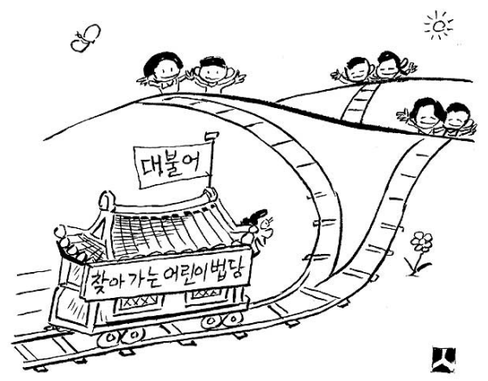
산중행(山中行)

어둠이 깔린 산길을 간다
눈 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길을 그냥 따라 간다
따라가면 인경소리, 창호지에 어리는 환한 불빛
일주문을 들어서며 비로소 걸음을 늦춘다
비로소 등에 맺힌 땀을 느낀다
뭇짐승들 울음을 벗삼아 어두운 산길을 간다.

적음 스님(일소암)

그림 전성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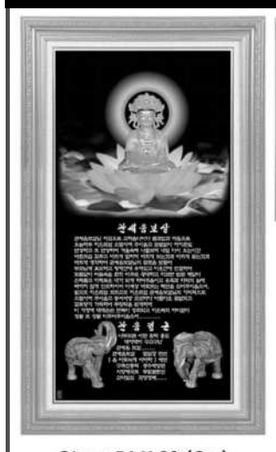
'현대'만평 심 민 섭



당 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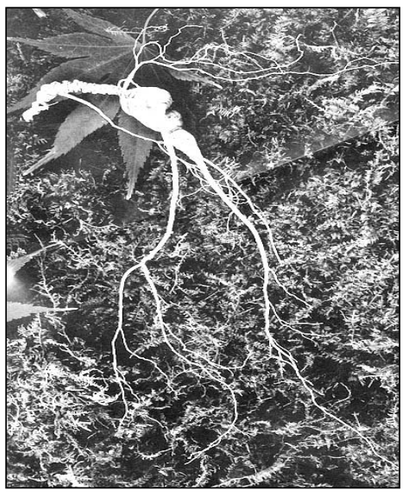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하 식품입니다.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고혈압, 고지혈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불자님을 모십니다

Size : 54 X 82 (Cm)

Size : 67 X 54 (Cm)

날로 변해가는 세파 속에서 바쁘신 불자님들을 위하여 저희 효산에서는 인등 심지위에 모양을 그려 아름답게 핀 꽃에 불경을 실어 디지털인화지로 실크코팅 처리하여 작품화 하였으며 부처님은 정근기도문을 실어 각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가족이 화목하고, 지혜로워지며, 사업이 번창하고 소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희 효산에 작품구입을 원하시는 분이나 판매를 원하시는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연락을 기다립니다.
작품종류
지장보살,관세음보살,약사여래불,윤회의등불
벚꽃3송이,나비,NS꽃,왕관꽃,왕관,제비꽃,진달래,
토끼풀,봉선화,매화
효산
구입문의 및 상 담 Tel 02)422-5335 / 02)422-0110
Fax 02)422-1144 / H·P 011-352-5097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새봄 나눔의 마당 자원봉사 떠나요

나눔은 '풍요'를 부른다. 베푸는 것이 넉넉하진 않아도 그 마음만은 언제나 풍성하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주는 것이 적어도 나눌 것이 부족해도, 이들의 마음은 더 커지고 넓어진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미학'이다. 그럼, 이제는 실천. 봉사의 참맛을 맛볼 수 있는 곳은 어디에, 무엇이 있을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복지시설들을 소개한다.

김철우 기자

불교계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전국 복지관

지역	기관명	자원봉사 프로그램	문 의	지역	기관명	자원봉사 프로그램	문 의
서울(02)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자원봉사활동처 소개	723-6258	경기(031)	분당한솔사회복지관	밑반찬배달서비스	716-4215
	옥수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2282-1100		군포매화복지관	소년소녀가장 세대 방문원	393-3677
	강북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목욕	989-4215		연꽃마을용인요양원	목욕/이미용/청소	334-3677
	길음사회복지관	이미용/수지침	985-0161		부천원종복지관	독거노인 도시락 차량 지원	677-0108
	능인사회복지관	저소득아동 학습지도	571-2988		시흥시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봉사	441-9114
	서울노인복지센터	무료 급식	739-9501		평택남부복지관	독거노인 식사배달	653-3677
	삼전사회복지관	밑반찬 배달서비스	421-6077	강원도(033)	강릉장애인복지관	물리치료실 보조	643-1801
	은평노인복지관	이동 목욕서비스	385-1351		강릉복지관	소년소녀가장세대 학습지도	653-6375
	서울시립요양원	청소 및 세탁	939-6176		원주 명륜복지관	장애인 목욕 서비스	762-8131
	성북노인복지관	독거노인 가정봉사원	929-7950		속초복지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631-8761
	광진노인복지관	치매방지보호센터 봉사	466-6242		춘천시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식사배달	255-8866
	구로종합복지관	밑반찬 배달서비스	852-0525	충북(043)	제천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목욕 서비스	652-0901
	신길종합복지관	독거노인방문 봉사	831-2755		청주 북부사회복지관	소년·소녀가장세대 학습지도	216-4004
부산(051)	양정청소년수련관	인근 복지시설 상시 방문	868-0750		충북불교자원봉사교육센터	호스피스 활동	298-2258
	개금사회복지관	소년소녀가장 학습방문지도	893-5034	충남(041)	공주 금강사회복지관	밑반찬 배달 서비스	856-6110
	공창사회복지관	발달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 활동	363-2063	경북(054)	금오사회복지관	도시락 차량 배달	458-0230
	낙동사회복지관	밑반찬 배달서비스	271-0560		상주 냉림사회복지관	방과 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532-5687
	몰운대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및 장애인 목욕	264-9033		영주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목욕 봉사	633-6415
	용호사회복지관	한부모 가정세대아동 학습지도	628-6737		의성노인복지관	독거노인 반찬 배달	833-6006
대구(053)	남구종합복지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476-7700		문경 모전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	555-0108
	감천재가노인복지봉사센터	독거노인 밑반찬배달 서비스	982-0562		포항 학산복지관	이동목욕 서비스	248-6165
	불교사회복지회봉사센터	독거 목욕/이미용	474-9748		경주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 목욕 서비스	776-7522
인천(032)	원종사회복지관	독거노인방문 청소	6770-108		구미장애인복지관	주방 보조/ 목욕서비스	457-3172
대전(042)	법동사회복지관	거동불편노인 도시락 서비스	633-1141	경남(055)	마산 중리복지관	저소득 세대 중·고생 지도	231-8017
	서구노인복지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봉사자	488-6297	전남(061)	동여수노인복지관	치매·중풍 노인 목욕	643-1966
	용문사회복지관	의료진료 / 이미용	537-0615		문수복지관	독거노인 도시락 차량 운전	652-4242
울산(052)	울산남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조리·배식 봉사	265-5221		여수시노인복지관	무료 배식 봉사	685-2381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치매·중풍 노인 목욕	246-8061	제주(064)	불교자비원	제주양로원 시설 세탁 봉사	747-8337
경기(031)	일산노인복지관	사회교육 담당 강사	919-8677		제주청교련청소년봉사센터	지역 독거노인 방문 봉사	725-0108

농촌 방문 무료진료 활동 펼쳐

선재마을 의료회 · 새생명 광명회

"목 디스크 약 드릴께요. 피검사는 정상입니다."

선재마을 의료회(회장 강경구)와 새생명광명회(대표 김기원)가 3월 28일과 4월 2일 영천시 청통면과 남해군 설전면에서 각각 무료진료활동을 펼쳤다.

선재마을 의료회가 봉사활동을 펼친 경북 팔공산 동편기슭 영천시 청통면 사무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불련 출신의 불자 의료봉사모임 '한국불교 선재마을 의료회'가 무료진료소를 열었기 때문이다.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 무료진료소에는 청통면 의료봉사를 권유했던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환자들을 따뜻하게 맞았으며, 서울, 창녕, 부산 등에서 온 20명의 의료진이 오전 내내 밀려드는 약 200여명의 환자들을 진료했다.

(사)새생명광명회와 남해청실회(회장 이정체)가 남해군 설전면 면사무소에서 펼친 무료 합동봉사활동에도 지역주민들이 찾아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실시한 이날 봉사활동은 합동의료검진, 눈시력 검사, 안경나눔, 이미용, 노인영정 무료촬영등으로 진행됐다.



선재마을 의료회가 3월28일 영천시 청통면사무소에서 무료진료활동을 펼쳤다.

봉사에는 안과및 시력검진은 송준경 교수(경상대 의대교수), 침의술은 세심정사 주지 원영 스님, 일반진료는 남해보건소 의료진, 이미용봉사는 현대전문미용학원 우덕기 원장, 안경나눔은 중앙당안경원 채경영 원장, 상담및 자원봉사는 진주산업대 탁환호교수등 새생명광명회 팀이 도맡았다.

또 노인영정사진 무료촬영봉사는 남해청실회 영전사진 촬영반이 참여했다.

김원우 ·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캠페인 활성화 스티커 제작

테이프 · CD에 붙여 보내기로

좋은벗 풍경소리가 창작찬불동요 테이프및 CD보내기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스티커 5천장을 제작했다.

이 스티커(사진)는 본지 나눔의 손잡기 로고에 '어린이 청소년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풍경소리는 스티커를 성금으로 마련한 테이프와 CD, 악보집에 붙여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3월 한달간 본지 나눔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찬불동요보내기 성금은 총 31만원이 접수됐다. 접수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량사 지현스님 10만원, 가사야 10만원, 최병헌 3만원, 박노윤 2만원, 권오형 김원우 이종만 이강희 정유탁 박노윤 씨 각 1만원.

김원우 기자

용호복지관-E-MART 자매결연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총 스님)은 3월 26일 복지관장실에서 후원업체인 E-MART 문현점(점장 조현국)과 자매결연 협약식(사진)을 개최했다.

복지관과 E-MART문현점은 앞으로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 등을 비롯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방문해 사랑의 쌀을 전달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혜총 스님은 "복지관과 E-MART는 복지사업을 함께 하는 도반관계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본지 나눔캠페인 통장 접수현황

광주 송정리 k보살 5만원

충남 홍성군 이정화 보살 5천원

나눔의 손잡기 동참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 스님) 저금통- 20개 스티커 50장

경남 밀양시 무안면 용정사(주지 혜봉 스님) 저금통-20개 스티커-50장

경남 진해시 충무동 약사암(주지 보성 스님) 저금통-20개 스티커-50장

전북 전주시 진북1동 현대불교사 저금통-20개 스티커-50장

광주시 서구 치평동 현대불교 광주지사 저금통-350개 스티커-100장

대구시 수성구 중동 현대불교 대구지사 저금통-100개 스티커-100장

부산시 동구 범일 2동 현대불교 부산지사 저금통-170개 스티커- 200장

● 나눔의 가게

서울 남창동 대도상가 d동
건강식품 도매 및 총판
올림피아스포츠건강 식품
02-318-1786

부산 온천1동 각종 약품 조제 판매
럭키약국 051-553-0070

전주 팔복동 각종 귀금속 취급
팔복금방 063-211-9994

나눠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 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 · 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살립니다

나눔저금통 5월15일 1차 수거 현재 3천200여개 배포

현대불교신문사가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 일환으로 전국에 배포한 나눔저금통이 3천200여개를 넘어섰습니다. 본사에서는 상반기에 분양된 나눔저금통을 5월 15일 1차로 수거합니다. 채우지 못한 저금통은 10월 10일까지 본사로 전달하거나 기부자 명의로 입금해 주십시오. 지역 사찰의 경우 신도들이 채워온 저금통을 함께 분해하여 기부자 명의로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또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됩니다. 상호와 업태, 주소, 전화번호를 본사에 꼭 알려주세요.

문의 (02) 722-4162~3

특별취재팀

김원우 차장, 박봉영 기자, 김철우 기자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등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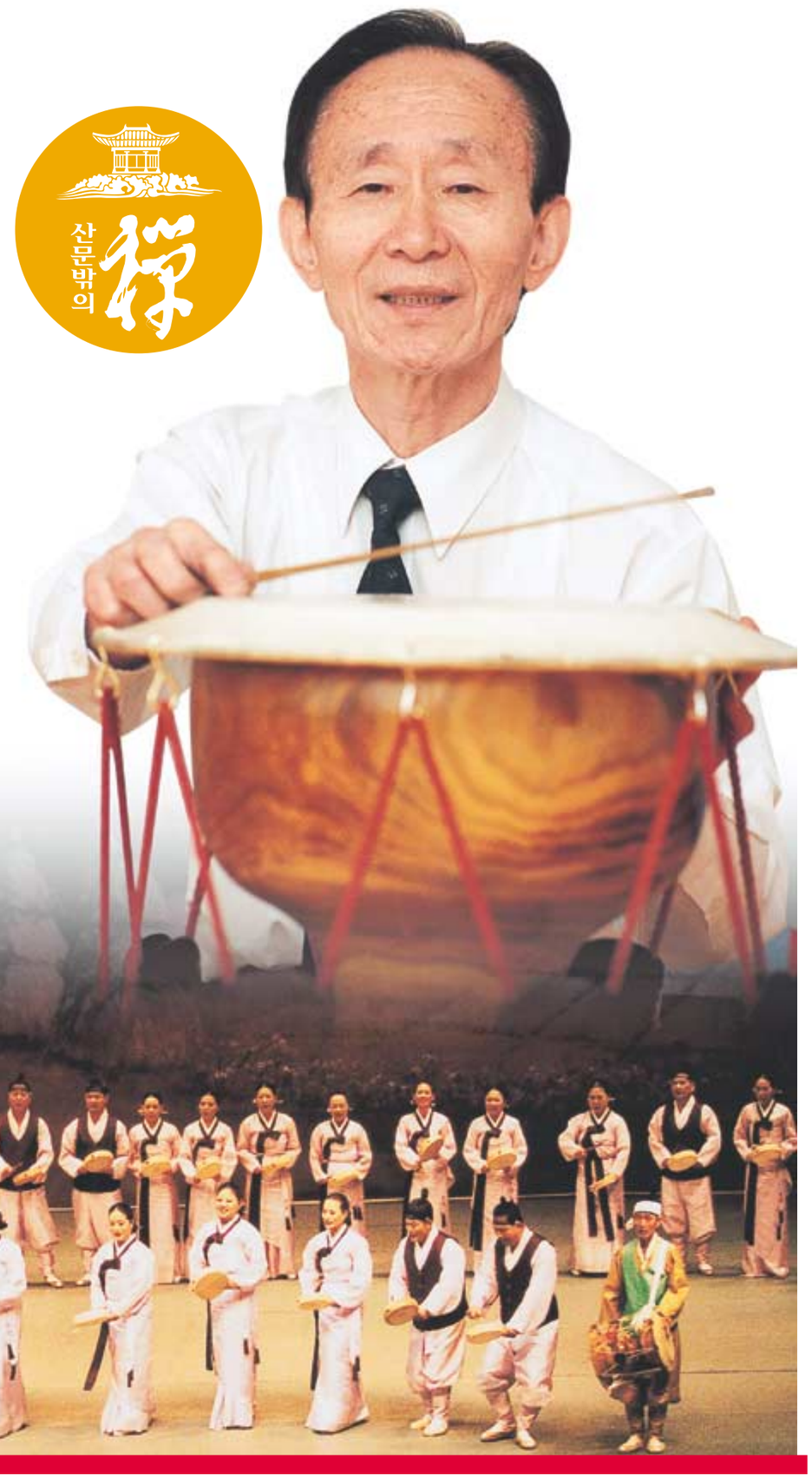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요.

ARS 060-700-1080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머무는 듯 흐르는 '나대로' 장구장단
흥나면 올리고 내지르고…



산문밖의 禪

선소리 산타령 황용주 명창

명창 이창배 선생에게 모든 소리 배워
口傳心授 원칙에 체계화 어려움 겪어
정리 위한 원고지, 오선보만 8천 여장
"어느날 문득 단전아래 山이 앉았지"

일렬로 늘어선 소리꾼들이 고음의 우렁찬 소리를 질러대며 소고를 두드린다. 10명이 넘는 이들과 소리를 주고받는 무대의 주인공은 장구를 옆으로 세워 맨 모갑이. 그의 머무는 듯 흐르는 나대로 장구 장단에 온 나라 명산들이 치솟는 소리로 뻗어나온다. 그 상성(上聲)의 소리에 소리꾼들은 발림(손짓, 발짓을 섞은 동작)으로 화답하고 무대는 장구와 소고, 높고 꿋꿋한 소리로 신명나게 어우러진다.

국악의 색다른 정취가 느껴지는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소리에 얽힌 이야기를 듣기 위해 무대의 모갑이 소암 황용주(67 ·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 산타령' 예능 보유자) 명창을 찾았다. 시조에 밀려 판소리에 눌려 그 이름 몇 자도 제대로 알리지 못한 민간의 소리 '선소리 산타령'에 50년 인생을 바친 소리꾼. 그가 장구채를 길게 뽑아내며 반 백년간 장구 속에 묻어놨던 소리 이야기를 굽이굽이 펴기 시작했다.

"서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산을 꿈꿀 수 있는 소리야. 조선팔도 산천경개를 어디서건 펼칠 수 있는 생명이 담긴 소리…."

황 명창은 선소리 산타령에 범어에 가까운 염불조가 녹아있는 것이 단순히 기법적 차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부처님을 간절히 생각하며 세상 시름 허튼 욕망을 한 마음에 놓아버리듯, 산수(山水)를 일념으로 오롯이 품는 마음은 곧 부처의 마음이라 했다.

그가 산타령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황희 정승 직계의 뼈대깊은 유학가 가문은 사리와 분별은 명확히 가르쳐 주었지만, 산수를 훑는 따뜻한 시선과 그 감흥에 깊이 침잠하는 내면의 소리에는 냉담했다. 그래서 그는 서당을 운영하던 조부의 강경한 뜻을 뒤로 하고 홀홀단신으로 상경, '청구고전서악원'에서 소리를 시작하게 된다.

소리계에서는 그 위상이 대단했던 이창배 선생의 문하제자가 된 황 명창. 그는 이창배 문하에서 가사, 시조, 경기소리, 서도소리, 선소리 산타령 등 소리라는 소리는 모두 다 배웠다. 정악이니 속악이니 하는 분류로 우리의 소리가 임의로 구분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바탕은 하나라는 생각에서다. 통하는 것들은 다시 되짚어 봤고, 어긋나는 것들은 그 고유의 색을 다시 확인했다.

그렇게 기본을 닦은 황 명창은 이제 소리의 현장에 뛰어들게 된다. 다양한 소리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민요학원 등지를 유랑하며 뜨문뜨문 소리를 가르쳤다. 그리고 필생의 과업으로 삼은 선소리 산타령과 하나가 되기 위해 낮과 밤도 모르고 소리에 몰두했다. 두 옥타브에 이르는 넓은 음역의 높고 꿋꿋한 소리를 소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매일 새벽 4시 뒷산에 올라 2시간 동안 소리 내지르기를 3년, 잠도 밥도 잊어가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문득 산이 단전 아래 살며시 들어앉았다. 하얀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있는 산을 끌어올리는 순간이었다.

황 명창은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다. 풀빵 사먹기도 힘든 가난이 그를 옥죄었고 3년간의 전국 순회공연으로 빚쟁이만 22명이 따라붙었지만 마음에 들어찬 소리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선소리 사설 정리다.

"원고지와 오선보 8천장이 쌓였어. 그런데 양이 문제가 아니었지. 알 듯 말 듯한 불교용어는 물론이고 중국 고사를 모르면 풀어낼 수 없는 구절이 상당했어. 그래서 도서관 고서에 묻혀 사는 게 일이었지. 남는 시간에는 소리 내지르며 음표 그리고."

소리 전승은 '구전심수(口傳心授)'가 원칙이라 그것을 체계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황 명창은 막연한 소리를 하나하나 오선보에 그려 올리고 한문을 일일이 한글로 풀어 선소리 사설을 대대적으로 정리했다.

그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지 황 명창은 92년에 이르러 '선소리산타령'의 '기예능보유자(인간문화재)'가 됐다. 또한 걸망 매고 떠돌면서도 일념으로 매진한 후학양성의 길도 안정선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는 꿈에 그리던 '선소리산타령전수소(02-743-1772)'를 설립, 지금까지 전수생과 제자들을 위한 소리교육을 펼치고 있다.

그런 그의 50년 소리 인생을 담은 앨범이 최근 새로 출시됐다. 노래하는 산자락에 노장의 깊은 시선이 묻어나고 내지르는 타령에 객승의 한(恨)이 소리없이 흐른다. 무대에 서면 가득찬 객석이 곧 산천경개로 화하고 그 봉우리마다 절집이 우뚝우뚝 서는 것을 느낀다는 황 명창.

"그냥 부를 뿐이야. 산수가 끌어당기는 대로 내어 놓으면 그만이지. 두 다리 땅에 튼튼히 세우고 흥이 나는 대로 올리고 내리고 지르고 당기고…."

오는 4월 8~9일 서울국악제에서의 그의 '선소리 산타령' 무대(국립국악원 예악당)를 기대해 본다.

글=강신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선소리 산타령이란?

서서 부르는 산타령…범패와 유관

서서 부르는(立唱) 산(山)타령.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자진산타령, 개구리타령 등 5개 타령으로 구성된다. 다른 민속음악이 무속음악이나 토속민요에 근간을 두고 있다면, 선소리 산타령은 불교음악에 기반을 둔 새로운 장르의 민속음악이다. 조선 초 억불숭유 정책에 밀려 거리로 나앉게 된 스님들이 산천을 떠돌며 부른 애절한 삶의 노래가 선소리 산타령의 시작이다. 그래서 노래 가락에는 불교음악인 범패의 짓소리, 홋소리, 화청 등의 발성법이 상당 부분 녹아 있으며, 가사 역시 사찰을 묘사하거나 불교적 소재를 차용한 경우가 많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 2004 부다피아 SUMMER CAMP

미국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

현대불교신문사는 창간10주년을 맞아 100년전 이민의 첫발을 내디딘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캠프를 개최합니다. **2004 부다피아 여름 캠프**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 및 문화체험 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폴리네시안 및 미국 현지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넓은 세계를 배움으로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 **참가대상**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기 간** : 7월 28일 ~ 8월 17일(20박 21일)
● **참 가 비** : 250만원(여권 · 비자수수료 별도)
● **정 원** : 선착순 50명
● **참가신청** : 3월 15일 ~ 5월 10일까지(※미국 비자신청은 별도문의 바람)
● **장 소** : 하와이 무량사 한인문화원
● **주 최** : 현대불교신문
● **주 관** : 하와이 싯다르타대학교 부설 영어교육원
● **후 원** : 조계종포교원 진각종통리원 (재)보덕학회
● **문 의** : 현대불교신문 02)722-4162~3, 016-292-1987
● **참가비 입금통장**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준 비 물** : 여권, 미국 비자, 학생증, 필기도구, 카메라와 필름, 속옷 3~4벌, 셔츠와 바지 2~3벌, 모자와 선글래스, 수영복과 샌들, 비옷, 수건과 비누, 자외선 차단크림, 작은가방


◇ 하와이 한인문화원 전경

※ 참가학생 부모님의 경우 하와이 사찰에서 공동생활을 전제로 참가가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관광비용 포함해 1주 180만원, 2주 200만원, 3주 220만원입니다.

□ 이런점이 좋아요
- 참가비 최소화 – 하와이 무량사 숙식후원 가격거품 제거. 항공요금과 교육비, 관광요금만 실비정산.
- 믿을 수 있는 기관 – 불교계 대표 언론사와 하와이 무량사가 보증.
- 원어민 교수진 – 하와이대학교 어학연수원 현직 교수와 강사로 구성. 소정의 자격과 국제경험 쌓은 원어민 강사 엄선.
- 어학연수기관 사용 교재 – 미국 어학연수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
- 효과적인 회화구사 – 강의내용을 문화체험시 실제 상황에 적용해 유창한 영어를 구사.
- 단계별 수업 – Test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레벨에서 공부하도록 하여 실력을 빠르게 향상.

□ 프로그램 일정표

일 정	시 간	프 로 그 램	일 정	시 간	프 로 그 램
7월 28일(수)	오전 8시	영어학교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전용)	8월 7일(토)	09시~12시	와이키키해변 수영, 휴식
			8월 8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휴식
7월 29일(목)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9일(월)	09시~16시	진주만 방문,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7월 30일(금)	09시~16시	한인이민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자연박물관 관람	8월 10일(화)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7월 31일(토)	10시~12시	와이키키해변 수영, 휴식	8월 11일(수)	09시~16시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및 퍼레이드 관람
8월 1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휴식	8월 12일(목)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2일(월)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3일(금)	09시~16시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에서 수영
8월 3일(화)	09시~16시	카할리만다린호텔 돌고래쇼 및 코닥 홀라쇼 체험	8월 14일(토)	09시~16시	영어학교 졸업식, 휴식
8월 4일(수)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5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8월 5일(목)	09시~16시	하와이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8월 16일(월)	09시~18시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빅아일랜드 화산섬 탐방
8월 6일(금)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7일(화)	10시~	출발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6>

자신의 근기를 잘 파악하라

불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쭐리반특가라는 이름을 가진 비구에 관한 일화가 <법구경>에 나옵니다.

형인 마하반특가와 함께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된 쭐리반특가는 형과는 달리 머리가 너무 우둔해서 수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처님이나 장로 비구들이 가르침을 베풀거나 수행법을 일러주면 이해하지도 못 할뿐더러 금방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쭐리반특가의 이러한 사정을 신통으로 아시고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쭐리반특가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너는 출가하기 전 집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으시었습니다.

쭐리반특가는 '라조하라낭'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조하라낭이란 쓸고 닦는다는 청소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좋다 너는 이제부터 다른 비구들이 머무는 승방을 대신 해서 항상 닦아주되 마음속으로 '라조하라낭'을 외울 수 있겠느냐"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아무리 우둔한 머리를 가진 쭐리반특가라 해도 그와 같은 일을 못 할리 없었습니다. 대답을 드린 쭐리반특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라조하라낭 라조하라낭'(쓸고 닦으리, 쓸고 닦으리)을 일념으로 외우면서 승방을 닦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비구들이 파사익왕의 초청을 받아 궁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형의 만류로 왕의 초대에도 동행하지 못한 쭐리반특가가 혼자서 승방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라조하라낭을 외우면서 걸레질을 하던 그에게 크나큰 깨달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방을 닦던 걸레를 보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새로 만든 깨끗한 걸레가 청소를 하는 동안에 닳아지고 더럽혀져 그 처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되자 쭐리바특가에게 깨달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쭐리반특가는 너무도 기뻐 "세존께서 쓸고 닦으라 한 것은 내 마음이었으며 모든 존재는 무상이며 무아이고 열반은 청정한 것임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였다"고 혼자서 말했습니다.

한편 파사익왕의 초청을 받으신 부처님은 역시 이번에도 신통으로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을 아시고 다른 비구를 시켜 쭐리반특가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근기에 맞는 수행법 골라야 빨리 깨달아

그렇게 하여 쭐리반특가는 부처님 앞에 오게 되었고 부처님은 그에게 당신을 대신하여 설법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쭐리반특가의 설법이었습니다. 바보같이 단 한 줄의 게송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던 그의 설법은 일반 비구들은 물론 장로 비구들까지 감동을 받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쭐리반특가를 칭찬하시고는 비구니를 지도하는 법사로 임명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마음을 집중하면 좋은 이익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래에 들어 수행하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려면 자신의 근기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행법을 받아 지녀야 한다는 점을 한번 일러 드리고 싶습니다.

<유마선원장>

서원사 선원장 5인 초청 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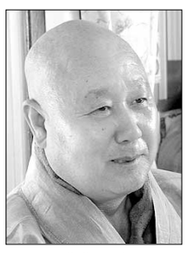
3월 26일, 경남 창원 서원사(주지 자하)에서는 40여 년 동안 장좌불와로 정진해온 대해 스님, 오른 손 네 마디를 소신공양한 곡성 태안사 선원장 종대 스님을 비롯해 여러 스님들의 법문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보기 드문 법석이 열렸다.

이 날 특별 법석은 전국의 선원과 토굴에서 30여년 동안 정진해온 서원사 주지 자하 스님이 대덕화 보살의 부친 49재 회향을 맞아 함께 수행해온 도반 스님들을 법사로 초청, 영가와 대중을 위한 법석을 마련한 것이다. 법사는 모두 5인. 제주도 법화사 주지 시몽 스님의 영가 법문에 이어 대해 스님, 종대 스님, 문경 대승사선원장 탄공 스님, 김해 덕천사 주지 원천 스님이 법문했다.

"공부할때는 몇 번 까무러쳐야"



서원사 선원장 초청법회에서 49재 영가법문을 하는 시몽 스님. 사진=천미희 기자


대해 스님


탄공 스님


종대 스님

49재 회향맞아 영가·대중위한 법석 마련
수행 열기 '후끈' …학인 스님들도 함께 해

낙동강 줄기가 한 눈에 들어오는 서원사 작은 법당은 통도사와 범어사의 학인 스님들을 비롯 선원장 스님들의 법문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부대중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관욕, 상단 불공에 이어 시몽 스님의 영가 법문이 시작됐다.

"당(唐) 나라 현종(玄宗) 때 백애산(白崖山)에서 40여 년을 하산하지 않고 수행만 하시던 스님이 계셨는데 현종 때 국사가 되어 3대에 걸쳐 선정(善政)을 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혜충 국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적하실 즈음에 국왕인 대종(代宗)이 입적한 후 원하는 일이 있느냐고 묻자 국사께서는 무봉탑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탑이 무봉탑인지 모르는 왕은 '그러면 스님께서 탑(塔)의 모양을 내려 주십시오' 했습니다. 국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아시겠습니까?' 하고 다시 국왕에게 물었으나 국왕은 다시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국사는 '나에게 탐원 응진이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를 불러서 물어보세요' 하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법문의 핵심인데, 국사께서 돌아가신 후 응진을 불러서 그 뜻을 물으니 '삼강은 남쪽으로 흐르고 담강은 북쪽으로 흐르도다' 하고 매우 시적으로 왕에게 법문했습니다. 그 후 설두 스님이 출현해 응진 스님의 법문에 대해 '지적이면서도 고상한 말이어서 누가 알아듣겠는가. 그러나 그 가운데는 천하의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황금이 온 나라에 충만하다' 고 송했습니다. 오늘 영가의 49재를 맞아 혜충 국사가 죽음에 임해서 하신 무봉탑의 법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어 자하 스님은 "향곡 선사의 제자로 40년 이상을 장좌불와 하며 수행정진 중인 대해 스님의 법문을 듣겠다"고 법문을 청했다. 대해 스님은 "장좌불와를 강조하시는데 오히려 죄송스럽다"며 법문을 시작했다. "어떤 것이 참 부처입니까? 또 어떤 것이 법입니까? 부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끗함을 말하고, 법(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맑음을 말하고, 도(道)라는 하는 것은 광명입니다. 제일구(第一句) 중에 얻었다고 하면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 되고 이구(二句) 중에 얻었다고 하면 한 사람의 스승이 되고 삼구(三句) 중에 얻었다면 스스로 구함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목청을 높여) 네 놈도 도둑놈이고 나도 도둑놈이다. 아악~."

대해 스님의 할(喝)로 법당 안의 고요는 더욱 깊어졌다. 이어 종대 스님의 법문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종대 스님은 눈을 감은 채 말이 없었다. 짧은 침묵 사이에 행해진 무설설법(無說說法)을 들은 사이 없이 들은 대중들은 한층 깊어진 신심으로 법문을 경청했다.

탄공 스님의 법문이 계속됐다. "각화사 주지로 있을 때, 15개월 간 15시간씩 가행정진 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수행했고 대승사에서는 3일전에 21일간 용맹정진을 마쳤습니다. 평소 여러분들은 하루에 잠을 얼마나 많이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부하실 때는 몇 번 까무러쳐야 합니다. 그래야 부처님 가피, 즉 공부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스님들의 뒤를 이어 더욱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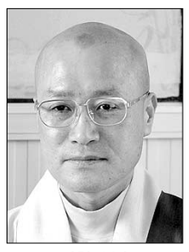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원천 스님은 "열심히 정진하셔서 참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라며 짧지만 간곡한 당부의 말로 법문을 마쳤다. 이어진 배송과 시식시간. 금강경 독송이 계속되는 동안, 종대 스님의 할(喝)이 한차례 법당을 울리며 대중들의 마음을 깨워놓았다.

부친의 49재로 이날 법회의 인연을 만든 대덕화 보살은 "바른 수행을 닦아오신 훌륭한 선원장 스님들의 법문으로 돌아가신 부친은 물론 많은 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린 법석이었다"고 말했다. 범어사 학인 보연 스님 또한 "제방 선원에서 공부하신 스님들의 수행에 대한 일심을 대하니 더욱 더 분발 정진해야겠다는 다짐이 절로 선다"고 말했다.

창원=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자하 스님 인터뷰

"수행·종합복지도량 가꿀터"


자하 스님

"이번 법회를 통해 대중들의 수행 열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선원장 초청법회, 육조단경 논강 등을 통해 수행 풍토 진작에 힘쓸 것입니다."

49재 회향을 선원장 초청법회로 대신하며 관심을 모은 서원사 주지 자하 스님은 앞으로도 참선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편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일곱 분의 선원장을 초청, 선원장 초청법회를 정식으로 열 계획"이라고 밝힌 스님은 조만간 시몽 스님의 <벽암록>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서원사를 승가와 재가 함께 수행하는 수행공동체로 가꾸기 위한 자하 스님의 노력은 각별하다. 참선, 기공, 명상, 불교교리, 참선법문, 발우공양, 다도, 포행정진 등의 프로그램을 갖춘 주말 수련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설 시민선방, 철야 참선 법회도 열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cafe.daum.net/seowonsa)을 통한 목요 사이버 법회도 개설했다. 특히 스님은 선방 노스님들이 거처할 수 있는 구참선원을 건립하기 위해 천일 기도 중이다. "서원사를 수행도량으로서뿐 아니라 치매병원, 요양원 등을 갖춘 종합 복지도량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사부대중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원사=(055)291-6405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다려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 을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 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진 합장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정신건강 돕는 종교별 수도 · 명상법

지구촌 명상바람이 매섭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명상인구가 성인 8명당 1명꼴로 집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웰빙붐을 타고 명상을 생활화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을 반영하듯, 명상의 본질을 각기 다른 색채로 표현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각 종교의 수도법이 생활 일반에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다.

"참나 찾는 禪 정신치유 효과 높다"

이러한 가운데 종교의 수도 · 명상법이 정신의 건강까지 지켜준다는 주장들이 제기돼 화제다. 지난 3월 27일 한국정신치료학회 주최로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수도와 정신건강' 세미나에서 정창용(대구 대동병원) 씨는 "선(禪)이 곧 정신치유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화두를 들고 자기 마음을 비추는 선의 경험을 통해 생각에 끄달리는 '자아'가 아닌, 모든 경계를 허문 '참나'를 알아차릴 수 있다"며 "이 같은 경험은 약화된 자아를 강화하거나 미숙한 자아를 성숙시키는 서양의 정신분석치료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의 체험이 전제되면 평소 자기라고 믿어왔던 통상적 '자기'가 하나의 투사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아에 집착하는 마음이 불성(佛性)과 같은 청정한 '一心'으로 회귀돼 정신적인 고뇌와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3월27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열린 '수도와 정신건강' 학술연찬회 현장. 이동식(동북 신경정신과의원)학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처럼 마음의 근본자리를 비추는 선은 노장사상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道)와도 닮아있다. 노장사상의 핵심인 '무위자연'을 얻기 위해 노자는 "마음을 비우고(致虛) 고요함을 지킬 것(守靜)"을 제시했으며, 장자 역시 "빈 마음과 고요한 마음으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일체를 잊어버리는 '좌망(坐忘)'"을 권했다.

노장사상 마음 비우고 집착 끊는 '좌망' 권해

유교 고요할때 자기 마음 관찰 '거경수련'

이죽내(경북의대 정신과) 교수는 "노자와 장자가 밝힌 수도법을 통해 인식 주체도 없고 인식 객체도 없는, 오직 '앎 그 자체'나 '함(爲) 그 자체'만이 존재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관이 객관의 대상에 갖는 주객이분 분별이 없어진 '무분별지' 상태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되면 "의식적 자아와 무의식적 자아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의 원인 중 하나인 자아의 갈등으로 인한 고뇌는 없다. 그 융합의 원형을 살려 청정심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같은 정신수양법은 유교 수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병탁(박병탁 신경정신과의원) 씨는 "불교와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은 성리학의 경사상(敬思想)에서 유교수도의 근간을 발견할 수 있다"며 "고요할 때 마음을 한결같이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용뿐만 아니라 움직일 때 외적사상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작용도 있는 것이 경"이라고 말했다. 일상에서 마음을 수양하는 성리학적 내적 수양법으로 알려진 '거경(居敬)'은 특정한 신체 자세에 한정되지 않아,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을 취하건 간에 모두가 거경수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주자(朱子)는 거경이 장자의 좌망(坐忘)이나 불교의 좌선(坐禪)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반면 가톨릭의 수도법은 마음을 절대자로 대치시킨다는 점에서 타종교와 차이가 있다. 가톨릭에서는 온전한 절대자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 최시영 신부는 "회개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세상의 생활방식과 단절하고 자신의 결점이나 상처 등과 만나는 과정"이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무조건적 용서와 사랑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요가잡지 나왔다

'요가 코리아' 창간…철학 · 동작 등 소재

국내 유일의 요가문화잡지 <요가코리아> 창간호가 나왔다.

(주)요가코리아가 3월 1일 발행한 <요가코리아>에는 요가관련 철학과 이론을 비롯, 직장인 3분요가 등 실생활에서 응용 가능한 요가 동작이 사진과 함께 수록됐다. 또한 명상음악, 차, 건강식, 아로마요법 등 웰빙 관련 정보도 선보이고 있다.

안지용(한국요가연구회 회장) 발행인은 "한국 요가 40년 역사에 요가를 제대로 다룬 정기간행물은 단 한권도 없었다"며 "급증하는 요가 인구의 욕구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잡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062)234-4718 www.yogacorea.com 강신재 기자

화엄경 치료명상에 응용

미술치료硏, 4월11·25일 특강

화엄경을 치료에 응용한 명상강좌가 열린다.

한국미술치료연구소는 4월 11일, 25일 '화엄불교와 심리치료(4월 11일)', '선명상의 치료적 적용(4월 25일)'을 주제로 오전 10시~오후 6시 특별 강좌를 마련한다. 심리 및 미술치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대승불교 보살정신과 치료자의 태도를 접목시킨 이론적 강의와 함께, 치료자와 내담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선명상 실습도 예정돼 있다. 강의를 맡은 전영숙(영남대학교 가족심리학과) 박사는 "서구 사상에 치우친 미술치료 이론과 기법, 그리고 치료자의 태도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화엄경에서 예술치료에 근간이 되는 체계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실제치료에 적용하는 강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53)472-3805 강신재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下)

공동체 회복에서 희망 찾아

"라다크에서는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인간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무엇을 느끼고 만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오래된 미래' 중에서)

지난 해 12월 8일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의 저자이자 생태운동가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Hodge) 여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도법, 수경, 지율 스님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불기 시작한 불교환경운동의 바람이 이 국 땅에까지 몰아친 탓일까. "세계화의 허구를 벗어나 '작은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연대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그녀의 방한 목적이었다. 호지 여사는 "한국은 서구사회에 비해 전통적 삶의 방식, 공동체에 대한 기억을 잘 간직하고 있는 만큼 아직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나라"라는 기대감도 나타내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기 호흡 들여다 볼 때

그녀는 잇단 국내 강연에서 순수한 공동체가 세계화로 인해 분열되어 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었다.

"히말라야의 오지 라다크에서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근대화 이후입니다. 대부분의 라다크인들이 불교를 믿지만 현대문명이 들어오기 전까지 소수의 이슬람교도나 기독교인들과 무리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문화가 유입되고 실업문제가 발생하면서 라다크인들은 어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다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세계화의 허구에서 벗어나 '공동체적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12월 10일 서강대 강연장에서 그녀는 "공동체적 질서의 회복만이 현대문명과 기존질서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치유할 수 있다"며 일방 통행식의 세계화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하루 전 서울 인사동 느티나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호지 여사는 "세계화와 경제개발은 상품의 대량생산을 가져왔고, 이는 보다 많은 실업과 보다 많은 에너지 손실, 보다 커다란 상대적 빈곤, 무분별한 에너지 개발로 인한 질병과 환경파괴라는 문제들을 만들어냈다"며 현대사회의 개발지향적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 갖춰야 할 몇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노래하고 일하며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자연과 더불어 숨쉬고 살아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현대인들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명상'을 제시했다. 특히 그녀는 "최근 많은 현대인들이 명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내면적인 평화와 행복을 찾는데 성공하고 있다"며 "현대문명 속에서 사람들은 보다 짧은 시간동안 보다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정작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순간은 두뇌활동을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들여다볼 때"라고 설명했다.

호지 여사는 지난 86년 환경분야의 노벨상에 버금가는 '바른 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을 수상했다. 현재도 일년의 반을 라다크에서 보내며 현대 산업사회의 토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등한 삶의 방식의 실현에 필요한 원칙을 모색하는 데 헌신하고 있는 그녀는 '에콜로지 및 문화를 위한 국제협회(ISEC)'를 설립하여 불교 생태운동을 이끌고 있다.

김재경 기자

제13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매년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신 분들을 찾아 포상하고 있사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수상대상선정기준		인원	상금
역경상	불전을 국역하거나 역경사업에 이바지 하신 분	3명	각 300만원
문학상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시, 소설, 국문학(희곡, 방송국, 시나리오 등)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루신 분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신 분(서화부분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 하신 분		

2. 구비서류
① 신청서 또는 추천서(지정양식) ····· 1통
② 이력서(명함판 사진 3장) ····· 1통
③ 공적서 및 증빙자료(최근 2년이내 실적자료) ····· 1통

3. 제출처 및 신청 마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재단 사무국 (우편번호 137-070)
☎ 02)586-6521~2 / FAX 521-9948
· 신청마감 : 2004년 6월 30일

4. 심사 발표 및 시상일
· 본 재단에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개별통지 및 불교관계 신문 발표
· 시상일 : 2004년 9월 24일 금요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 사무국 (02)586-652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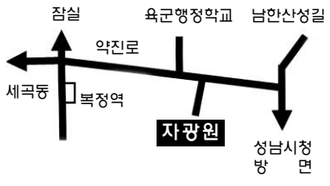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물 맑고 산 좋은 양수리
무궁화공원
▷ 서울에서 40분 거리의 편리한 교통
▷ 북한강이 보이는 명당의 산세
▷ 온 종일 비추는 일광조건
▷ 다양한 형태의 묘지설치
▷ 수도권 최고 저렴한 가격
▷ 이장 무료상담
상담전화 : 031-775-0114



주장자따라…

⑭ 혜암 스님의 '석유 한사발'

조태호



혜암 스님(1885~1985): 황해도 백천군 生. 11세에 수락산 흥국사로 출가. 성월 · 만공 · 혜월 스님 등에게 가르침 받음. 덕숭총림 초대방장 역임.

네티즌 교리문답

"공 · 무아 · 무심은 어떻게 같고 다른가?"

문 공(空)과 무아(無我)와 무심(無心)은 어떻게 같고, 혹은 어떻게 다른가? (ID '우매')

답1: 무아가 집착을 끊게 하려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면 공의 개념은 집착하는 마음까지도 진리 그 자체로 보는 것이다. 무아란 것도 유아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절대의 무를 의미한다. 무심도 마찬가지다. 한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아(我)가 배제된 행위이다. 무아와 공과 무심은 유기적인 하나라서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다. (ID '무아')

답2: '공'은 아무 것도 없는 텅빈 상태를 말한다. '무아'는 '나'라고 할만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무심'은 마음의 작용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사람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가짜가 진짜 행세하게 되니 무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ID '세등')

답3: 공-무아-무심을 체험하는 방법은 우주를 비우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대의 마음속에 든 모든 상념을 비워버리면 된다. 우리가 늘 보아왔던 과일들은 보는 즉시 그 이름이 떠오른다. 이미 상념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생전에 처음 보는 것은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굳어진 상념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비워 보라. 스스로 알 것이다. (ID '법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㊳

불립문자(不立文字)-11

앞의 글에서, 세상의 통합성, 즉 불이적인 이치에 대한 내면의 체험은 언어로는 온전하게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예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유마힐(維摩詰)이 무생법(無生法)에 대해 침묵으로 설법한 것이 유명한 한 예이다. 그 자리에 있던 청중 5천 명이 그 침묵의 설법을 듣고(?) 무생법을 깨쳤다고 한다. 석가모니의 경우에도 그 유명한 염화시중(拈華示衆)의 설법 이야기가 전해진다. 말 대신에 몸짓으로 설법한 셈이다. 그 설법을 가섭이 알아듣고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는 언어문자를 통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심지어는, 언어문자를 통하지 않아야 제대로 전달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언어문자는 전하려는 내면의 체험을 온전하게 담지 못하며 왜곡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말과 문자가 얼마나 여러 가지인가? 어떤 하나의 언어로 말한 것을 가지고 다른 언어로 옮길 때에 또 한번 대대적인 왜곡이 일어난다.

언어 받아들여지는 차이 있어

첨삭가필되며 종교역사 형성

부처님은 원음(圓音) 즉 완벽한 소리로 설법을 하였기 때문에 청중이 잘못 알아듣는 일이 없었고 심지어 개미나 벌 같은 미물들도 다 알아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언어의 한계를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의식이 거기에 깔려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는 결코 모든 중생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원효대사가 어느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원음으로 설법한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제각각 이렇게도 이해하고 저렇게도 이해하여 서로 다른 주장이 난무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양한 주장들의 취지와 의의, 시비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다. 그 작업이 바로 화쟁(和諍)이다.

후대의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온 매체는 경전이다. 불교 경전은 석가모니가 입적한 직후 제자들이 모여서 글로 적어서 만들었다고 한다. 석가모니 생시에 늘 바로 옆에서 수행하며 그 언행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아난(阿難) 존자가 구술하는 것을 오백 명의 아라한이 받아 적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의 첫 구절인 여시아문(如是我聞), 즉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구절에서 '나'라는 이가 바로 아난이다. 하지만 문헌학에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불교의 경전이 다 그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수백 년에 걸쳐서 각자 다른 때에 만들어졌다. 일단 만들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첨삭가필 되었다. 심지어 가장 초기의 경전이라는 빨리어 경전 가운데에도 어떤 것은 서기 5세기에 와서야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전의 문구 가운데 얼마만큼이 석가모니의 육성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경전을 불신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숱한 사람들의 손을 타고 우리에게 전해진 경전은 불교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전하려는 그 사람들의 노고를 담고 있어서, 그 자체가 고스란히 불교라는 종교의 역사를 형성해왔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64〉



견고해탈 장자의 법문

집착 · 망념 버려 견고한 해탈 성취

청정심 지니면 어디서든 정법 실현

선재동자는 현승우바이로부터 남쪽의 '비옥한 밭(沃田)'이라고 하는 성(城)에 있는 '견고한 해탈(堅固解脫)' 장자를 찾아가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물으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 성에 이르러서 장자에게 나아가 예배하고 나서 법을 설하여 주기를 청하자, 장자가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집착하는 생각이 없는 청정한 장엄(無著念淸淨莊嚴)'이다. 나는 이 해탈을 얻고부터는 시방(十方)의 부처님 계신 데에서 바른 법을 부지런히 구하여 쉬지 아니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집착하는 생각이 없는 청정한 장엄해탈을 알 뿐이니 저 보살마하살들이 두려울 것 없음을 얻어 크게 사자후하며, 넓고 큰 복과 지혜의 무더기에 편안히 머무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견고해탈 장자의 법문은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매우 간략하다. 부처가 출생하는 법을 설하는 마야 부인에서부터 미래에 실제로 부처님이 되실 미륵보살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있는 열 사람의 선지식의 법문은 거의 모두 간략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 까닭은 이 열 사람의 선지식들이 모두 부처를 출생시키는 법(法)만을 강조해서 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재동자는 이를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여야 할 법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수습(修習)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견고해탈 장자가 설하고 있는 '집착하는 생각이 없는 청정한 장엄해탈'의 법문은 반야의 무상지혜(無相智慧)로써 모든 법을 장엄하여 일체법(一切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집착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문은 일체의 법에 대해서 정념(正念)을 수립함을 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견고해탈 장자는 정념이 확립되어 그릇된 관념이나 인식도 없고, 어떠한 마음의 혼탁함도 없다. 이와 같이 이 장자가 얻고 있는 해탈이 일체의 소지장(所知障)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집착이 없다(無著)'고 하고, 번뇌장(煩惱障)을 떠나 있기 때문에 '청정(淸淨)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장자는 이렇게 해서 이미 견고한 해탈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 장자의 이름이 '견고해탈'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집착하는 생각이 없는 청정한 장엄해탈'의 법문이 그대로 '견고한 해탈'이 되는 것이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과 망념(妄念)을 버리기만 하면 곧바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이 장자의 법문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해탈을 얻고부터는 시방의 부처님 계신 데에서 정법(正法)을 부지런히 구하여 쉬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집착이 없는 청정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곧바로 아무 곳에서나 부처님의 정법을 부단히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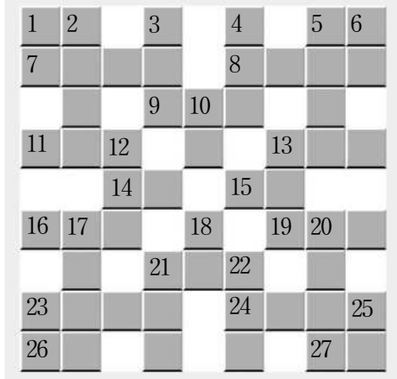
우리가 시방세계의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정법을 부단히 행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까닭은 무량무수한 집착과 망념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일체의 경계에 대해 집착하여 거기에 사로잡히고, 온갖 허망한 생각에 스스로 도취되어 허우적거리느라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집착과 망상을 버리기만 한다면 깨달음의 세계와 부처님의 세계가 즉시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이다. '시방의 부처님 계신 곳에서 정법을 부지런히 구하여 그만두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항상 정법에 수순하여 진실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 외에 또 다른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견고해탈 장자가 살고 있는 성의 이름이 '비옥한 밭(沃田)'인 것은 집착과 망상을 버림으로써 지혜와 덕을 갖출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법(善法)을 자라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집착과 망상이 없는 청정한 마음은 한없이 자유롭고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마음이다. 어떠한 특정한 모습을 가지는 일도 없이 이런 저런 경계에 따라 여러가지 모습을 나타내면서 자연스럽게 순응해가는 마음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유마경에서 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정한 마음이 온갖 진실한 법을 낳는 도량이 되는 것이다.

이른바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부처를 이룬다고 하는 의미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집착을 그치고 망념을 버리면 그대로 깨달음이 실현되고 부처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다. 화엄경 이세간품(離世間品)에서 수행을 통하여 갖추게 되는 부처님의 특징적인 덕성을 열 가지의 부처(十佛)로써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로 '세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각을 이루는 부처(安住世間成正覺佛)'를 '집착함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견고해탈 장자의 법문과 서로 통하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불교의 연대 표시 방법 5. 도읍 둘레에 둘린 성곽 7. 고집멸도에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득고, 오음성고의 4고를 더한 것 8. 마음이 곧 부처 9. 일상의 경계로 삼는 말이나 글 11. 수라간과 의녀인 장금을 소재로 한 드라마 13. 불도를 깨닫고자 발원하는 마음 14. 혼인에 관한 일 15. 위험이 닥쳐올 때 경계하도록 알리는 일 16. 주지 취임식의 다른 이름 19.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 21. 큰 스님이 법좌에서 깨침을 주기 위해 내리치는 것 23. 영화관 등에서 아침일찍 물건을 사면 할인해주는 것 24. 특정한 학문이나 일에 대하여 깊이 알고 있는 지식 26. 궁전과 누각 27. 뜻이 같은 사람끼리 모인 단체.

세로 1. 절을 세우고 불상을 모시는 등의 일 2.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기세가 대단함 3. 높은 스님을 모시고 설법하는 큰 법회 4. 중국 선종(禪宗)의 제3조(祖) 승찬(僧璨)이 지은 책 5. 지자체에서 주거 · 상업 · 산업 · 유통 · 정보통신 · 생태 · 문화 ·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 6. 부처가 됨 10. 암소의 젖 13. 어떤 일을 처음하는 사람 17. 아주 잘게 부서지거나 깨어진 여러 조각 18. 기업의 대표이사를 흔히 부르는 말 20. 기와로 이은 지붕 21. 사건, 또는 소설 · 연극 · 영화 따위의 중심인물 22. 사람이 올라타고 두 발로 페달을 밟아 바퀴를 돌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것 23. 발인(發靷)하기에 앞서 영결(永訣)을 고하는 제사 25. 음식을 만들어 파는 가게.

윤회를 알고싶다면 티베트로 가라



뷰티풀 티베트여행

이태훈 지음
다른세상/1만6천원

하늘을 향해 투박한 손을 치켜 들며 '오체투지' 하는 티베탄.

하늘아래 첫 동네인 티베트는 여행자들 사이에 발 한 번 디디기에 까다로운 곳으로 통한다. 직항로도 없거니와 땅이 척박해 이동수단도 힘들고 더욱이 중국 공안의 허가증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왜 티베트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4천미터 고지에 위치한 티베트, 라다크, 네팔에 살고 있는 '티베탄(티베트인)'들을 만나러 간다. 물론 여행자들은 방문할때 제각기 여러 목적을 갖겠지만, 굳이 공통점을 말하자면 오지의 척박한 땅에 사는 티베탄들의 진한 삶의 향기에 이끌려 온다는 것이다.

<뷰티풀 티베트 여행>을 쓴 저자 이태훈(스포츠 서울 기자)씨도 이런 이유로 티베탄들이 있는 티베트와 라다크, 네팔로 향했다. 저자는 태어나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티베탄들이 이생(生) 자체가 다음 생을 준비하는 수행과정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에 큰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책 속에는 사진이, 사진 속에는 사람이 무진장 등장한다. 이 티베탄들의 표정은 어쩜 이토록 맑고 환하며 평온한 것인가. 티베탄들의 아름다운 '살인미소'에 이 나라들을 직접 가보지 않은 독자들마저 말없이 고개 숙이게 만든다. 아마도 윤회의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그 답은 여기에 있다. 일상과 한몸인 종교. 두 팔꿈치와 두 무릎과 머리를 땅에 대는 '오체투지'로 부처 앞에 나아가는 저 숭고한 의식에서 윤회는 구체적 실체로 잡힌다.

지은이의 여정대로 세 부분으로 나눠 소개돼 있는 티베트, 라다크, 네팔을 요약했다.

삶에 스며있는 느림…여유…

#1 티베트

티베트에 새벽이 찾아오면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향 연기가 마치 안개처럼 거리를 메운다. 또한 티베탄의 정신적 지주인 조캉사원 앞은 '옴마니반메훔'을 읊조리며 마니차를 돌리고, 오체투지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무엇이 이들을 독실한 불자로 만든 것일까?

티베트 불교는 닝마파, 카규파, 샤카파, 게룩파 등 크게 4종파로 나뉜다. 이들 종파는 선의의 경쟁을 하며 티베트 불교를 발전시켰다. 인도에 망명한 17대 카르마파는 닝마파의 수장이고, 14대 달라이라마는 게룩파의 수장이다. 정교합일, 즉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연결돼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 실권자로서 나라를 이끌어 가는 독특한 정치구조 속에서 달라이라마는 곧 티베트의 정체성을 대표한다.

이 생에서 쌓은 업(業)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속에서 하루하루 영혼을 맑게 정화시키면서 살아가는 티베탄의 삶은 거북이등에 올라탄 사람들처럼 느림과 여유로 무장하고 있다. 혹한과 초라한 집과 몇가지 뿐인 먹거리에도 불구하고 티베탄은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차 있으며, 두려움도 욕심도 없다. 이런 순수한 열정이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오체투지를 가능케 한다.

티베트는 1950년 중국의 침략으로 시짱이라는 중국의 한 자치구가 됐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중국말을 사용해야 하고, 티베트어는 마치 외국어처럼 배우는 슬픈 현실을 안고 살아간다. 또한 티베탄의 정신과 행동은 티베트 불교를 파괴하려는 중국의 감시 속에 철저히 유린되고 있다.

불심으로 가득한 공동체

#2 라다크

지금은 인도에 속하는 라다크는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에 있던 번성한 왕국이었다. 티베트 불교를 믿는 티베탄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라다크는 수도였던 '레'를 중심으로 '곰파'라고 불리는 사원들이 높은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티베트의 사원들과 별 차이는 없지만 대부분이 산마루나 그 언저리에 있는 것이 다르다. 고지에다가 고산들로 둘러싸인 라다크는 기후가 혹심하고 자원 또한 빈약하지만 천년 이상의 삶을 이어왔다. 그 힘은 바로 공동체적인 삶에 있다. 그래서 라다크는 가난하지만 거지와 도둑이 없고, 시기, 질투, 성냄, 이기주의 등을 찾아볼 수 없다. '작은 티베트' '서쪽의 티베트'라는 별칭답게 티베트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부처를 향한 불심이 마을을 가득 메운다.





왕궁을 배경으로 서 있는 네팔인(사진 위), 조캉사원 옥상에서 본 달라이 라마의 겨울궁전인 포탈라 궁.

중세도시에 온듯 착각 일으켜

#3 네팔

네팔은 히말라야의 8천미터급 고봉 14개 중 9개가 있는 고산의 나라다. 16세기초 동(東)티베탄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로 들어오게 됐다. 네팔에는 셰르파족들이 많은데 해발 4천미터에 살고 있는 셰르파 마을 풍경은 마치 우리 시골같다. 주식은 쌀과 감자며, 쟁기와 소로 밭을 갈고, 장손이 부모를 모신다. 게다가 남아선호사상도 뿌리가 깊다. 또 마을 공동체가 발달해 범법행위를 하면 곧바로 마을에서 추방당한다.

네팔의 수도인 카투만두는 여러 종족이 모여 살고있으며, 네팔의 국교인 힌두교 사원이 많다. 또한 몽키사원이라 불리는 네팔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도 만날 수 있다. 이 불교 사원 내부에는 힌두사원도 함께 있어 네팔의 독특한 사원 분위기를 접할 수 있다.

카투만두 곳곳에는 오래된 왕궁과 사원들로 가득차 있어 중세 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하얀 만년설의 위용을 열어보인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산. 오른쪽 사진은 라다크의 체모곰파.

전문가 서평



일의 즐거움

다나카 고이치 지음/하연수 옮김
김영사/9천9백원

2002년 노벨상위원회는 화학상 수상자로 일본의 평범한 샐러리맨인 다나카 고이치를 선정했다. 이 소식은 곧 언론을 통해 급물결을 탔고 일본인은 물론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과거 수상자들의 화려한 이력에 견주어 다나카는 너무도 평범한 소시민이었기 때문이다. 수상 소식을 전해 들은 다나카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

이 일로 다나카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고 이후 반년 동안 그의 생애 중 가장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 후 연일 계속되는 강연과 인터뷰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없어 지난해에는 엔지니어 복귀를 선언해 또한번 세인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일의 즐거움>은 학사출신이자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다나카 고이치의 자서전이다. 이 책에는 한 기업의 말단 연

일상을 확 바꾸는 화두 '도전'

노벨화학상 받은 日 샐러리맨의 자서전

구원으로서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의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연구원으로 일하던 보람, 다나카 자신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나오는 원천 등을 담았다. 또 노벨상 수상에 이르기까지의 활동 경위와 그 발견이 일반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도 들어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다나카의 성공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보여준 전형적인 예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취직 시험에서도 떨어진 악조건의 인물이지만 자신이 너무도 좋아하는 실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을 즐기며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업적을 추켜 세우는 세인들에게 다나카는 이 책에서 "독창적인 능력은 대단히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독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그는 시마즈제작소의 연구실에 들어가면서 '질량분석'이라는 화학실험에 몰입하게 된다. 다나카는 우연찮게 분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소프트 레이저 이온화법'을 개발한다. 그는 '우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빚은 '필연'이었다. 또한 자신의 위치나 승진에 대한 명예욕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던 것도 성공의 비결이었다. 여기에 설혹 이상한 실험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식에 얽매이거나 그 결과를 놓치지 않는 겸손한 연구정신도 쾌거에 일조했다.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나에게 이 책은 새로운 도전정신을 심어 주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다나카가 남긴 "나는 모르는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웠다. 40대가 된 지금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자극적이고 즐거운 경험"이라고 털어놓는 이 문구를 회사 책상 앞에 붙어 놓으며 내 자신을 가다듬었다.

■ 안서정(하나로통신 고객영업부 팀장)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연분을 찾고 계신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투병중인 분
❖구직을 원하시는 분
❖고시준비 하시는 분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참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금강염주를 방이나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광선, 음이온등이 발산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무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며 도심의 좋지 않은 공기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건강을 도와드립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 있는 세계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氣가 발산하는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일념무아 하면 부처님 가피로 고시준비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분은 뜻을 이룰수 있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육 법 등(六法燈)

의장등록 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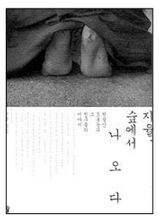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천성산에 흘러내린 땀과 눈물

지율, 숲에서 나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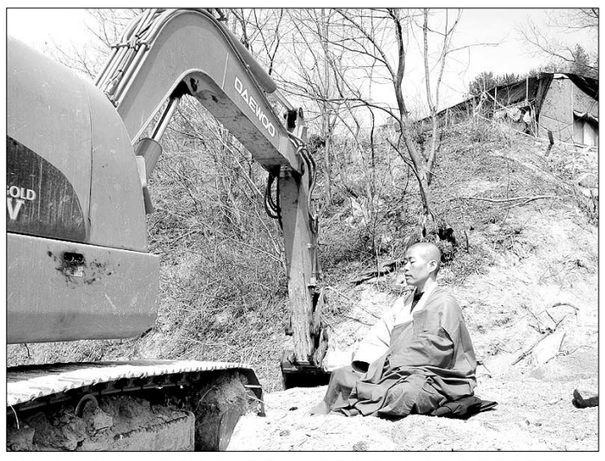
지율 스님 지음
숲 / 8천5백원



부처님은 숲에서 태어나 숲에서 깨달음을 얻고 제자들을 가르치다 숲에서 열반에 들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서원한 제자들 역시 숲 속에 절을 짓고 정진해왔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제자 지율 스님은 왜 '숲을 나온' 것일까?

"처음에는 모두가 땅을 파헤치고 가만히 두지 않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산을 아픔에 울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회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해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문제를 제기하며 38일과 45일에 걸친 두 차례 단식기도를 한 스님.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도롱뇽을 법정에 세운 스님. 내원사 산감(山監)



2004년 봄, 천성산 벌목 현장에서 지율 스님은 자연 파괴의 현장을 온몸으로 막아 내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고속철 관통저지 단식일지 · 생명철학과 도롱뇽 친구들이 보낸 그림엽서 담아

지율 스님이 지키려 하는 산은 바로 천성산이다.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이자 4㎢가 넘는 청정 계곡 12곳, 희귀 고층 습지 22곳, 법정보호동식물 30여 종 이상을 품고 있는 도립공원 천성산 말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994년 고속철도공단이 제출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야생 동식물은 없음'이라는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관통허가를 내주었다. 이것이 스님이 숲을 나서게 된 시작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 시작은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10분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 다른 생명의 소중함에 눈감아 버린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숲을 나온 스님은 지난 한 해를 모두 천성산 살리기를 위해 쏟아 부었다. <지율, 숲에서 나오다>는 그 치열했던 일 년 간의 기록이다. 책의 1부는 두 번째 단식기도 중에 스님이 쓴 '단식일지'다.

"이 무상한 육신을 버려 천성(千聖)의 많은 생명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저잣거리에 나가 몸과 목숨을 내놓겠습니다."(천성의 품을 떠나며)

"산을 떠나 오기 전 상처 입은 인연으로 만난/ 소쩍새 새끼를 놓아주면서/ 약속했습니다/이 다음에 네가 자라서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도록/ 천성의 숲을 지켜 줄게 하고"(마흔다섯 째 날 '희망 버릴 수 없는 아픔')

2부 '초록의 공명'에는 천성산 홈페이지(www.cheonsung.com)에 올린 스님의 글과 사진이 실려 있다. 스님은 '작은 풀의 안부'를 묻고, '풀벌레 울음소리에 귀기울임'으로써 생명을 잃고 죽어 가고 있는 산과 강과 하늘을 마음의 뜰로 옮길 수 있고, 스스로 그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밖에 초등학생과 농부, 교수, 수녀, 시인 등 천성산 살리기에 힘을 보탠 사람들의 글과 그림엽서 100여 장도 볼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개발'에 밀려 사라질 '생명' 잊지 마세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천성산의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해 걸어온 생명운동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지율, 숲을 나오다>를 펴낸 지율 스님(사진)은 책을 통해 또 한번의 생명운동을 하려 한다. 출간을 망설였던 스님은 "책을 읽고 천성산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 하나로 책을 펴낼 용기를 냈다.

하지만 책을 펴낸 시점이 도롱뇽 소송 법원 판결을 코앞에 둔 데다, 천성산 자락의 벌목이 시작된 직후라 마음이 무겁다. "벌목 현장에 앉아 쓰러져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 살려달라고 했던 천성산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는 스님은 살려주겠다고 했던 첫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을 통한 투쟁'을 얘기한다. 투쟁이라는 다소 낯선 단어 뒤엔 스님의 절박한 심경이 묻어난다.

요즘 스님에겐 책을 읽는 사람들의 관심과 의지가 천성산을 살리는 대중의 힘으로 결집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도롱뇽의 친구가 되어주었듯, 책을 읽으며 개발의 이름으로 사라져갈 많은 생명들을 한번쯤 떠올리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 천성산 숲



을 떠나온 나의 얘기가 많은 이들을 자연의 품으로 복귀시키는 힘이 되길 바란다"는 스님은 4월 9일 부산에서 출판기념법회를 열 예정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불교신행공덕

마성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 5천원



내게 맞는 신행법 찾아보자

마산 가야사 주지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이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을 돕기 위한 책 <불교신행공덕>을 펴냈다. 지난 2001년부터 2년간 월간 <불광>에 연재했던 원고들을 보충해 책으로 엮은 스님은 "이 책은 자신의 믿음과 실천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나침반"이라고 말한다.

책에서는 예불, 공양, 참회, 염불, 보시, 채식 등 25가지 신행의 공덕을 소개하며 불교를 믿고 따르면 어떤 공덕이 있는지, 나에게 맞는 신행법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별 의미 없이 행했던 의식은 물론 '이런 것에도 공덕이 있을까' 하고 간과하고 있었던 다양한 불교신행법과 그 공덕을 자세히 소개한다. **여수령 기자**

불교미술은 왜?

한국 불교미술 연구

장충식 지음
시공사 / 3만5천원



불교미술사학계의 원로인 장충식(63)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가 30여 년에 걸친 학문 활동을 모은 단행본 <한국 불교미술 연구>를 냈다. 책에 수록된 글은 그동안 발표한 한국불교미술 관련 전문 논고 50여 편 중 20편을 1차로 선정한 것이다.

책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한국 불교미술 각 분야에 관한 논문을 조각과 석조건축, 회화, 공예를 비롯해 사경(寫經), 금석문 등의 6장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20편의 논문은 각기 하나의 완결된 글로 쓰여 졌지만 책에서는 '불교미술'이란 큰

30년간 쓴 연구논문 50편 중 조선후기까지 20편 엮어 의문점 해결 과정 '눈길'

테두리 안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형성한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논문을 집필할 당시에는 각각의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 하나의 연관 속에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불교미술이 지닌 융합성에서 이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1장 '불교조각: 오랜 물음에 대해'에서는 1963년 7월16일 경남 의령군 대의면 하촌리에서 발견된 '연가7년명(延嘉七年銘) 금동불상'의 명문(銘文)판독 오류를 지적하며 제작 연대인 '기미년'을 기존의 479년이 아닌 539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2장 '석조건축: 건축의장의 재해석'에서는 석조계단의 성격과 기능을 살피고, 1972년 해체 복원된 경북 선산 죽장사 모전석탑(국보 130호)이 잘못 복원됐음을 지적한다.

이 밖에도 경남 선산군 해평면 도리사 금동사리구(국보 제208호)가 공개되기까지 과정과 최근 김천에서 출토된 미륵암 시장군비(柴將軍碑)의 주인공인 시장군이 삼국통일 전쟁에 당군 일원으로 참여한 당나라 장군임을 밝히고 있다. **여수령 기자**

본래 佛로 가는 길 열려요

법화경 해설서 낸 임채수 씨



"부처님 진리의 요체를 담고 있는 <법화경>을 통해 불(佛)의 진면목을 바로 알고 불의 여여한 경지를 이루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임채수 법화사상연구소 소장(69 · 부산불교신도회 고문 · 사진)은 최근 <법화경> 해설서 <산은 흐르고 물은 서 있네>를 펴내며 이렇게 밝혔다. '희장(喜藏)이 쓴 법화경 실상세계'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20여 년 동안 <법화경> 연구에 받쳐온 임 소장의 삶과 원력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산은 흐르고 물은 서 있네

임채수 역해
우리출판사 / 9천원



"<법화경>으로 인해 정법을 만났고, 삶의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찾게 됐다"고 밝힌 임 소장은 '법화경 강의'로 더욱 유명하다. 김해교도소 수인들을 위해 6년째 이어온 강의는 물론 1년 6개월 동안 70회에 걸쳐 <법화경> 28품을 모두 강의하기도 했다. 강의 회향 후 강의 내용 녹음테이프 신청이 줄을 이었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책이 나오자마자 전국의 도서관, 교구본사, 강원, 동국대 등에 법보시를 하며 책 출간의 의미를 더하고 있는 임 소장은 "<법화경>의 일승사상을 이해하면 중생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본래 불로 되돌아가는 길이 열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다 깊이 있는 불교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을 위한 바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한 임 소장은 "조만간 일본판도 출간할 예정이며 책과 강연으로 포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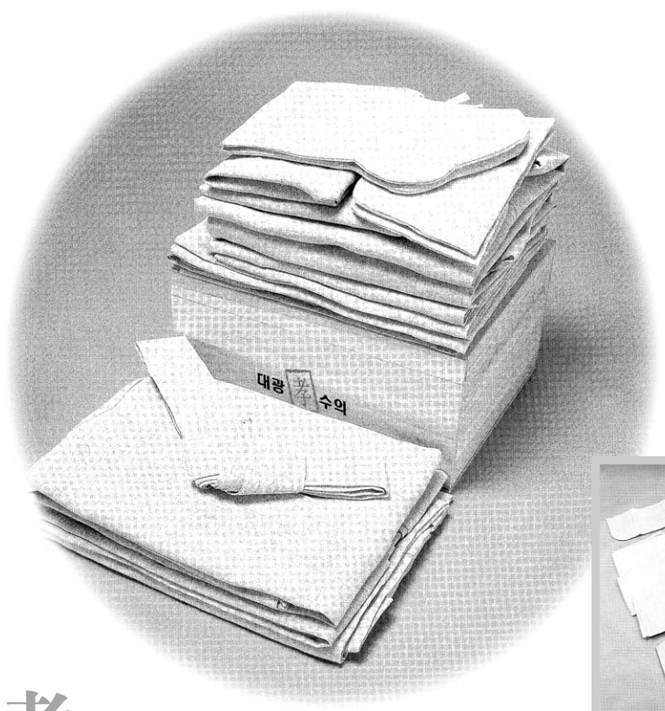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백일법문	성청 스님	장경각
2	아! 붓다	틱 낫 한	반디미디어
3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림
4	불교의 이해와 신행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5	수행의 단계	달라이 라마	들녘
6	대승입능가경 외	동국역경원 편집부	동국역경원
7	밥상에 도가 있다	정세채	모색
8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9	화두참선	이계묵	우리출판사
10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孝]수의로 하세요

갑신년 윤달 수의 특별가로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사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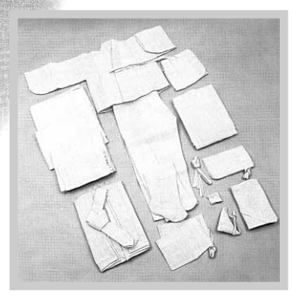


대광[孝]수의를 구입하시는 모든분께
성묘용 제기세트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수의 가격표

상품명	재질(성분)	원사가공지	판매가격
국화1호	삼베100%	경북안동지역	1,515,000
국화2호	삼베100%	강원일부지역	1,395,000
국화5호	삼베100%	경남남해지방	1,249,000
국화7호	삼베100%	충남서천,홍성지방	950,000
특 1호	삼베100%	중 국	670,000
보성삼베	대마+저마	전남보성지방	1,450,000
남해삼베	삼베100%	경북남해지방	2,345,000
안동삼베	삼베100%	경북안동지방	4,300,000

윤달3월 21~4월 20일 원하시는 날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 주문 받습니다.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Q마크 획득



孝 대광수의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02)2275-8075, 2279-7450 FAX. 02)2272-6715

세시풍속 <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덤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습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데,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으신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생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대광[孝]윤년수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1) 믿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여유있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혼합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고가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으나 금년 윤달에 "대광"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막상 큰일을 당하여 급한 나머지 아무 수의나 입혀드린 후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고품직의 수의를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큰일을 당하여 경황없는 중에 저가품의 수의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시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것은 현재 유통의 문제점입니다.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적정한 시기 윤달에 구입하시는 것은 이런점들을 고려해 볼때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3) 금번 윤년 "대광상사"에서는 좋은 삼베만을 골라 한올한올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맞춤 바느질한 제품을 그 동안 대광 삼베를 성원해 주신 보답으로 불자님 여러분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4) 수의의 옷감은 자연섬유로만 사용하여야 매장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년만에 윤달이 가장 좋은 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길년에 효도하시고 고품질에 수의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어 두가지의 행운을 함께 하십시요.

윤년에 수의를 준비하시는 불자님에게는 오동나무 상자를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채상희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언어도단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함이… 〈상〉



그림 · 김흥인

빗장뼈 산산조각 난 아들 수술 성공률 20%

"부처님 살려주세요" 일심으로 다라니 주력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경전등의 해석은 여러 큰스님들이나 학계의 교수님들의 영역이라 사료 되어 감히 언급을 피하고자 합니다. 오로지 부처님을 믿으며 사랑하고 기도 정진하는 불자로서 그 동안 살아 오면서 알게 모르게 입은 부처님의 무장무애한 가피력을 진솔하게 여러 불자님들에게 알리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히 몇 자 적어 봅니다.

혹여 제가 너무 무속적인 가피력 위주로 몰고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모든 종교의 근본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기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우리 인간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며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한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는 초보적 단계의 종교생활이지만 대부분의 시작은 그곳에서 전개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의 공부는 자신의 근기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 제게 무수히 많이 일어난 가피나 느낌을 어떻게 하나 하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일어난 순서대로 자세히 이야기 하려 합니다.

저의 큰 아이가 태어난지 6개월 전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저의 남편과 함께 어느 사찰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던 날이 장날인지 그 날 바로 그 곳 주지 스님께서 열반을 하셨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님을 언덕 위 동굴에 안치하여 놓으셨다고 하시며 그 곳을 엄격히 통제 하셨습니다. '아니, 평상시도 아니고 스님께서 열반을 하셨다는데 그냥 가면 되겠어? 인사라도 하고 와야지'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 동굴 안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서니 돌아가신 스님께서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어! 스님께서 돌아가셨다더니…거짓말인가? " 하고 보니 그는 다름 아닌, 6개월 된 제 아들이었습니다.

"얘는 서울 집에 내가 두고 왔는데…너 왜 거기서 나오니"하며 아이를 받는 순간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는 듯 크게 "꽝"하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깨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기절하여 까무라 칠 것 같았습니다.

배밀이를 한창 하던 아이의 머리 옆 ,벽에 걸어 놓은 전지 크기의 액자가 떨어져 시멘트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액자는 유리 하나 깨지지 않았으며 아이는 그대로 편안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 날수 있을까요? 만약 조금만 옆으로 떨어졌더라면, 아이의 머리는….

저는 벌떡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곧 "관세음 보살"을 염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으오리까 라며.

저의 신앙 세월은 계속되었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던 3월 2일! 또다시 시련이 다가왔지요.

아이는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하였는데 그날은 사부님과 겨루기를 하다가 다쳐서 빗장뼈가 산산조각이 나서 살을 뚫고 나오는 커다란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오른쪽 어깨가 축 늘어져 있으며 아파서 죽을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 세상에 이럴수가… 아이는 곧바로 삼성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살을 뚫고 튀어 나와 형언할 수가 없었지요. 의사들은 아이를 꽁꽁 묶어 놓고는 수 차례 의논을 하더니 수술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튀어 나온 뼈 때문에 그대로 두면 살이 썩어 들어 가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하면서요. 허지만 수술만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후 세상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 뼈와 뼈들을 볼트, 너트로 연결한 후 두달 후에 다시 재 수술을 하여 빼어 내는데 80%정도는 뼈가 붙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였으며 이 아이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공할 수 없는 수술을 하여야 하며 하지 않으면 살이 썩어 들어 간다니… 세상에 이러한 날벼락이 어디에 또 있으랴.

"부처님, 살려 주세요. 부처님, 살려 주세요."

제 목숨과도 같은 아이를 위해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울며 불며 전 '신묘장구 대다라니' 를 밤새워 지송하였으며 눈물에 콧물에 기진맥진하며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 알약…' 살려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새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도와 주세요. 엉엉 울어 가며 염불 아닌 염불을 하였습니다.

전 집에서, 아빠는 병실에서… 우리 두 사람은 오직 일념으로 큰 아이를 살려 달라고 부처님께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수술 시간인지라 의사들은 아이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실로 데리고 들어 갔습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하느님도 다 좋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제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요, 피가 타들어 가는 그 많은 시간들을, 어째서 제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옵니까?

보호자 대기실에 우린 나란히 앉아 다라니 염송을 하였으며 그러던 중 비몽사몽간에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더니 너무나 불쌍하시다는 듯 저를 쳐다보시고는 지나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하〉



박선식

광명사 의료기 대표

진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믿음은 지금도 여전하다. 모든 종교 안에 진리가 있고, 이를 표현하거나 궁구하는 양식에 있어서 종교적 틀이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각각의 종교적 전통들을 존중하며 나름대로 효율적인 수행법으로 생각한 화두를 들어 참선을 해오고 있다.

간화선(看話禪)의 대표적인 '무(無)' 자 화두를 들면서 보냈던 처음 1~2년의 세월 속에 종교의 제도적인 틀에서 겪는 소외를 전혀 느끼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해 가며 '무' 자와 하나가 되려고 참선정진을 하니 의심이 사라지고 차분한 마음자리가 잡혀 일상 속에서 느끼는 혼란들이 반감되고 있음을 확실히 체험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화두를 처음 들어 정진할 때는 대단한 진리를 깨달아 높은 수준의 정신력을 갖추어 세상을 관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다. 하지만 반복된 입실(入室, 1대일 지도

'無' 字 화두는 일상이며 욕심버리는 일

"놔 버려라" 되뇌이며 하루 일과 시작

점검)을 통해 다듬어지고 점차 올바른 수행의 길을 알게 되자, '무자' 그것은 바로 나의 일상을 말함이요, 헛된 욕심을 버리는 일이며 단순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임이 보다 명백해졌다.

무자 화두에 대한 설명으로 유명한 무문혜개 스님의 평창(評唱, 해설) 서두를 보면, "선을 참구하려면 조사의 관문을 꿰뚫지 않으면 안된다(參禪須透祖師關). 깨달음을 얻는데는 심로(분별심)가 끊어지는 것을 궁구하지 않으면 안된다(妙悟要窮心路絶)" 라는 구절이 있다. 이러한 심로를 끊어 즉심(卽心)에 드는 것이 바로 수행이며 정진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무자 화두를 들어 정진하는 자세는 그리스도교 수도원에서 행하는 구도행과도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필자는 청년기에 살레시오수도회 수도자였다). 한 예로서 14세기 영국의 영성을 대표하는 책자 <무지의 구름>을 잠깐 소개한다.

<무지의 구름>은 수도원에서 수련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서적으로, 신에 대한 지향을 종전의 경향과는 달리 '부정의 길' (Via negativa)에서 찾고 있다. 즉 절대자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존재하는 불가해적 존재이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신을 알 수 없다. 단지 창조주의 속성인 사랑 안에 거할 때 신의 은총에 힘입어 창조주와 합일된다고 보았다. 예컨대 책자 70장에 "본성적인 이해를 중단할 때 더없이 흔연하게 영적 지식에 도달될 수 있듯이 영적인 이해를 중단할 때 은총을 통해 가장 높은 신의 지식에 도달한다"라고 쓰여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의 중단'이 바로 '심로절(心路絶)'과 같은 의미이며, 무자 화두에 참(參)하는 기본 자세로 이해하며 정진하고 있다.

깨달음(enlightenment)은 실재의 본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에 도달함으로써 실존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어떤 체험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적인 헤아림과 분별심에 빠지는 것은 심로를 끊지 못하여 더욱 혼란 속에 자신을 빠뜨리는 결과가 된다. 무자 화두에 대한 무문혜개 스님의 설명에서도 머리로 헤아리기보다는 몸으로 체험하기를 언급하고 있다. 즉 "삼백육십 골절과 팔만사천 털구멍을 가지고 전신으로 한 개의 의심 덩어리가 되어 이 한가지 '무'자를 들고 있기를…" 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는 흡사 무지의 구름을 향해 정진하는 구도자의 모습과 똑 같은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자세로 필자는 '놔 버려라!', 'Let Go!'라고 되뇌이며 마음을 가다듬고, 아침 일찍 방석 위에 앉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제6기 참나찾기 선 심리치료 명상호흡지도자 모집

◆ 선 심리치료 명상호흡아카데미 개설의 목적은?
현대인은 물질과 정보문화의 발달로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참나를 잊고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도덕 불감증과 각종 스트레스(번뇌)와 불안심리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참선과 명상호흡, 정신분석, 선 심리학, 자연대체의학을 활용한 정신심리치유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스로 참나를 찾는데 도움을 줄 전문가 양성과 체계적인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최상의 정신심리 치유의 장을 열려는 불교적 노력을 담아서 '선 심리치료명상호흡아카데미'를 개설한다.

◆ 교과일정

과 정	요 일	시 간	기 간
양 성	목요일	저녁 7시 ~ 9시	4월 8일 ~ 6월 24일(3개월)
특 수	수시모집(15명 선착순, 3박 4일, 수련원)		

◆ 특 전
❶ 한국선심리상담연구원 가입 자격
❷ 선 심리치료상담 전화인 '마음의 전화' 개설시 자료 제공
❸ 참나 찾기 팔관재 큰 모임(선 심리명상수련회) 참가 자격
(문화관광부 후원 선 심리상담명상수련 프로그램 18회 개최)

◆ 수강료
20만원(3개월분, 교재비 등 포함. 단, 통신은 3만원 추가됨)
우리은행 달마선원 019-258104-12-501
하나은행 달마선원 379-810048-78107

◆ 문의 및 수강신청
2004년 3월 20일 ~ 4월 14일(통신교육도 가능함)
(단, 특수과정은 개별방문상담 요망)
TEL : 02)738-1275(심리치료), 02)312-8248 / 9(F)
H.P : 016-301-4080
※ 수강신청과 관계없이 선 심리치료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예약 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참나찾기지도자회
부설 한국선심리치료명상호흡아카데미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법안명상기공강좌
법안명상기공을 수련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진화됩니다.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 5시30분
● 초급 · 중급 · 상급 · 고급 각 3개월과정
● 명상 · 사범과정 각 1년
● 지도 : 보덕현호선사
● 수강료 : 3만원(월1만원)
● 개 강 : 4월 7일(水) 오후 4시
● 접 수 : 마포문화원 문화학교
서울 마포구 아현동 600-2
● 전 화 : 02)312-1100
● 위 치 : 아현고가도로 마포쪽
아현중학 앞 지하보도 內
법안명상기공회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 지상중계 ⑦

주제 :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마음 씀씀이에 한생각 일어나고 사라짐이 생사



영진 스님는 스님은 "문없는 문인 '공문(空門)'으로 나아가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뭣고' 화두를 들고 간절하게 애써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상 백고좌

영진 스님

(前 조계종 기초선원장)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여러분 어떤 물건이 이렇게 앉아있습니까? 육조 스님께 남악회양 스님이 찾아뵈었을 때 하신 이 물음에 남악회양 스님이 8년간 침식을 잊고 고뇌했습니다. 8년만에 깨닫고 돌아온 남악회양 스님은 육조 스님에게 "설사 한 물건(一物)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육조 스님이 "닦아 증득함이 있느냐?" 하니, 스님이 "닦아서 증득할 건 없지 않으나 물들지는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문답으로 남악회양 스님은 법 인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사부대중께서는 지금까지 조계사에서 여섯 분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일체유심조'입니다. 당나라 때 마조도일 선사 밑에 81명의 선지식이 배출되어 이른 바 '선의 황금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각처에서 법을 편 이 선사들 가운데 뛰어난 분이 5~6명 계셨는데, 이 가운데 대매법상이란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대매산에서 30년 동안 나오지 않아서 호를 대매라고 한 것입니다. 스님의 계송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베고 버려진 고목이 또한 찬 나무를 의지하니(摧殘枯木依寒林) 몇 번이나 봄을 만나도 마음 변치 않았던고(幾度逢春不變心) 나뭇꾼도 오히려 돌아보지 않거늘(樵客遇之猶不顧) 목수가 이를 어찌 간절히 찾을까 보냐(郢人那得苦追尋).

여기서 쓸모없는 나무는 '이뭣고' 화두를 들고 평생 씨름하는 수좌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외람되이 선원장 법회에서 설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좌들의 삶을 몸소 보여주신 부처님께서는 6년간 고행후 성도하시고 49년간 중생 구제를 위해 법을 설하시다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의 탄생게에는 불교의 목적과 법을 설하신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

"하늘위 하늘아래 오직 나홀로 존귀하도다. 삼계(욕계, 색계, 무색계)가 고통 속에 잠겨있으니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는 이 선언은 인류 최초의 평등선언입니다. 요즘도 4성계급이 뚜렷한 인도에서 그것도 2600여년전에 이러한 선언을 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목숨을 내건 부처님의 이 선언을 우리는 아주 의미깊게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아(我)'가 무엇이길래 존귀할까요? 삼계가 고통속에 있어서 나의 고(苦)를 해결한 것이 불교라고 할 때, 그럼 왜 '고'인가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늙고 병들어 죽고 싶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런 고통은 태어남 자체가 원인이어서 날 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죽음 뒤의 세상이 행복한 곳이라면 두렵지 않을텐데 알지 못해서, 무명(無明)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 무명은 윤회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은 마음을 닦아 무명을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기에 마음 한번 바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무명이 윤회의 원인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아(我)는 마음이요 불성이자 선(禪)입니다. 그때그때 설명하기 위해 구분한 것입니다. 마음을 밝혀서 알고 보면 마음이란 원래 밝아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선이니 마음이니 하지만 글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말과 글을 빌려서 이야기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극락과 지옥이 궁금하세요? 경전에서도 극락과 지옥을 많이 이야기 합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일본의 한 무사(武士)가 노선사를 찾아가 "극락과 지옥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점잖은 노스님이 그 무사한테 "이놈, 나쁜 놈"하며 침을 튀기고 핏대를 올리며 욕을 했습니다. 무사가 "그만하세요"라고 해도 노스님이 더욱 욕을 하자 무사가 큰소리로 경고합니다. "스님, 한번 더 욕을 하시면 목을 벨 겁니다."

그래도 스님이 욕을 하자 무사는 화를 참지 못하고 검으로 목을 베려는 찰나, 노스님이 말합니다. "그게 지옥이야!"

그 말을 듣자 말자 무사가 바로 깨닫고 "스님, 죄송합니다" 하자, 노스님이 이번에는 "그게 극락이야"라고 말합니다. 지옥과 극락을 이처럼 극명하게 설명한 예는 없을 겁니다. 목숨을 내걸고 한 마디 한 예를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심한 설사가 나신 분들은 제 법문이 하나도 안 들어 올 겁니다. 이처럼 마음이 불편할 때가 지옥이요 더없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것이 극락입니다. 나옹혜근 스님이 설했듯이 한생각 일어나고 사라짐이 생사(生死)입니다. 현재에 충실해서 바르다면 내생은 저절로 행복할 것이니, 왜 내생을 미리 고민하느냐 이 말입니다.

극락과 지옥을 만드는 이 마음과 관련해서는 '마음에 점을 찍는' 점심(點心) 법문을 해야 겠군요.

경허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만공 스님은 덕숭산에서 선풍을 떨친 선지식입니다. 당시 남쪽의 혜월 스님, 북쪽의 수월 스님, 동쪽의 한암 스님과 함께 널리 법을 펼 때입니다. 만공 스님의 문하에서 공부하던 한 수좌가 혜월 스님께 공부하러 간 후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더랍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금강경의 한 구절)인데 큰스님께서는 어디다 점심하시겠습니까?"

만공 스님이 답하길 "위음왕불(威音王佛, 최초의 부처님) 이전에 점심해 마쳤느니라" 했답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미 점심해 마쳤다는 말입니다.

만공 스님이 이 편지를 부치려 하는데, 수제자인 보월 스님이 그걸 보고 "스님, 그동안 평생 수행한 게 겨우 이겁니까?" 하는 것입니다.

만공 스님이 이 말을 듣자 말자 그 자리에서 침식을 잊고 7일간 좌선했다고 합니다. 만공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보월이가 내게 10년 먹을 양식을 꿔주었다"고 칭찬했답니다.

만공 스님은 다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네가 호서지방을 등지고 영남으로 내려간 것은 남아있는 의심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 여우같은 의심을 끊지 못했구나. 이 편지를 읽은 즉시 다시는 의심치 말고 소각해 버리거라."

生死는 하나…마음은 불변

여러분도 오늘 점심을 드시고 이 법문을 깊이 천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양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원을 물, 불, 공기, 숫자 등으로 표현하고 동양의 노자는 혼돈일기(混沌一氣)니, 무극(無極), 태극(太極)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둥글고 움직인다'고 주장했다가 신을 모독한 죄로 사형 당했듯이 서양의 종교는 지구 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불교는 2600년전에 우주를 바로 본 종교입니다. 금강경의 삼천대천 세계가 무한 우주를 표현한 말입니다. 우주를 감싸는 '허공'은 안과 밖이 없기에 가장 큽니다. 하지만 이 허공도 나온 곳이 있다고 불교는 말합니다. <원강경>에 '무변허공 각소현발(無邊虛空 覺所顯發)'이란 말이 그것입니다. '가없는 허공은 어쩔 수 없이 허물을 지었다"는 영진 스님은 올 동안거부터는 백담사 무문관(무금선원)에서 정진할 예정이다. 지난 98년 하안거를 백담사 무문관에서 난 적이 있는 영진 스님은 대중 공부도 좋지만 온전히 당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다.

좁은 방에서 하루 한 끼의 식사로 묵언해야 하는 수행. 스스로 들어가는 감옥이기에 갇혀있다는 생각도, 나태할 틈도 없다는 무문관. '공문(空門)'으로 나아가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수처작주 입처개진' 隨處作主 立處皆眞. 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살아가라(이라는 당신의 좌우명에 걸맞게 무위진인(無位眞人)의 삶을 살아가는 영진 스님. 훤칠한 외모에 장부다운 기상을 지닌 스님이 '문없는 문'을 투과하고 다시 대중을 위해 사자후를 토할 그날이 기다려진다.

기자가 본 영진 스님

생사문제 해결위해 다시 '문 없는 문'으로

영진 스님을 처음 뵌 것은 1999년 조계종 교육원에서 였다. 당시 조계종 기초선원장 소임을 맡고 있던 영진 스님을 다시 뵌 곳은 올초 팔공산 은해사 기기암. 5년만에 뵌 스님은 불편한 허리에도 불구하고 참선과 포행으로 정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서인지 표정에는 환희심이 넘쳐나고 있었다.

어렵게 '전국 선원장 초청법회'의 참석을 요청했을 때 극구 사양하면서도 기초선원장을 맡았다는 책임감으로 머뭇거리며 승낙하던 영진 스님. 석달 만에 조계사 대웅전에서 설법하는 스님의 목소리에는 겸손한 가운데서도 자신감이 묻어나 있었다.

"이 법단에 올라올 자리가 아닌데…."

"이젠 공부만 할거예요."

법회가 끝난 후 "'간화선 붐'이란 명분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기도 영험도량에 법비 오는

동해사 삼사순례



동해사 비 오는 곳



삼보전에 귀의하옵고
사리탑위에 법비내려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는 동해사. 법비의 자비광명으로 화신하여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제신곳 동해사에 오시어 순례도 하시고 마흔 두가지 중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있는 사십이수주 진언의 기도를 하시고져 하는일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 해 사 주지 혜명 합장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033-672-2900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바닷가 방생지 5분 소요
◎대형주차장 완비

100일기도 접수안내
꼭 소원이 간절하신분 접수하여
한가지 소원이라도 이루어보세요.
◇기도시간 : 4:00시 ~ 5:30분
오전 10시 ~ 11시 20분, 오후 5시~6시
◇기 도 비 : 10만원
(농협 331036-51-062531 동해사)

방생 집전스님이 필요한 불교단체는 주지스님 집전 가능함.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 시키는 기법.

◆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체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누구나 길을 찾아 원하는 삶을 열어준다.
◆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고요의 평원 속으로 이끌어 준다.
◆ 삶에 지친 몸과 마음에 프라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 가진 것은 잃게 되고 베푼 것은 남듯이 내가 클 수록 장애가 심하고 내가 작을 수록 세상이 가벼운 것. 간. 쓸개 빼고 살면 부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속을 텅 비우면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맥공.선밀공.프라나호흡.프라나 동작.36장 관조 ·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길타기 3단계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2단계 : 지혜의 눈 (달변, 예시, 투시, 치유 능력)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듦)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분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천 문 열 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재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 격 : 24세 ~ 33세까지
■ 학 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륜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맥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29-4
☎ 053)471-0433

조계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3월28일-조계사 대웅전)

따라 극락-지옥 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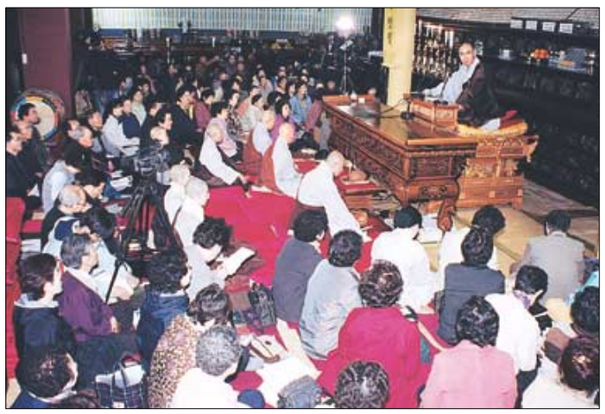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이 말은 우주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불성이라고 표현되는 이 마음을 '여래장'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마음이 선악과 시비 등이 나눠지지 않은, 구분 안된 한 덩어리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하나이건만 홀연히 일어난 무명 때문에 분별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구름 때문에 태양과 같은 마음이 가려질 뿐이어서 따로이 닦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수행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습기를 녹여 없애면 바위 속에서 금을 얻듯이, 용광로에서 제련된 금이 다시 흙이 되지 않듯이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이 '부처 마음'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공부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마음을 밝히기 전에는 윤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석에서 금을 제련하는 과정이 참선이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큰 믿음을 내야 합니다. 이 대신근(大信根)이란 선지식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선지식에 의지해서 공부하고 점검함으로써 확철대오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요즘은 큰 도인이 적을까요?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남북한을 합해도 40배나 큰 중국 대륙에서 전화도, 기차도 없을 때 선지식이 계시다고 하면 천리 밖을 몇 달이 걸려서라도 찾아갑니다.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구구절절 간절한 믿음을 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렵게 찾아가서 마침 그 자리에 계시다면 더없는 기쁨이었지요. 자기의 고뇌가 클수록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믿음으로 "어떠한 것이 부처입니까?"하고 물을 때 "마른 똥 막대기니라" 할지라도 전체가 '참 의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천 걸음, 만 걸음이 바위를 뚫는 낙숫물처럼 간절한 믿음이 되어 진의(眞疑)를 돈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두가 잘 안될 때는 화두를 바꿔도 될까요? 저의 경우는 화두가 얼마나 안되든지 '이뭣고'를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화두가 자꾸 끊겼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무자' 화두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무자 화두를 들었더니 '이뭣고'가 들리는 게 아닙니까. 바위에 잔디가 눌려있다가도 끝내 뻗어 나오듯이 '무자'를 하는데 '이뭣고'가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어째서 이뭣고가 무(無)라 했을까' 이런 화두를 들면 안됩니다(웃음).



참선 공부의 핵심을 알기 쉽기 설명하는 영진 스님의 설법에 고개를 끄덕이는 불자들.

낙숫물이 바위 뚫듯 간절한 믿음이 중요

성에 깊히 천착해 자유인 되길

한 스님께서 "몸에 털을 메고 가는가는 바위가 나타나자 호랑이 인줄 알고 깜짝 놀라 활을 쏘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활을 당겼더니 '퍽' 소리가 나서 바위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호랑이인지 바위인지 아리송 해서 바위에 부딪치자 마자 화살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생사문제에 부딪쳐 무심으로 활을 당겼을 때만 화살이 바위를 뚫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호랑이가 작은 짐승을 잡을 때도 납작 엎드렸다가 온 힘을 다해 덮치듯이,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답을 찾아야 합니다. 공부의 가장 큰 힘은 '간절 절(切)' 자에서 나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아무 잡념도 안 들어와요. 하지만 이 잡념은 없애려 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여치 말고 뒷 꽁무니만 보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선방에서 스님들이 정진하다가 어느 기간에는 일주일씩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하는데, 정진이 끝나면 두 부류의 스님들로 나뉩니다. '아, 끝났구나' 하고 홀가분해 하는 스님들과 남몰래 통곡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맹심과 분심을 이렇게 내야 합니다. "너(역대 조사들)도 장부면 나도 장부다. 나라고 못할소냐. 다만 하지 않을 뿐이요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춘성 스님이 망월사에 주석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번은 20세 연하인 성철 스님이 망월사 선방에서 정진한 적이 있는데, 춘성 스님은 성철 스님이 잠 안자고 공부한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방선 시간 후 늦은 밤에 객실 문구멍으로 들여다보았는데, 젊은 수좌가 앉아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신의 나태함을 자책한 춘성 스님은 그때부터 대중 생활만 하고 남이 잘 시간에 몰래 잠 안자고 공부를 했답니다.

이 '공문(空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배와 후배, 스승과 제자의 순서가 미리 정해진 게 아닙니다. 먼저 깨친 사람이 선지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선하지 않고 경전만 공부한다면 어느 세월에 생사해탈 하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선사님들의 법문을 들었으니 선에 깊이 천착하셔서 나고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법문, 테이프로 들으세요"

고우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2월 15일~5월 9일 진행되는 선원장 초청법회의 법문을 테이프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조계사(02-732-2115), 여시아문(02-737-8881)

법회 동영상 중계

www.jogyesa.org

www.buddhanews.com

■영진 스님 1972년 금산사에서 도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용봉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석암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99년부터 3년간 조계종 기초선원장 겸 동화사 선원장을 맡아 '수좌 사관학교'란 별칭을 얻을 정도로 간화선 교육의 일익을 담당했다. 기초선원장 소임을 맡은 때를 제외하고는 봉암사, 해인사, 통도사, 백담사 무금선원, 은해사 기기암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에만 몰두하고 있다.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14>



윤회의 증명

불교경전에서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지은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자신이 그 결과를 받는다 자작자수(自作自受)의 원리는 불자들로 하여금 착한 행위를 하고 나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 지은 행위에 대하여 바로 그 과보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 중에는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 최근에 서양에서 과학적으로 윤회의 세계가 실재한다는 것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소용이 없다. 흥미롭게도 <장아함경>에 속하는 <폐숙경>에 윤회를 증명하는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다. 이 경전에서 붓다의 입멸 직후 가섭이라는 제자와 윤회를 믿지 않는 왕자가 윤회를 둘러싸고 대론하고 있다. 붓다의 제자는 전생, 현생, 미래생이 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득시키고 있다. 주요한 내용만 선별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가섭이 물었다. "어떤 연유로 내생이 없다고 말하는가?" 왕자가 대답했다. "저에겐 병을 앓아 매우 고생하는 친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서 부탁했습니다. '지금 그대는 나와 친족이고 또 10악업도 갖추고 있다. 만일 윤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대는 죽어 반드시 고통스런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분명히 지옥이 있다면 너는 마땅히 돌아와서 내게 말해 알려달라. 그런 뒤에야 믿을 것이다.' 가섭이여, 그는 벌써 죽었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친족이라서 당연히 저를 속일 리가 없는데 오지 않는 것을 보면 반드시 내생은 없는 것입니다."

가섭이 비유를 들어 대답했다. "국법을 어겨 사형 집행관에게 끌려간 죄인이 부드러운 말로 간수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놓아주시오. 고향의 모든 친족들을 만나 작별의 인사를 마친 뒤에 반드시 돌아오겠소.' 바라문이여, 어떠한가? 저 간수는 기꺼이 그를 놓아주겠는가?"

왕자가 답변했다. "안 될 것입니다." 가섭은 부연했다. "죄인이나 간수나 모두 같은 사람으로서 현세에 함께 살고 있는데도 오히려 놓아주지 않는데, 더구나 그대의 친족은 10악업을 갖추었으니 몸이 죽어 수명이 끝난 다음 틀림없이 지옥에 들어갔을 것이다. 지옥의 간수는 자비심도 없고 또 사람도 아니다. 그가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지옥의 귀신에게 요구하기를 '너는 잠시만 나를 놓아다오. 내가 세간으로 돌아가 친족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한들 석방될 수 있겠는가?" 바라문이 대답했다.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내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바라문에게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 내생이 없다 라고 하는지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저에겐 병을 앓아 위독한 친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서 부탁했습니다. '지금 그대는 나와 친하고 또 10선업도 구족하고 있다. 만일 윤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대는 이제 목숨을 마치면 반드시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만일 분명히 하늘의 과보가 있거든 너는 마땅히 와서 내게 말해 알려 달라. 그런 뒤에야 나는 믿을 것이다.' 가섭이여, 그는 벌써 죽었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친족이라서 당연히 저를 속일 리가 없는데 오지 않는 것을 보면 반드시 다른 세상이란 없는 것입니다."

가섭은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똥구덩이에 떨어져 머리까지 빠졌다고 하자. 그 사람을 끌어내어 가루비누와 깨끗한 재로 여러 번 씻긴다. 다음에는 향탕(香湯)에 목욕시켜 여러 가지 고운 가루향을 그 몸에 뿌리고 거듭 씻긴다. 이렇게 세 번을 되풀이하고 향탕에 목욕시키고 가루향을 몸에 뿌리며 좋은 옷으로 그 몸을 꾸미고 온갖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자. 그 사람이 다시 더러운 똥구덩이로 들어가려고 하겠는가? 모든 하늘도 또한 그렇다. 이 염부리(閻浮利)의 땅은 냄새나고 더러워 깨끗하지 못하다. 모든 천신은 여기서부터 거리가 백 유순(由旬)이나 떨어진 위에서 멀리 사람들의 냄새를 맡지만 뒷간 냄새보다 더 심하게 여긴다. 그대의 친족은 10선(善)을 갖추었으므로 틀림없이 하늘에 태어나 5욕을 스스로 즐기며 쾌락이 끝이 없을 텐데 왜 다시 기꺼이 이 염부리로 돌아오려고 하겠는가?"

죽어서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생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왕자의 주장에 가섭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이렇게 설명하여도 내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생이 없다고 믿고 방종하게 살다가 죽을 때 만약 내생이 있으면 지옥에서 고생할 것이다. 내생이 있다고 믿고 착하게 살다가 죽을 때 설령 천상이 없다고 해도 손해볼 것은 없다. 그러므로 내생이 있다고 믿고 착하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죽지 않고선 내생 존재 확인할 수 없어
'내생 있다' 믿고 선하게 사는 것이 행복

동국대 불교학과(경주)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편지
신제품 식물성 양초
실용신안특허 0293571호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저희 삼환양초에서 식물성 양초를 개발(실용신안특허) 공급합니다. 지금까지 양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핀 왁스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양초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그을음, 냄새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심하든차, 동남아 모처에서 생산하는 팜(식물성 야자열매)왁스로 양초를 만들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내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있도록 삼환양초 가족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스님, 불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여 양초도 선별하며 사용할 때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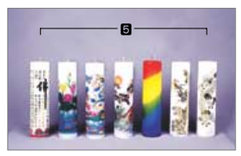
◆ 선진국 소비자들의 양초선별 방법
1. 심지가 면사로 되어있는지<국내제품 면사로 제조>
2. 원료가 식물성 인가
※ 미국, 구라파 등지에서는 콩, 옥수수 등 식물성으로 만든 양초 선별사용



▶ 식물성 양초의 특징
- 그을음이 없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을 준다.
- 양초 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적다.(거의 없음)
- 양초 연소시간이 일반양초보다 약 20 ~ 30% 길어진다.



① 전사지양초(호랑이, 용, 반야심경) 지름 7.5cm x 45cm
② 쌍용(용이마주보고 있음) 지름 8.3cm x 30cm
③ (전사지)용 - 지름 9.2cm x 31cm
④ (전사지)반야심경 - 지름 9.2cm x 31cm



⑤ 원기둥 양초 지름 7.4cm x 29cm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용, 호랑이, 무지개, 금박, 호랑이, 용

상기제품외 모든 양초를 만드는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제품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제품설명서를 무료로 우송하여 드립니다.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불제 고주전구, 인지전구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윌라멘트가 6배(특 윌라멘트)로 밝아 월등이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공연

4인 4색 전통춤 명인 무대

4월 9~10일 호암아트홀 '우리춤전'



장고춤, 진도교방굿거리춤, 부채춤, 달구벌 입춤, 소고춤 등 전통춤 한마당이 열린다.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이 4월 9일, 10일 양일간 펼치는 4인의 4색 공연 '2004 우리 춤 스타초대전-봄날 우리 춤 속으로…(사진)'가 바로 그것. 서영님, 강미선, 전은자, 윤미라 등 소문난 춤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통춤의 멋과 미를 경쟁하듯 뽐낸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매방류'의 전수자인 서영님 씨의 장고춤은 다양한 장단변화와 함께 힘차고 부드러운 도약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절로 자아내게 한다. 또한 김수악, 황무봉, 김현자, 최현 등 걸출한 춤꾼들에게서 사사를 받은 강미선 씨의 춤은 봄의 춘정(春情)을 몸짓으로 표현해 호평을 받고 있다. (02)2263-4680

재즈보컬 웅산 콘서트

4월 9~10일 대학로 폴리미디어씨어터



봄 햇살과 어울리는 재즈 음색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불자 재즈보컬리스트 웅산(본명 김은영 · 사진) 씨가 4월 9, 10일 이틀 동안 서울 대학로 폴리미디어씨어터에서 '플라워 재즈 파티' 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해 12월 발표한 데뷔앨범 '러브 레터스(Love letters)'의 한 · 일 동시 발매를 기념해 열린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폭넓게 사랑받아온 웅산 씨의 이번 무대에는 일본의 실력파 연주자들로 구성된 '웅산 밴드'도 함께할 예정이다. 서울 공연이 끝난 후에도 이들과 함께 일본 5개 도시 순회공연에 들어간다. 문의 (02)6248-0430~1

극장가



비람의 전설 / 드라마 / 132분
개봉예정일: 4월 9일
감독: 박정우
출연: 이성재, 박솔미, 김수로 등
사교댄스를 소재로 한국사회의 사교댄스를 풍자한 유머러스한 영화. 춤을 추는 의미와 열정을 잘 묘사해 냈다. 영화를 위해 전문 댄스강습을 받은 주 · 조연급 배우들의 프로댄서 못지않은 춤솜씨가 영화의 백미. 폭죽이 터지는 홍콩야경을 배경으로 두 주연배우가 춤추는 마지막 장면도 놓치지 말것.



저지걸 / 드라마 / 103분
개봉예정일: 4월 9일
감독: 케빈 스미스
출연: 벤 에플렉, 리브 타일러, 라 카스트로 등
오직 성공가도만을 달리던 뉴욕 최고의 홍보맨 올리. 하지만 그의 딸 거티가 태어나면서 올리는 돈, 명예, 사랑하는 아내까지 모두 잃게 된다. 재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거리의 청소부가 되고 그에게 남은 건 7살배기 딸 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는 서서히 행복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연애사진 / 로맨스 / 111분
개봉예정일: 4월 9일
감독: 츠츠미 유키히코
출연: 히로스에 료코, 마츠다 류헤이 등
영화 '철도원', '비밀' 이후 한국에도 넓은 팬층을 확보한 히로스에 료코 주연의 청춘 로맨스 물. 오래 전 헤어진 첫사랑의 기억을 찾아 뉴욕과 도쿄를 오가는 로드 스토리다.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던 감독답게 16mm, 8mm, 디지털 카메라 등 다양한 영상기구를 활용한 감각적인 화면도 매력적이다.



지난해 '제3회 모악산 진달래 화전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농악대 장단에 흥겨워 하고 있다.

꽃핀 산사에 축제도 많네

대장경 이운법요식, 산채정식 맛보기, 화전 부치기, 글짓기 · 사생대회…. 사찰에는 다양한 문화 · 체험 행사들이 가득하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축제와 대원사 화전축제, 황룡사 자비산사음악회 등 고즈넉하기만 한 사찰들이 다양한 행사를 마련, 불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꽃향기 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이봄, 사찰을 찾아 이색 문화체험을 해보자.

합천 **해인사**는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강화 선원사에서 해인사로 팔만대장경을 이운한 과정을 재현한다. 교과서를 통해 익숙한 <팔만대장경>은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합천 해인사로 이운돼 보관됐을까? 축제는 4월 25일 고령 개경포에서 개포 육상이운 법요식을 시작으로 이러한 궁금증을 말끔히 풀어준다. 또한 26일 어린이 ·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27일 '팔만대장경 이운경로재현-750년의 길을 가다', 28일 합천오광대공연 및 합천농악경연한마당 등 언급하기에 숨이 찰 정도로 많은 행사들이 해인사와 합천읍 등지에서 펼쳐진다. 이밖에 축제기간 동안 해인사 주변에서 펼쳐지는 소원등 달기, 산채정식 맛보기, 외국인 템플스테이(24일~28일), 팔만대장경 인경 및 판각체험 등도 빼놓지 말자. (055)931-1001~2

해인 · 대원 · 대흥 · 황룡사
대장경 · 화전축제 ·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 잇따라 열어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

이보다 앞선 4월 11일, 완주 **대원사** 경내에서는 색다른 축제가 펼쳐진다. '제4회 모악산 진달래 화전축제'가 바로 그것. 삼월 삼짇날(음력 3월 3일)을 전후로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부쳐 먹던 세시풍속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축제는 승무, 살풀이, 품바, 풍물패의 공연을 비롯해 화전만들기, 다도체험, 떡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가족 및 연인들이 즐기기에는 더 없이 좋은 축제. 또 아이들과 함께 찾은 가족들을 위해 나무(진달래)묘목 심기 프로그램과 어린이 ·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 등이 마련되니 주말 가족여행지로서도 안성맞춤. (063)221-8502

땅끝마을 해남에 가도 색다른 즐거움이 있다. **대흥사**가 서산 대사 탄신일을 기념해 진행하는 '나라사랑 글짓이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 4월 9일 초 · 중 · 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회는 운문부과 산문부로 나눠 호국선사들의 뜻을 기리게 된다. 당일 대흥사 내 표충사 앞 광장에서는 서산대사 484주년 탄신대재도 봉행되니 청소년들의 학습의 장으로 이용해 보면 어떨까. (061)534-5502

'축제에는 뭐니 뭐니 해도 음악이 빠져서는 안되지'하는 분들은 대구로 향해보자. 직지사 포교원 직지불교대학 **황룡사**가 4월 8일 배추머리 김병조 씨의 사회로 '불우이웃돕기 자비산사음악회'와 '노래방 콩쿨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산사음악회에는 통기타로 노래하는 도일 스님과 소프라노 박상영, 김홍조, 소명, 최유나 씨 등이 출연해 축제의 흥을 돋우고, 시인 박철언 씨와 영천 부가사 주지 법심 스님이 자작시 낭송을 통해 산사의 정취를 물씬 전해준다. (053)784-8620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20면 상식 퍼즐 정답

불	기		백		신		도	성
사	고	팔	고		심	즉	시	불
	만		좌	우	명		개	
대	장	금		유		초	발	심
		혼	사		경	보		
진	산	식		사		자	기	장
	산		주	장	자		와	
조	조	할	인		전	문	지	식
전	각		공		거		붕	당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11:10 행복 스튜디오
12:20 백팔가요
14:05 전국은 오늘
18:15 유쾌한 저녁길
20:05 다시 듣고싶은 노래
21:30 BBS 초대석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Btn 불교TV <ch 32>

7일 09:20 묵연 스님의 시와 사랑
8일 08:30 생활 속의 아함경 강의
9일 08:30 하재봉의 영화산책
10일 11:30 정경 스님의 참선요가
11일 15:50 건강하게 삽시다
12일 09:20 외국인 스님의 영어법문
13일 08:30 화엄경 강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싶은 노래(4월 12일 20:05~21:00)- 방송인 김병조 씨가 진행하는 불교방송의 대표 인기 프로그램. 옛 시절 대중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노래들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청취자가 직접 참여하는 '배추머리 노래방'이 마련된다.

■**불교텔레비전**: 정경 스님의 참선요가(4월 10일 11:30~11:50)- '참선요가'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정경 스님. 일반 요가와 달리 참선요가는 육체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 주동안 방송됐던 팽이자세, 가위젖기 등을 연속동작으로 보여준다.

숲에서 새봄 느껴요

서울시, 4~11월 '숲속여행 프로그램' 운영
자연생태 탐험 · 사찰서 불교역사 체험



대모산을 찾은 청소년들이 숲해설가로부터 식물의 습성에 대해 이야기 듣고 있다.

숲속을 탐방하며 산에 얽힌 역사와 문화를 배워보면 어떨까?

서울시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관악산, 청계산, 수락산 등 9개 근교 산에서 자연탐방 '숲속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숲해설가와 함께 2~3km구간의 숲속길을 걸으며 나무, 꽃, 곤충, 조류 등 자연생태를 탐험하고, 오후에는 인근 사찰을 들려 불교역사와 문화 등을 체험한다면? 주말, 이보다 더 알찰 순 없다. 더군다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각 산에는 관악산 연주암 한마음선원, 아차산 영화사, 청계산 청계사 보광사, 대모산 불국사 등 유명사찰들이 자리 잡고 있다. 각박한 도시생활과 정신없이 바쁜 학업으로 자연과 불교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어린이 · 청소년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시청 공원과(http://san.seoul.go.kr)나 해당구청 등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산별로 매회 60여명씩 선착순으로 모집. 프로그램 운영은 산별로 격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도시락 및 필기도구, 카메라 등은 각자 준비해야 한다. (02)6321-4171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수행화

면 100%로 만들어져 가볍고 편안하며, 땀이 차지 않는 수행화. 일반도로는 물론 산길을 걸을 때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수행화는 스님은 물론 불자들에게 선물하기에 좋은 제품이다.

사이즈 225mm~275mm. 색상 검은색, 회색. 가격 4만원. (02)732-1520



게시판

공부합시다

장애인 무료 사이버교육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과 장애인 직업재활 종사자를 위한 무료 사이버교육을 4월 1일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교육은 웹마스터 등 정보기술 25개 과정과 공인중개사,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취득 6개 과정, 외국어 23개 과정, 직업능력 6개 과정, 직업재활 5개 과정 등 총 65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 희망자는 공단의 사이버교육연수원(http://edi.kepad.or.kr)에 접속, 회원 가입 후 매월 10일~25일 희망강좌를 신청하면 된다.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 통도사자비원이 4월 21일부터 '제5기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한다. 말기 암환자를 비롯해 임종을 앞둔 불치병 환자들을 위한 전문 호스피스 교육인 이번 교육은 간병, 호스피스, 장례의식, 자원봉사자소양교육 등으로 총 4개월간 진행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강비 15만원. (055)381-3999

함께 해요

보성 건강달리기대회 자비신행회가 4월 11일 오전 10시 보성 대원사 진입로 벚꽃길에서 건강달리기대회를 개최한다. 자비신행회는 참가비 전액을 백혈병 어린이 환우에게 지원한다. 참가비 성인 1만원, 학생 5천원. (062)234-2732

예술의 전당 청소년음악회(사진)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가 4월 11일까지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청소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피아니스트 김대진 씨와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교실을 2006년까지 18회에 걸쳐 진행한다. (02)580-1135



과천한마당축제 참가작 공모 과천한마당축제 준비위원회(www.gcfest.or.kr)가 오는 9월 14일~19일 축제때 공연할 마당극, 야외극, 거리극 등의 작품을 4월 한달 동안 공모한다.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협회로 접수하면 된다. (02)504-0945

골다공증 무료 상담 대한골다공증학회와 대한골대사학회가 '골다공증 위험도 1분 무료 체크 상담전화'(1588-6035)를 개설, 5월 21일까지 운영한다. 전문 상담사와 골다공증의 위험 정도와 기본 의학상식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가족마라톤대회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이 4월 18일 개최할 가족마라톤 대회 접수를 4월 8일까지 받는다. 이번 대회는 4.5km구간 걷기대회로 복지관 회원 및 일반가족들이면 모두 참가 가능하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티와 중식이 제공되며, 완주시에는 메달도 증정된다. (02)804-4058

재직근로자 수강지원금 과정(사진)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재직근로자 수강지원금 과정(야간)을 4월 2일부터 실시한다. 과정은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초반(4월 12일~7월 7일)과 중급반(4월 13일~7월 13일), 애견패션 액세서리 및 애견옷 과정(4월 6일~7월 2일), 한식조리기능사 과정(4월 6일~7월 2일)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4월 2일 비즈공예 강좌와 4월 9일 수학지도교실 등을 무료로 진행한다. (02)2692-4549



장애아동 미술관 소풍 국립현대미술관이 특수학교 및 일반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장애아동 120여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마지막주 금요일날 '장애아동 미술관 소풍'을 진행한다. 소장품 감상 및 미술실기 등으로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02)2188-6065

외래종 식물 제거작업 서울시가 환삼덩굴, 가시박, 돼지풀 등 외래종 식물 제거작업을 4월 6일부터 16일까지 한강시민공원에서 펼친다. 자연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중 · 고등학생에게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된다. 별도의 신청없이 개별참여가 가능하다. (02)3780-0501

전국 200개 피부과, 무료탈모검진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www.kdpa.or.kr)가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200개 피부과에서 무료 탈모검진 서비스를 실시한다. 협의회는 이 기간 동안 피부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탈모 치료에 대한 교육자료와 함께 환자의 탈모 상태에 대한 개인별 탈모 리포트도 제공한다. (02)2022-8255

아동극 축제(사진) 대학로 창조콘서트홀이 오는 6월 6일까지 우수 아동극 세 작품을 선정, 매달 하나씩 공연하는 아동극 축제를 개최한다. 4월 3일부터는 마술과 뮤지컬을 결합한 '매직키드 마수리'가 전북 전주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펼쳐지며, 4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는 다양한 마술과 함께하는 '꿈꾸는 오뚜기'가 대학로 창조콘서트홀에서 펼쳐진다. (02)747-7001



인천문화회관 개관 10주년 음악회 인천시가 4월 8일 오후 7시 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회관 개관 10주년 기념 예술대전을 개최한다. 1,2부로 나눠 진행될 이날 행사는 '나를 울게하소서' '투란도트' 등 오페라 명곡들을 선사한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개막 30분전까지 입장해야 한다. (032)420-2713

즐겁게 떠나요

수륙대재 및 방생법회 도선사가 윤달을 맞아 4월 7일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남한강변에 위치한 국보 제6호 중앙탑 일대에서 수륙대재 및 호국방생 대법회를 봉행한다. 참가비 3만원. (02)993-3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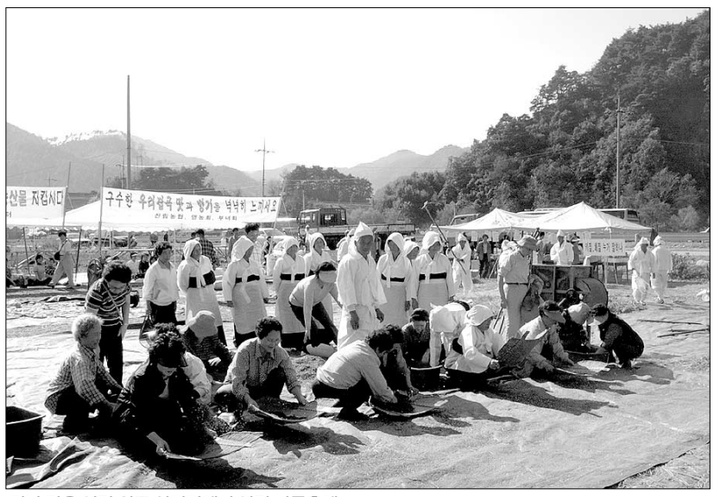
영양 듬뿍…잡곡밥은 건강 지킴이

잡곡밥 알고 먹어야 보약



최근 불어 닥친 웰빙 열풍의 중심은 바로 밥상. 건강한 식사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특히 잡곡류의 수요가 크게 늘어 전년대비 250%의 증가를 보이고 있을 정도. 잡곡은 비타민, 필수아미노산, 단백질, 무기질 등을 갖가지 영양소가 고루 포함돼 있어 균형 잡힌 식사에 좋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먹어야 약이 되는 것. 잡곡밥을 알맞게 짓는 요령과 잡곡밥을 먹을 때 유념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가을 열린 원주 신림면에서 열린 잡곡축제.

잡곡밥 맛있게 짓는요령

잡곡밥은 쌀밥을 짓는 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밥물을 쌀밥보다 늘리고 불리는 시간도 30분 이상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쌀과 잡곡을 3:1이나 4:1 정도로 적당히 섞어 밥을 하는 것이 좋다. 잡곡마다 단단하기와 무르기가 다르므로 이를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콩류는 미리 불려 놓고, 팥은 삶아서 물을 흡수하기 쉽도록 준비해 놓는다. 차조는 뜸 들일 때 넣어야 한다.

잡곡밥은 전기밥솥보다 압력밥솥에 지으면 더욱 맛있다. 잡곡을 고루 익히기 위해 시루에 쪄 밥을 해먹는 옛날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밥을 다 지은 후에는 10~15분 이상 뜸을 들이는 것도 잊지 말자.

이것만은 명심하자

요즘 시중에 판매되는 잡곡 브랜드만도 수백여 개에 달한다. 그만큼 재배부터 수확까지 믿고 살수 있는 잡곡을 고르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때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부여하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잡곡을 보관할 때에는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서늘하고 습기 없는 곳에 보관하는데 먹기 좋게 섞어 냉장고 맨 아래 야채실이나 김치냉장고에 보관해도 좋다. 팥, 콩 등에 흰점이 생기면 쉽게 벌레가 생긴다는 신호이므로 잘 골라낸다. 지어놓은 잡곡밥은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둔다.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소화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아이에게 억지로 먹이는 것은 좋지 않다. 잡곡밥이 쌀밥보다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사 등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13~14세 정도가 될 때까지 쌀밥에 적당량의 잡곡을 섞어 아이에게 이상이 없는지를 관찰해 가며 먹여야한다. 또 여러 가지 잡곡보다는 비교적 소화흡수가 쉬운 찹쌀에 콩, 수수 등 한 가지 종류의 잡곡만 섞어 먹이는 것이 좋다. 아이가 싫어한다고 해서 잡곡을 무조건 갈아 밥을 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되도록 그대로 밥을 해 꼭꼭 씹어 먹게 한다.

콩 미리 불리고 팥은 삶아 넣어야
흰 점 생기면 벌레 생긴다는 신호
아이에겐 한 종류씩 먹이는게 좋아

다양한 잡곡 만나보세요

농협, 대형마트 등에서는 씻거나 따로 불릴 필요 없이 먹기 좋게 포장된 혼합잡곡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8가지부터 25가지까지 갖가지 곡류를 섞어 7~8천원부터 3~5만원 선까지 다양하게 판매한다.

가격대는 조금 비싸지만 친환경적 유기농 잡곡들도 인기가 많다. 조계사, 수유사, 영화사, 맑고 향기롭게 등 사찰 내 불교용품 판매점이나 정기적인 알뜰시장에서 구입가능하다.

마하몰(www.mahamall.co.kr), 잡곡마을(www.jabgok.com), 쌀마을(www.ssalmaul.co.kr) 등 쇼핑몰에서는 일반 흔식잡곡과 동충하초, 녹차, 버섯보리 등 영양 식품과의 배합을 통해 개발한 잡곡도 판매한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도움말 및 자료제공: 우리잡곡운동본부

안티미스코리아 모집

여성저널 <이프>는 제 6회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www.antimisskorea.com)을 맞아 4월 13일까지 참가 후보를 선발한다. 학력, 나이, 외모, 성별의 제한 없이 불평등, 불합리에 대해 '안티'를 걸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기소개서, 행사취지에 맞는 공연기획안, 참가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사람은 5월 8일 서울 남대문 메사 팝콘홀에서 열리는 행사 무대에 서게 된다. (02)717-9201~4

여성 마라톤 5월2일 열려

제4회 여성 마라톤대회가 5월 2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여성신문사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와 초보자를 위한 3km 코스를 비롯해 5?10km 달리기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떡치기 대회, 페이스 페인팅, 간단히 배워보는 요가교실 등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02)318-2792

여성장애인 도우미 운영

서울시는 저소득 및 중증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 임신·출산·육아·가사를 돕는 '홈헬퍼'를 4월 중으로 양성해 파견한다. '홈헬퍼'는 '우리 고모랑 이모랑 함께 해요'라는 이름으로 해당 가정에서 친척처럼 가사활동 전반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로써 서울시에 등록된 7만 9천여 여성장애인 중 독거 여성 장애인 1천 8백여 명이 혜택 받을 수 있게 됐다.

창원, 무료 공부방 운영

창원 비영리민간단체인 희망나라에서는 올해 말까지 소외계층지역민 아동을 위한 무료 오후 공부방을 운영한다. 매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열리는 이 공부방에는 창원시 일대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들까지 참여할 수 있다. (055)237-1008

'여성주간' 기념 글짓기대회

교육인적자원부는 제9회 여성주간을 기념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자격은 남녀차별 해소 및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산문이나 운문 형식의 글로 원고량에는 제한이 없다. 5월8일까지 각 학교나 지역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현장에서 만난 우바이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백경남 교수



최근 한나라당, 민주당 등 각 정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모두 여성으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여성정치 시대가 열렸음을 예고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향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여성을 사회중심의 키워드로 만든 공로자 중 이 사람을 빼놓을 수는 없다. 바로 백경남(63)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다.

백 교수는 정치학자로서 강단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활약했다.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 자문위원을 시작으로 아·태평화재단 운영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등을 맡으며 여성·외교·통일 분야에 기여했다. 지난 2001년에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여성부의 기틀을 다지기도 했다.

<한국여성의 정치의식> 등의 저서를 통해 여성의 정치의식 변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온 그의 정치철학은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탐진치 버리고 밝은 정치 연다

"일이 곧 수행"…학자·여성특위 등서 맹활약

"불법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진치를 버리고 불법에 따라 정치한다면 보다 나은 세상, 인류의 고통을 구원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백 교수의 이같은 철학은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기초교리 등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듯 직업에 정진한다'는 마음가짐도 심어주게 됐다. 그래서 백 교수는 항상 수행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이 곧 수행이라고 강조한다. 그래도 학자로서의 정체성과 불자로서의 신심을 한 고리에 연결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았을까.

"불자로서 전문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일 하나하나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가는 것이라 여겨야지요. 불법과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진리의 가르침에 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행합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주어진 역할에 최선다하겠다는 백 교수. 그는 현재 민주화 보상심의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으로 불국토를 꿈꾸며 밝은 정치와 화해의 길을 여는 작업에 한창이다.

백 교수는 요즘처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민감한 시기일수록 여성불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여성 불자들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 자비가 넘치는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의 지배적인 이야기에 적극 참여해 진취적인 목소리를 내는 여성불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길 바랍니다."

한상희 기자

교통사고방지부적방석

천만대가 넘는 자동차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하루에도 몇천건씩 일어나고 수많은 인명이 사망하고 다치는 교통사고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본 제품은 강한 "氣"가 방출되는 신비스러운 "경명주사"로 염색한 [발명특허출원중] 특수실로 삼베에 자수하여 시원하고 건강에도 좋으며 "경명주사부적방석"은 나쁜 "氣"가 침범하지 못하게하여 운전자의 심신을 안정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자동차사고 예방부 쿠션



자동차사고 예방부 삼베방석

저희 부적패션샵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부산PSB방송 [2003.11.11]아이디어 상품으로 방영되었으며 자매품으로 교통사고예방 "쿠션"과 신기만해도 재수있는 "양말" 세트도 판매합니다.

오늘도 운전자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기원합니다

※ 한개라도 주문하시면 성심껏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 농협 751070-52-055271 예금주 : 장기홍
◇판매대금 : 방석 33,000원 쿠션 23,000원, 양말셋트 23,000원
◇주 문 : 전 화 053)986-1355
휴대폰 011-537-1739

이사업에 관심계시는분 상담요
치질 자연요법으로 치유
참조 홈페이지: www.bujukshop.com

역술의 제왕(帝王)

역술을 알면 현생이 바뀐다 !

옛 성현의 金言에는 "군자는 재해(災害)를 예지(豫知) 함으로써 예방을 먼저 한다."고 하였다. 황제가 세 아들에게 전수하길 이 법으로 나라에 선정을 펴고, 수신을 보호하라! 만일 현명자가 없어 비법 전수를 하지 못하면 명산대산에 가서 묻어라!

- 길사는 언제 시작되는가?
- 흉사는 언제 끝는가?
- 근심과 재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가?
- 언제 성공할 수 있는가? 그 때는?
- 상대가 방문할 때 어떤 처지에 놓였는가?
- 기로에 서 있는가? 갈등하고 있는가?
-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원인이 뭔지, 산소탈인가, 귀신탈인가, 조상탈인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흉재가 발생한 뒤에 감정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어리석은 중생아 깨어나라! 늦지 않은가?

태산육임학회에서 기초입문, 활용과정, 임상록으로 수강생 모집!

- 포교당, 철학원, 운명연구가!
- 궁금하신 분은 전화로 문의하세요!
- 운명상담은 예약!
- 각종 비법을 전수!

도서안내

- 아베 태산 대전과 황제내경, 육임대전
- 길흉정단비법
- 실천감정법
- 감정극비전
- 초학상해

주소 :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501-7번지 1층
자료구입 계좌 : 대구은행 093-08-247393 (예금주 : 손외경)
전화 053)627-0170 / 휴대폰 016-580-6654

대구 대승불교대학 정토사 부설 불교의식 대학
제2기 불교의식 (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4월초 개강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갑신(甲申)년에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의식반 신입(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 정

가 초급반 (3개월)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기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행선축원.
신중청, 관음기도법, 산왕기도…

나 중급반 (3개월)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5시)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시다림법, 점안의식, 방생의식, 구병시식

다 작법반 (6개월)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
천수바라, 다게작법, 오공양작법, 요잡바라, 삼귀의작법 (일명 바라 나비춤)

라 고급반 (6개월) :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 (희망자 소수)

대구 대승불교대학 부설 범음·범패 의식교육원·정토사
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월촌역4거리)
전화 : 053)622-0333 / 011-699-9120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겹누비면(먹물)	
적삼, 조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180,000
두루막	250,000
면(먹물), 광목	
적삼, 조끼, 바지	16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무명	
적삼, 조끼, 바지	220,000 ~ 300,000
동방, 바지	220,000 ~ 300,000
두루막	180,000 ~ 250,000
모직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200,000
동방, 바지	160,000 ~ 20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마(먹물)	
적삼, 조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하복지 - 구김없고세탁 용이	
적삼, 조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 장삼 200,000 ~ 260,000 조끼 몸빼 60,000 ~ 셔츠 30,000 ~



대구 고속터미널 ↔ 중간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일광정사 '차와 좋은 만남'전

봄바람 타고 온 동남아 茶香



최근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수입되면서 중국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관훈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차와 좋은 만남 전'은 이처럼 중국차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했던 차인들을 위한 행사였다. 24일 열린 개막식에는 선서화 전문가 일장 스님과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 한국차인연합회 박권흠 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중국차전문점 일광정사(대표 여규평)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자사호를 비롯한 다기 100여 점과 대만 작가 반종성의 석다반(石茶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또 일주일 간의 행사기간 동안 중국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대만 등 동남아 국가들의 독특한 차 문화 소개와 '차와 꽃', '차와 그림'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연회가 마련됐다. 이번 전시 및 강연회에는 500여 명이 관람객이 찾아 따스한 봄기운 아래 차 문화 향연을 즐겼다.

중국 자사호 등 다기 100여점 전시
각국 차문화, 정보 교류의 장 마련

이번 행사에서 진행된 다양한 강연회 중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차 문화를 소개한다.



말레이시아 '자승다예중심'을 이끄는 소혜연씨가 찻잔 잡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18세기 영국의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는 현재 홍차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 전체 인구의 45%

인구45%가 홍차 즐겨
잔 잡을때 세손가락 사용

를 차지하는 말레이인들은 홍차에 우유를 섞은 밀크티로 하루를 시작할 만큼 홍차를 즐겨 마신다. 3월 25일 진행된 '말레이시아 차 문화' 강연은 말레이시아 콸라룸프르에서 다예관 '자승다예중심'을 이끌고 있는 소혜연(蕭慧娟) 씨가 맡았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다법을 소개한 소 씨는 "말레이시아 다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간편함"이라고 말한다. 이 다법은 중국 복건성 차 문화의 영향을 받아 생활 속에서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변형된 것이다.

찻잔을 잡을 때는 오른손 세 손가락만을 사용한다. 찻잔의 남북 방향 입구를 엄지와 검지로 잡은 뒤 가운데 손가락으로 찻잔 밑을 받쳐 잔을 움직인다. 마실 때는 손목을 90도로 꺾어 마시면 입술을 대는 부분에 손이 닿지 않는다. 손님 찻잔에 차를 따를 때는 신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따르고, 찻잔은 보통 짝수로 준비해 둔다.

● 싱가포르

말레이반도 남쪽 끝에 자리 잡은 싱가포르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과 공존한다. 차 문화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뚜렷이 드러나, 싱가포르에는 수많은 차 문화가 존재한다. 전체 인구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즐기는 것은 진한 홍차의 일종인 공부차(功夫茶). 화려한 다예 기술 대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차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중국 복건성의 우롱차와 운남성의 보이차도 즐겨 마신다.

3월26일 '싱가포르 차문화'를 강의한 싱가포르 국제무화차협회 이자강(李自强) 회장은 "다양한 차 문화를 받아들이는 싱가포르인들의 특징처럼 찻자리에서도 대접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功夫, 우롱, 보이茶 성행
특별한 격식 없이 일상화

모두 편안히 차를 즐기는 분위기를 중시한다"며 " 때문에 차를 마실 때 찻잔을 한손으로 쥐고 마시는 등 특별한 격식이나 예절은 없으며, 손님과 주인하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으면 된다"고 말한다.

찻잔은 보통 6~8개를 사용하며 한 번 마신 잔은 바로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싱가포르 국제문화차협회 이자강 회장이 다도시연을 보이고 있다.

'Tea & People' 다도구 기획전



3월24일 열린 '다도구 기획전' 행사장 모습.

월간 <Tea & People>이 지난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백상기념관에서 '제1회 다도구 특별 기획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3년 창간호부터 올해 2월까지 월간 <Tea & People>에 소개된 문경요 천한봉 대표를 비롯해 묵전요 김태한 대표, 단국대 도예학과 박종훈 교수, 예심목공예 권수경 대표 등 18명의 차문화 공예가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다. 24일 열린 개막식에는 작품을 전시한 차문화 공예가들을 비롯해 신희호 월간 <Tea & People> 발행인, 김동현 다도구 특별기획전 준비위원장 등 100여 명의 차인들이 참석했다.

김동현 위원장은 "차문화는 도자공예, 목공예, 금속공예, 직물공예 등 각 분야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종합 생활미학이다"며 "다양한 다도구들을 통해 아름다운 차 생활을 즐기는 안목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한봉 대표도 축사에서 "전시회에 훌륭한 작품이 많이 선보여 가슴이 뿌듯하다"며 "우리 차도구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보천다회 수료식, 차밭견학

경북 구미 보천사(주지 법진) 보천다회는 4월 13일 오전 11시 제3회 수료식을 개최한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헌다 행사와 함께 수강생들의 다법 발표와 수료증 전달 등이 진행된다.

한편 보천다회는 5월 3일 개최하는 '제1회 보성 차밭견학 및 향토 음식기행'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054)474-3592

우리 사찰 차 모임 — 관오사 차문화연구회

"자비실천 없는 교육 있을수 없다"



3월30일 대구 관오사 다실에서 열린 다도수업 모습. 사진=배지선 기자

지난 3월 30일, 대구시 남구 이천동 관오사 2층 다실에 단정한 한복차림의 회원들이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다도수업을 위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2000년 3월 문을 연 관오사(주지 지도) 차문화연구회는 부처님의 자비실천을 우선으로 하는 차인들의 모임. 신도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지도 스님이 서울에서 지도교수를 초빙해 다도강의를 열면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회원은 봉사활동을 기본조건으로 한다. 관오사는 불교사회복지회를 운영하고 있어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으므로 실천만 하면 된다는 것이 회원들의 말이다. 이번에 새로 개원한 중풍치매노인 전문요양원 개원에도 차 공양뿐 아니라 요양원 기금마련 작품전시회에도 큰 몫을 담당했다. 매년 가을 노인 복지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열기도 한다.

회원, 봉사활동 기본 조건
매년 다도시연 차공양 행사
연구, 재현 통한 茶기운 체험

현재까지 1기 20명을 시작으로 2기 35명, 3기 30명 등 모두 8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차문화연구회는 몇 년 과정이라고 정해놓은 규정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차를 이해한다는 것은 선(禪)을 한마디에 알 수 없는 것처럼 끝이 없다"는 것이다.

이곳에 모인 회원들은 차를 접한 지 10년도 훌쩍 넘은 전문 차인들이 많다. 차에 매료되어 전국을 다니며 차에 대한 다양한 수업을 받아왔던 그들이 이곳에 다시 모인 데는 까닭이 있다. 이론적 지식 습득을 뛰어넘어 차의 기운을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다.

관오사 차문화 연구회는 예절이나 행다 보다는 차에 대한 역사부터 시대에 따른 다구와 제다법까지 차의 본질을 연구하고 수업 후에는 매주 별도의 과제와 리포트를 내주기도 한다.

봉사라는 한 마디에 이끌려 바쁜 시간을 쪼개 서울에서 내려와 강의하게 됐다는 다도교사 김성태 씨는 "1기생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2기 3기생을 맞게 됐다"며 "무엇보다 선후배간의 질서와 전통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회원들은 새로운 차문화 형성을 주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자비 실천이 빠진 차문화 연구회는 있을수 없다"며 보살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터뷰 장영숙(1기회장)



베푸는 마음 가졌다면 누구나 가능

"차를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열려 있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지요."

1기 장영숙 회장은 관오사 차문화연구회가 차를 알고, 베풂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임을 강조했다.

"차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났듯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것"이라는 장 회장은 "차문화연구회가 나아갈 목표를 특별히 정하기보다는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바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참된 말씀을 바로펴는 BBS 불교방송

4월 19일 봄철 프로그램 개편

BBS 대표 · 특성화 프로그램

차한잔의 선율
월-일 [09:05 ~ 10:00]
진명스님 진행
이른 아침 맑은 산사의 향취를
클래식 소품에 실어 청취자에게 전달



BBS 신행상담실
월-토 [10:05 ~ 10:55]
성열 · 지묵 · 성정스님 진행
교리와 신행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을
스님의 상담을 통해 풀어가는 시간



행복스튜디오 구효서입니다
월-일 [11:10 ~ 12:00]
소설가 구효서 진행
다양한 문화가 소식, 화제의 인물,
청취자 사연등을 통해 오늘의 삶을 되돌아 봄



무명을 밝히고
월-일 [17:10 ~ 18:00]
김상영교수 진행
불교계 주요현안을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설정과
불자들의 신행 길잡이가 되는 프로그램



다시듣고 싶은노래
월-일 [20:05 ~ 21:00]
코메디언 김병조 진행
진행자의 구수한 입담이 어우러진 진행과 노래를 통해
서민들의 정감어린 삶의 모습을 전달



거룩한 만남
매주 금요일 [09:05 ~ 10:00]
도현스님 진행
어려운 이웃과 청취자들에게
진정한 보시정신을 일깨워 나눔의 기쁨을 공유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내 한생각이 법이 되어 만 생명 살린다

안으로 굴리지 않는다면 공덕이 하나도 없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비우려면...

문 대다수 큰스님들께서는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도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마음을 비우자는 것은 욕심을 버리자는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법을 들으면 마음을 비울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문 밖에 나가서 물질을 딱 보면 마음을 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길을 일러주십시오.

답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마음을 비운다 안 비운다 하기 이전에 이미 아주 탕탕 비어 있습니다. 본래 비워져 있습니다. 돈을 억만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가진 게 아닙니다. 재산도 자기의 추에 의해서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여여하게 쓰고, 여여하게 사랑하고, 여여하게 듣고 여여하게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도 이름해서 부처가 되어 봐야 보살이 될 줄 알고 보살이 될 줄 알아야 진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참사람이요, 이름 해서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신도 자기요, 보살도 자기요, 부처도 자기요, 중생도 자기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태초의 모습이, 자기 오장육부의 세포를 타고 자기의 그 태초의 모습들이 자기 속에 지금 우글우글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장으로서 한생각을 내면서 지금 여여하게 뱃놀이를 하고 가는데 아니, 소리를 못 지르나마, 노래는 하지 못하나마 왜 여여하게 가지 못합니까?

그러니 놓으라 하기 이전에 이미 놔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놓지 않고 있다면, 지금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냥 잔뜩 끼고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 여러분의 탓이에요. 어디 가려고 걸어가는데 그 발자취가 남습니까? 그 발자취는 금이 아니고 보석이 아니고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심하게 왔기 때문에 없는 거지, 아마 발짝 하나 딛는데 금은보화가 10억 붙어 있다고 그런다면 '아휴! 한 걸음에 10억씩 붙어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하고는 붙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돈 내는 것도 없고, 돈 붙는 것도 없고, 하나도 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태연하게 할 뿐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나가는 것도 태연하게 그렇게 가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실 때 신발을 내가 벗고 들어간다는 생각이 있이 들어가십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생각이 없이 들어가십니까? 똥 누러 갈 때 똥을 누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고 마려우면 그냥 뛰어 들어갑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똥 버리는 건 아깝지 않고 금 버리는 건 아깝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괴상망측합니다.

내가 나를 한번 봅니다. 돈이 백만 원이 들어왔든 천 원이 있든 그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한 개도 받은 예가 없고 준 예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나로 인해서 한 예도 없습니다. 주고 받은 게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렇게 절이 있어도 이게 내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동시에 나와 같이 여래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식과 아내와 남편과 다 같이 있으면서도 그것은 동시에 식구들 것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만 할 수 없으니 그냥 놓고 사세요, 그냥 그대로. 만약에 이 우주 천하가 다 내 거라면 무엇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다닙니까? 짊어지고 안 다녀도 그냥 허허지, 늘어진 게 바로 나고 내 생명이고 내 것이고 나 아님이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도리를 꼭 공부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자아내려면 자기 주인공을 믿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 자기를 낮게 생각을 합니까. 낮게 생각도 말고 높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어느 제자가 아파서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부처님 뵙기를 아주 소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줄 알고는 부처님께서 그 아픈 사람에게 갔어요. 그 집에 가서 "좀 어떠냐?"고 하면서 들어가니까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육신은 드러누웠으나 앉았으나 일어나나 상관이 없다. 단, 네 마음이 그토록 간절하고 그렇다면 벌써 일어나서 반길 수 있는 그 진정한 진실한 마음이 있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을 삼 배 했느니라" 하시거든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네 마음이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네 마음이 자기를 구덩이에다 넣을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는 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론으로는 정말이지 저보다도 이 세상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로, 이론으로서 무불통지 하셔서 말을 참 잘하신다 하더라도 못하는 나만 못한 겁니다. 그 뜻을 아십시오. 열 번 백 번 만 번 말을 잘한다 해도, 또 물질적으로나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율법을 지킨다 해도 이 무의 세계의 무루법은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 무루법은 두루 모습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행하기가 어려운 거지, 한 번 행할 때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행할 때에 주장자를 탁, 주장자가 동그랗게 말려서 가져다니는 사이 없이 가져다닐 때 주장자가 한 번 탁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들었다 하면, 쪽 펴지면서 요란하게 소리가 날 때에는 우주간 법계에서 그 소리를 듣고 다 같이 호응을 해 준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고 자유로운 법입니까. 자유롭게 사십시오.

어떻게 한생각을 내야 하는지요?

문 주인공에 모든 걸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생각을 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한생각을 잘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생각을 잘하라는 말씀은 꼭 내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공의 나툼인데 또 내가 따로 생각을 내야 되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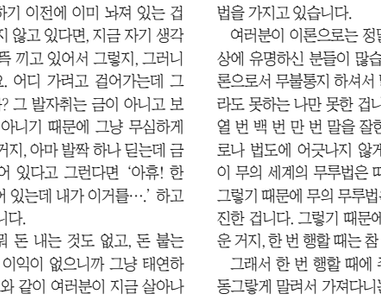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 거라고 할 게 하나도 없으니 그냥 놓고 살아가세요

답 주인공에 일체를 놓되 한생각을 잘하라고 하는 건, 내 한생각이 악도 되고 선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한생각 법이 되어 만 생명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참나가 있고, 참나는 근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입니다. 근본은 우주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 놓으세요.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모든 것을 거기에 놓으십시오. 아는 것도 참자기가 알기 때문에 아는 거지, 생각을 낼 수 없다면 목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생명이 없으면 송장이죠.

밝고 밝은 이 세상에서 지금 인공위성이 오르고 또는 전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두루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고 삽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공위성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빛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고 보배라는 걸,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보배라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러한 원리로 인해서 각자가 잘 살게 되고 또 회사가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한 사람만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는 아주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 한다면 이 나라는 바로, 지금 물질과학으로부터 정신과학으로, 마음으로써 만법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깨우친다 안 깨우친다 이거를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꾸 자기 생각으로 좌절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못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내가 중생인데, 이건 안되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다고 생각을 했을 때 조그마한 것뿐만 아니라 큰 것이라 해도, 그 일이 타인의 일이라도 그 일이 된다고 믿고 할 때는 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 공장을 처음 냈는데 '이게 이럭하면 안되는데….' 할 때, 그 한생각을 탁 내준다면 그 공장은 그대로 유지돼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위해 한생각을 내 주는 것도 그렇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 한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한생각의 향기로운 냄새가 온 우주를 덮고 온 우주를 싸고, 아니 닿는 데가 없이 닿을 수 있게끔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한생각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여러 가지로 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그거를 여러분이 못 느끼고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기밖엔 못 디뎠는데 나중에는 지혜가 넓어져서 저기까지 딛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차츰차츰 뛰어야 되는 거지 이걸 한꺼번에 뛰려면 안되니까 살면서 조그만 데서부터 체험을 해 나가시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자면 우리가 마음으로 인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욕심 없이,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습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의적인 일을 위해서 했다면 악한 일이 아닙니다. 거짓도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거는 잠시 거짓말을 한 거지 거짓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잘 생각해서 나와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는, 타인의 육체나 내 육체나 똑같은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생을 자기가 이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남도 이익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생각을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폭력적인 의식의 정체

문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도 불합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그냥 한달음에 달려가서 박살을 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스님, 제 안에서 불뚝불뚝 생겨나는 이러한 폭력적인 의식들의 정체가 무엇인지요? 분명 폭력이나 우격다짐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느끼면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이 의식들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답 어느 곰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살다 보니깐 짐승에서 진화돼서 아주 하얀 백곰이 됐답니다. 처음에는 얼룩덜룩하다가 꺼떻다가, 얼룩덜룩하다가 보니까는 회색이 되더니 점점점 백곰이 돼 버렸습니다. 그것은 오래 살다 보니까 좀 지각이 생기고, 또 어쩌다가 사람을 만나면 '아! 저런 모습도 있었던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잡으려고 왔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알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저 사람의 모습을 그려봤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곰 부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나도 이렇게 숨어 다닐 게 아니라 저들에 나가서 활보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그리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그 부부가 새끼를 낳았는데 사람 모습 그대로 나왔더랍니다. 사람 모습이 그대로 나왔는데 그 새끼가 사람 모습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새끼들이 금방 금방 자라더니마는 그저 짐승이고 뭐고 나가서 피를 빨아먹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냥 입이 시뻘건 게 입은 꼭 자기 입하고 똑같이 닮았더랍니다. 그때에 곰 부부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하! 사람의 거죽만 그렸지 마음을 그리진 않았구나. 내 그 마음을 그려 보리라. 그러면 저 자식 대에는 진짜 사람이 나오겠지.' 하는 마음의 믿음으로서 항상 그 마음을 그렸습니다.

그러고 가다가 새끼들을 낳았을 때, 수컷도 낳고 암컷도 낳았는데 그것이 점점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그 새끼가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연방 일러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죽을 때 "나도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그리라고 해서 그렸더니 너희들이 나왔는데 너희들도 사람의 마음을 그려라. 첫째, 사람을 해치지 말고, 사람이 너희들을 해친다 할지언정, 너희들이 해를 받는다 할 때, 바로 즉시 그 사람의 마음이 너희 마음이 되고 너희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되느니라. 그럼으로써 그 악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해 줬지마는 짐승 같은 사람의 모습들은 자기 형제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 그대로 살다 보니까 참 사람이 또 났더랍니다. 그리고는 또 그 사람에게 그 얘길 해 준 겁니다. "선조 대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우리가 났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모습도 사람이요, 마음도 사람이니 남을 악하게 하지 말고 남의 피를 먹지 말고, 열심히 품뿌리로써 연명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저 너희들의 몸에 있는 털을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어 만들어라."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나고드는 것 전부 한자리의 굴림

☞29면에서 계속

하고선 그렇게 부탁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부도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이 항상 뿌리 같은 거를 캐다가 보양을 하니까 그냥 그 사람과 같이 그대로 먹다가 자기 일생을 마쳤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해서, 한 동네를 이루어서 어부 노릇도 하고 농사도 짓게 되고…. 농사짓게 된 동기는 또 따로 있겠지마는 그렇게 농사짓고 살기 이전 얘기를 지금 죽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되기까지 얼마큼 내려오면서, 억겁을 거쳐 오면서 이렇게 사람이 됐겠습니까. 지금은 애들이나 어른이나 아주 극단적인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건 왜냐. 사람을 막 피를 빨아먹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억겁으로부터 거쳐 오면서 그렇게 해 온 습이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극치적인 영화를 좋아하고 극치적인 산란을 좋아하는 거는 반드시 그렇게 잠재해 있던 것이 그걸 보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습이 아직까지도 꼭지가 덜 떨어져서, 뒤 꽁댕이는 떨어졌는데 꼭지가 덜 떨어져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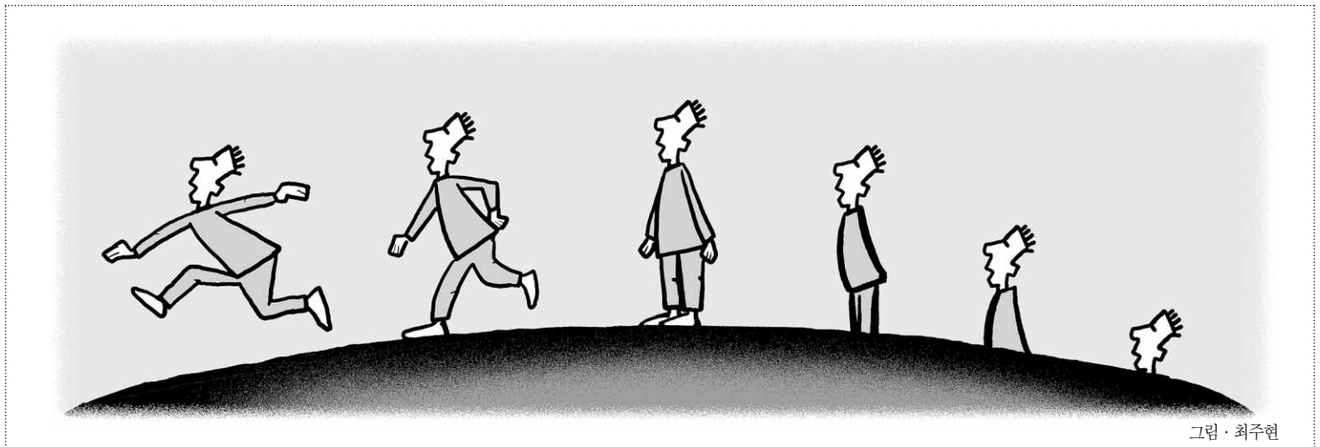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주인공에 일체를 놓되 한생각을 잘하라

여러분도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한 꺼풀 한 꺼풀을 벗어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스럽게 뛰어놀지 못합니다. 자유스럽게 살 수도 없습니다. 속박돼 있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업보가 얼마나 많길래 이런가. 팔자 운명이 얼마나 고달프길래 이런가. 내가 죄를 얼마나 졌길래 이런가.' 하는 이러한 사념에 끄달리면서 그 암흑 같은 길을 걸어야만 했고, 걸어가는 길이 밝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캄캄한 암흑 길을 걸어가니 이 몸을 벗는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낙향하게 돼서 점점 더 껌껌한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인연이 돼서 또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마음 하나에 우리가 세세생생 그 뿌리가, 인연 뿌리가, 인과 뿌리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그러니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사람이, 이 공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더 그렇고, 공부라고 할 것도 없지요.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것이 전부 공부니까요. 하나하나 뉘우치면서 하나하나 진화되면서 창조해 가면서 우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옮겨 가면서, 고정된 행도 없고, 고정된 말도 없고, 고정되게 먹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빈 그릇 그저 일렁일렁 움죽거릴 뿐입니다. 단지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도 없는 마음이 자기를 움죽거리고 갑니다. 그 마음이 선장이라면 바로 그 선장은 나침판을 놓고서 그냥 가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색에, 물질에 착을 두고 이름에 착을 두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보지 말라. 안으로 굴리지 않는다면 보살이 아니니라. 깨우쳤다 하더라도 안으로 굴리지 않고 바깥으로 도는 자는 공덕이 하나도 없고 보살이 아니니라. 이 몸으로, 이 모습으로, 이 이름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고, 이 모습과 이 이름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자식의 마음을 알 수 없고, 부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일체 만물 유생 무생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굴릴 수가 없느니라. 제도할 수도 없느니라. 그런데 무엇을 제도했다고 하느냐? 제도 했다고 하지 말라. 본래 둘이 아니기에 제도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느니라. 그대로 마음으로 굴리면서 항상 따뜻한 마음을 내주면 되는 것이니라.

따뜻하게 둘로 보지 않는 마음, 남이 아프면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내 준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아픔과 둘이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요, 진짜 들어가서는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이라는 것도 이름이요,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요, 여래라는 것도 이름이요, 다 이름이니 그 이름을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이름 속에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모습 속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하라, 발견하기 위해서는 안으로 보림을 하면서 항상 안으로 굴리면서, 거죽으로 나타내지 말고 경솔하지도 말고, 남을 깔보지 말 것이며, 벌레 하나를 본다 할지라도 바로 나로 알아라. 저 꽃 이파리 저 나무 이파리 하나, 무정물이나, 하다못해 돌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이 아니니라.' 하셨던 겁니다.

칠성 신앙에 대해서

문 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불법이 이 땅에 전래되기 이전부터 고유하게 있었던 칠성 신앙이 불교로 융합되면서 칠성광여래불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칠성광여래불이라고 하는 불의 당처가 우리 마음속에 들었다고 하시는데 우리들도 마음을 깨달으면은 칠성광여래불이 될 수가 있는지요?

답 왜 그렇게 벌려 놓고 애를 씁니까? 공부를 하고 난 뒤에는 물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겠지만, 공부를 이제 시작하면서 왜 그렇게 벌려 놓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마음공부 하는 데는 그렇게 벌려 가지고는 공부 못해요.

알고 보면 칠성여래도 바로 각자 자기에요. 왜냐하면 일곱 칠성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의 모든 거를 규모 있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름은 다 각각 지어 놨지만 말입니다. 이름은 다 각각 지어놨지만, 보라고요. 눈으로 보니 반짝거리고 귀로 들으니 반짝거리고 코도 냄새를 맡고 혀도 맛을 알고, 두뇌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다 알잖아요, 몸이. 이게 바로 칠성각여래불이에요.

그리고 정맥 동맥이 돌아가는데 이게 돌아가지 않으면 해와 달이 어떻게 움죽거릴 수 있겠습니까. 몸 자체를 알면 외부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돼요. 그거는 해와 달이 어떤 한 혹성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와 달은 이 혹성에도 있고 저 혹성에도 있고 그래요. 우리 이 혹성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내 몸에만 해와 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한테도 있고 딴 혹성에도 있고, 그 해와 달은 언제나 따르게 마련이에요. 왜냐. 물이나 불, 흙, 바람 이것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종합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빛이 나오질 않아요. 그 빛이 바로 해도 될 수 있고 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바로 우리 마음에서, 어둠도 우리 마음에서 가져오는 거고 밝음도 우리 마음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한마음 말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본다면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지 딴 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별성이 따로 있고 칠성이 따로 있고, 칠성부처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면 그건 칠성부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고 칠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칠성부처가 그렇게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애도 낳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달과 해가 없으면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즉 말하자면 여자 남자가 없다면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그러니 낳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전부 이게 굴림이 아니냐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도, 옷 벗는 것도 허공에서 그냥 허공신으로 도느냐, 내가 정직하게 자유자재하게 살아서, 벌써 열반이라 하면 살아서 네가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네가 될 수 있어야 열반이에요. 그렇다면 칠성각여래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여래의 집이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한마음을 깨달으면 그냥 여래불이에요. 내 몸이 바로 여래의 집이에요. 여래의 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칠성각 부처님도 되고…. 아니, 어느 조사도 되고 부처님도 되고 어느 신장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이 우주가 진리라고 하고 길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칠성각여래불이 그대로 칠성각여래불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칠성각여래불이에요. 고게 그대로 고정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칠성각여래불이지 만약에 고정돼 있다면은 그것은, 즉 말하자면 전체적인 칠성각여래불이 될 수 없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떡 하나를 먹는데 포크로 떡을 하나 꽉 찍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우주개공을 다 찍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칠성각여래불은 명만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나고 들고 하는 것이 전부 한자리의 굴림입니다.

동의대학교 음악 아카데미
응용피아노 수강생 모집
지도교수 권 상 무
• 방송 피아니스트
• 필라델피아 음대 음악박사-편곡
• "크로스 오버"오케스트라 지휘자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초보, 중급) - 생활피아노(초보 누구나 가능)
• 찬불가, 가곡, 가요 강좌번호 108번
• 찬불가 합창단 반주 및 법회 반주
예술적인 고급 연주법 및 패즈(고급): 연주용 피아노
• 피아노 전공자, 피아노 교사, 사찰 반주자
강좌번호 109번
수시모집 12주-주1회 ₩300,000
1:1 렛슨 · 눈높이 교육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TEL:(051)890-1947~8 FAX : (051)890-1949
http://www.educate.dongeui.ac.kr E-mail:educate@dongeui.ac.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번지
권상무 교수 H.P : 011-342-8215

관 절 염
자 생 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비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3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쟁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 약제제 안티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2달분 258,000원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8년 효성카톨릭 대학교 약학과 졸업
▶1987년 홍재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경 한일한국본부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질병
구입신청 033-255-5669 안티하이퍼



3월 26~29일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린 '2004 웰빙페어'에 전시된 아로마 제품들. 사진=강신재 기자

아로마, 건강 수호천사!

향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답은 아마도 'Yes'일 것 같다. 좋은 향을 맡으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다면 향이 몸을 움직일 수도 있을까? 아로마(향기)를 통해 질병을 치유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답을 대신한다. 아로마를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아로마테라피란?

아로마 테라피란 향기를 뜻하는 'aroma'와 치료법을 뜻하는 'therapy'의 합성어다. 아로마 오일은 각종 식물

식물정유 체내 흡수 통해 병 치유
성분 비정상적 세포 정상화 도움

의 꽃, 줄기, 잎, 뿌리, 열매 등에서 추출한 식물 정유(精油)로, 이를 코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시켜 병을 치유하게끔 하는 것이 향기요법의 원리다. 다시 말하자면, 식물 정유의 유효한 성분을 인체로 들여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면서 인간의 자연치유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흔히들 아로마를 피부미용에 쓰이는 화장품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로마테라피에 사용되는 오일은 일반 화장품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인체에 흡수된 오일의 분자는 세포외액, 혈액, 임파액 등의 체액을 타고 전신을 돌면서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정상화시킨다. 그리고 본연의 임무를 끝낸 후에는 체외로 자동 배출된다.

아로마 사용법

식물의 여러 부분에서 추출된 아로마 농축 오일은 나름의 독특한 향기와 치료성분을 가지고 있다. 적합한 농축 오일과 그 사용법을 알아본다.

■흡입법-거즈나 더운물에 담아 흡입

3~4방울의 농축 오일을 손수건이나 거즈, 혹은 더운 물을 담은 컵에 떨어뜨리고 2~3분 동안 흡입한다.

감기예방과 치료: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네롤리 등

불면증: 클라리세이지, 베티버, 발레리안, 라벤더 등

■목욕법-15~20분 적당 로즈마리 · 라벤더 등

욕조에 따뜻한 물을 가득 받아 놓고 8~15방울의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리고 잘 섞는다. 그 물에 15~20분 정도 몸을 담근다.

기분전환 : 라벤더, 제라늄, 일랑일랑 등

부은 다리 : 주니퍼베리, 로즈마리, 라벤더 등

■찜질법-지속적 이용 요통 · 관절염에 효과

5방울의 농축오일을 200ml물에 떨어뜨려 상처부위를 15분 동안 감싼다. 근육통이나 멍든 곳에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좋다.

류머티즘 관절염: 로즈마리, 라벤더, 프랑킨센스, 진저 등

요통: 클로브버드, 로즈마리, 캐모마일 등

■스팀법-일정거리 유지 얼굴 노폐물 제거

큰 대야에 600ml정도의 뜨거운 물을 붓고 2~3방울의 농축오일을 떨어뜨린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내려오지 않도록 정리하고, 너무 뜨겁지 않은 상태로 거리를 조절하며 3~5분 정도 스팀을 쬔다. 미지근한 물로 노폐물을 제거하고 찬물로 세수해 모공을 수축시킨다.

여드름: 주니퍼베리, 레몬, 사이프러스 등

■마사지-아몬드, 카놀라등과 혼합, 정서도움

아로마테라피 방법 중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법. 중요한 것은 강력한 농축오일을 그대로 쓰지 말 것. 3%의 농축오일을 호호바, 윗점, 아몬드, 이브닝 프림 조르, 그레이 프시드, 캐롯, 아보카도, 카놀라 등의 오일과 배합해 사용한다.

편두통: 제라늄, 레몬, 라벤더 등

정서불안: 베가모트, 로즈우드, 자스민 등

■주의사항-임신초기 주의, 술 담배 삼가

임신 초기(3~4개월 이하)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향이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번 개봉된 것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향이 거슬리거나 느낄 수 없을 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민감한 피부는 자극이 강한 블랙 페퍼, 카다멈, 진저의 사용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향을 사용할 때는 가급적 술과 담배는 삼가는 것이 좋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제9회 한국 아로마테라피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이 아로마초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14

음식 너무 익히지 말고 부드럽게 조리

3도샤의 밸런스를 위한 음식들 II



이번엔 피타 체질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자.

곡류로는 쌀, 보리, 귀리 왕겨, 밀, 밀의 왕겨 등이 도움이 된다. 콩류로는 적은 양의 팥, 녹두, 빨간 완두와 노란 완두, 그밖의 콩 제품류는 모두 무난하다. 이와 같은 콩류들은 너무 푹 익히지 말고 부드러운 정도로 조리해 먹도록 한다. 과일류는 사과, 딸기, 토마토 등과 같이 작고 수분이 많은 과일, 코코넛, 대추, 무화과, 아보카도, 멜론, 플럼(서양 자두), 석류 등과 같이 단맛이 나는 과일들이 좋다. 채소류는 오이, 익힌 양파, 고구마, 콩나물, 시금치, 호박류, 브로컬리, 꽃 양배추를 즐겨 먹도록 한다.

양념류는 감초, 카르다몸(생강과의 냄새가 좋은 향신료), 호유자, 고수풀, 회향기름, 신선한 바실, 심황과 소량의 커민 등과 같이 더운 것을 차게 하는 양념류가 좋다. 유제품으론 균질화되지 않은 신선한 우유, 기(우유나 물소 젖으로 만든 일종의 액체 버터), 그리고 적은 양의 버터면 족하다. 육류는 굽거나 익힌 닭 요리, 칠면조 또는 적당량의 흰살 생선이면 좋다. 견과류는 해바라기씨와 적당량의 아몬드, 기름류로는 코코넛, 해바라기, 카놀라, 적당량의 참기름이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바타에 좋은 음식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

곡물류로는 쌀, 보리, 밀, 아마란서스(색비름: 비름속 식물의 총칭. 줄맨드라미 등 관상용으로 재배), 귀리와 명아주, 콩류로는 녹두, 빨간 완두와 노란 완두 등을 부드러운 정도로 조리해 먹는다. 과일류는 신맛이 나는 포도나 레몬, 배, 바나나, 오렌지, 대추, 무화과, 사과, 아보카도와 딸기, 토마토 등과 같이 작고 수분이 많은 과일, 그리고 적은 양의 건포도가 좋다. 채소류로는 긴 호박, 비트(사탕무우류), 꽃 양배추, 부추, 당근, 아스파라거스, 고수풀, 회향풀(작고 노란 꽃이 피는 산형과의 방향성 식물),

피타-콩류 모두 무난, 작고 수분많은 과일 섭취
바타-산형과, 방향성 식물 권장 마늘 피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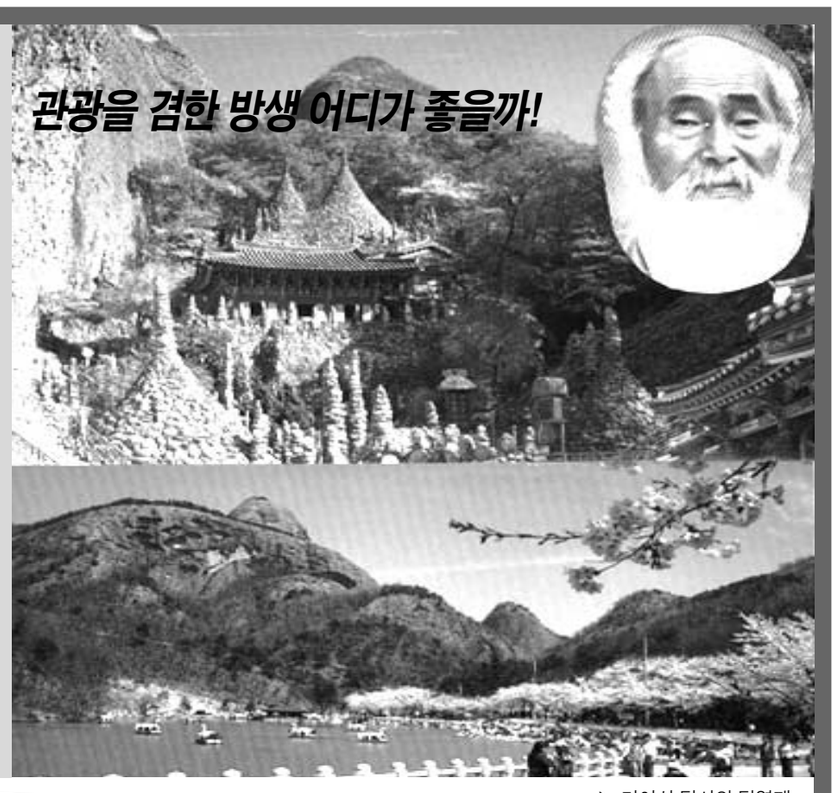
적은 양의 마늘, 푸른 고추, 파스닙(사탕 당근), 익힌 무 등이 좋다.

양념류는 맵고 입맛을 자극하는 마늘 같은 종류는 피한다. 생강 뿌리, 고수풀, 커민(미나리과의 일년초), 호유자(특히 향미료), 회향 기름, 심황(동인도산 생강과 식물. 심황 뿌리 가루) 등과 같이 신선한 양념들을 섭취토록 한다. 유제품류는 균질화되지 않은 신선한 우유, 기, 그리고 적은 양의 버터면 좋다. 육류는 닭, 생선 또는 칠면조의 흰살 부분과 닭죽 등을 즐겨 먹도록 한다. 견과류는 적은 양의 아몬드, 호두의 일종인 피칸, 참깨, 기름류로는 액체 버터인 기, 적은 양의 참기름과 올리브유가 좋다.

다음 주엔 우리 몸은 왜 병드는지 그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알아보고 그 치료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기대 바란다.

■ 포천 중문의대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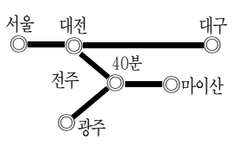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님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 망해사 · 흥복사 · 봉서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전주 군산 간 벚꽃길따라 100리, 윤달 삼사순례 오십시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루 일천명의 점심공양 가능(무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 모 암 대중일동

화제의 신발

성불화 룸비니 신발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



남여공용
성불화룸비니

룸비나는 석가모니 부처님 고향이름

세상에서 이렇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 있을까?
성불화 룸비니를 신는순간 누구나 이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최첨단 신발과학의 명품으로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 까지도 감탄과 찬사를 받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에 사는 공무원 K씨는 골고를 믿지 않지만 어머니가 10년이상 족첨염으로 활동도 못하고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신발이라도 가볍고 편안한 신발을 사드리려고 하던중 성불화룸비니신발이란 신문기사를 읽고 속는 셈치고 구입해 드린것이 지금은 1Km이상 가볍게 걸을수 있으며 활동도 한다고 한다. 서초구에 사는 P여사는 신발이 너무 가볍고 편해 1족을 구입했으나 혹시 생산이 중단되면 어떠할까 해서 평생 신으려고 3족을 더 구입했다 할 정도로 가볍고 편안한 최고급 신발로 평가 받고 있으며 여의도에 사는 개신도 권사도 절에 다니는 친구가 신은 것을 보고 너무 좋아 종교를 떠나 사신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벅 사용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대단히 가볍고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룸비니 신발은 최첨단 신소재와 20만원대 신발에만 사용하는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했으며 밀창은 골프화 같이 초경량 골프그립을 개발하여 접지력과 마모력을 강화했고 눈, 비올때에 미끄럼 방지기능이 탁월하며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산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발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성을 갖추었다. 디자인면에서는 평상복 또는 케주얼복에도 잘어울리게 제작했으며 불자님들의 사찰불공시, 또는 성지순례와 해외여행, 등산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과학적이고 인체공학적인 신발이다.

성불화룸비니는 남여공용으로 225mm-285mm까지 사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준다. 가격88,000원

문의전화:080-755-0003
농협944-12-417900 고덕림

윤달이 낀 갑신년에 신발을 선물하면 건강장수합니다.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 향로



무게2.7kg 높이22cm 가로17cm

갑신년, 가지가지 보배 재물을 얻고 소원을 성취할 것이다.

'소원성취 향로'화제집중

99%청동을 만든 국보급 명작

불경에 입각한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관음예술원에서 불교의 관음 신앙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영험의 손모양(수진언)과 지물을 향로로 제작해 점안 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 수진언은 세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영험**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음수진언은 큰 스님들로 하여금 그룹으로 그려져 어려움을 겪는 불자들에게 긴급 비방으로 사용해 왔다. 흡사 한지 100일도 안되어 관세음보살의 정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패하기만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집이 팔리고, 복권 1,2,3,4등이 모두 당첨되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최고의 향로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윤달이 낀 갑신년에 부처님 공양구를 가정에 모시면 삼재도 소멸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화를 쫓고 꾀였던 일들이 풀린다 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관세움보살 수진언 향로는 99% 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들어오는 향로는 만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회색 꽃이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움수진언 향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예불시 또는 제례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우체국 특급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고 있다.
가격295,000원

관음예술원
문의전화: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

갑신년名品특집

윤달이 낀 갑신년

윤달이 낀 갑신년은 지금으로 부터 120년 전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든 해로 정변의 기운이 넘치는 해다. 역학적으로 서방의 氣가 동방으로 쏠려 정치는 격동기를 맞을 것이며 민심은 구심점이 없어 방황하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서방의 氣가 동방으로 몰려 괴질과 풍토병이 만연하여 氣가 약한 사람은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수 있는 해로 누구에게나 윤달이 낀 갑신년은 좋은 해는 아니다. 역학적으로 볼 때 한 마디로 윤달이 낀 갑신년은 집을 잃고 방황의 해다. 정치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돈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민심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건강도 방황하지만 갑신년 후반기 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집을 찾아 안정이 된다. 봇부터 윤달이 낀 해에는 누구에게나 삼재를 당하는 해와 갈다하여 화를 쫓고 액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고 지혜를 얻기 위해 부처님 공양구 뜨는 법구를 집안에 또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불교에서는 삼재를 물리치고 건강장수하며 복을 받는다고 했다.

금강저 건강밸트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승리의 금강저 밸트

삼고 금강저(金剛杵)



삼고 금강저

삼고 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무기로 돌퇴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밀교의 만다라에는 금강부의 머리존상이 모두 금강저를 가지고 있으며 금강역사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악귀와 잡귀도 물리쳐을 정도로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를 뜻한다.



뱃속에 잡귀와 악귀를 물리치고 강건할 것이다.!!

승리의 선물! 건강의 선물! 합격의 선물!

험한 세상 믿음의 호신용으로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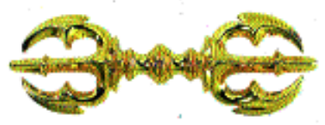
국내 최대의 불교성구 제작 전문업체인 관음예술원에서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인 금강저밸트를 제작하여 남자들로 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불교에서 금강저는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악을 물리치고 화를 쫓으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빌아 각자 소망하는 소원이 성취되고 승리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법구다.

악귀와 잡귀 보기만 해도 도망

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금강저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치며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로 불경에 입각하여 제작된 승리의 수호신인 금강저를 밸트에 부착하여 남자들이 험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게 제작한것이 돋보여 직장인은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과 수험생, 경찰관, 군인등 밀음의 호신용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장이 약하고 허리 약한 분 최고

업체 관계자는 금강저 밸트에서 발산되는 氣와 원적외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허리와 장이 약하신 분은 15일 정도 착용하면 튼튼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금강저 자동밸트는 실용신안 및 건강밸트로 특허를 획득한 국내 밸트 중 기능성을 가진 최고급 자동밸트로 평가도고 있다.



특별증정 삼고금강저

출시기념으로 여성들이 핸드백에 넣어 자신감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도금한 삼고금강저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가격65,000원

관음예술원
문의전화: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

부처님 福 지갑

東西南北의 福을 모으는 靈驗!



남여공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 케이스에 담겨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우신분은 꼭 사용하세요.

영험의 룸비니 福 지갑

120년 만에 맞는 갑신년 金의 해. 룸비니 福지갑으로 부자되세요

갑신년 선물로 최고!

생일선물! 개업선물! 이사선물! 결혼선물!
합격선물! 승진선물! 취업선물! 사랑의 선물!

왜! 윤달이 낀 갑신년에 지갑을 바꿔야 하는가?

120년만에 온 윤달이 낀 갑신년은 격동의해로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역학적으로 윤달이 낀 해는 언제든지 누구나 삼재를 맞는 것과 같은 해로 환란을 소멸 하고자 윤달이 낀 해에 따라, 부모님의 수의를 장만하면 좋은 허가 있고, 가구를 바꾸면 좋은 해와, 적색내의를 입으면 좋은 해, 등 해에 따라 다르며 2004년 갑신년은 120년전 갑신년과 같이 서방의 氣와 金이 동방으로 몰리면서 지갑과 신발을 바꾸면 좋은해 입니다. 특히 윤달이 낀 갑신년에는 돈이 집을 잃고 방황하는 해라 하여 金의 해라하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지갑으로 바꾸면 방황하는 돈이 새지갑으로 들어오는 해로 120년만에 온 윤달이 낀 갑신년입니다.

부처님지갑인 룸비니 복지갑에는 불교에서 유일하게 동서남북의 복을 부르는 부처님성구 ㉮자를 지갑정면에 넣고 윤달이 낀 갑신년 악귀와 잡귀를 쿨리치고 건강을 지키는 금강저를 지갑 내부에 순금도금하여 넣었으며 부처님 꽃이며 소원성취꽃인 백연화를 새겨, 가지고 다니는 순간부터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부처님 지갑인 룸비니복지갑은 명신인 소백산에서 부처님께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드린 영험의 지갑입니다. 브랜드를 룸비니라 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지 이름 입니다.

부처님 지갑인 룸비니지갑은 안과 밖이 똑같은 최고급 천연가죽으로 내부도 기존지갑과는 비교가 될수 없게 대단히 잘 꾸며져 있으며 국내 최고급 지갑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룸비니지갑은 부처님지갑으로 지갑을 받으시면 사용할 분의 신분증등을 넣고 깨끗한 상위에 놓은 다음 서쪽을 보면서 3배하시고 사용하시면 윤달이 낀 갑신년에 삼재도 물리치고 소원성취 하십니다.

이런분은 꼭 사용해 보세요.

- 사업을 하면서 어려우신 분
- 장사를 하고 있으나 안돼는 분
- 항상 하는 일이 안돼시는 분
- 취업을 준비중인 분
-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
- 개업을 준비중인 분
-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
- 결혼을 앞둔 분
- 특별한 선물을 찾고 계신 분
- 점포를 팔려고 내놓은신 분

신청 및 문의전화:080-755-0003

전화로 룸비니복지갑을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택배로 전국어디나 정성껏 보내드립니다.
남여공용반지갑5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은 신용카드 분할 또는 하기구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농협944-12-417900 고덕림

성불화 Lumbini 성불화 룸비니